진리
평화
창조

# 외대학보

창간 1955년 4월 11일 1958년 3월 27일 제3종 우편물(가)급인가 등록 1960년 7월 1일 등록번호 제 다253호

발행인 이 강 혁
편집인 겸 주간 양 승 윤
편집장 이 상 필
외대신문사(☎962-7128, 961-4151)
외대학보(☎965-7048, 961-4152)
130-791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1
449-791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왕산리
인쇄인 김 영 수

제 5 4 3 호 〈주간〉 THE OE DAE HAGBO PUBLISHED BY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1990년 5월 29일 (화요일)

## 이경택군 시위중 화상입어

### 경찰, 연행중에도 계속 구타

지난 25일(금) 단국대에서 열린 「노태우·자본가권력타도와 전투적노학연대를 위한 투쟁위원회발족식」이후 계속된 시위도중 본교 이경택(서양·포이2)군이 얼굴·오른팔·가슴등에 2~3도의 화상을 입고 28일 현재 왕십리 경찰병원에 입원중이다.

단국대, 경기대 본교등 3개대 1백50여명이 모인 이날 신천대회중, 화상을 입은 이군의 정확한 화인은 아직 밝혀지고 있지 않지만 경찰과 학생측의 주장을 종합해보면 △도망을 가다 방향불명의 무언가에 맞음 △경찰에 쫓기다 넘어지면서 화염병이 제저 불이 붙어 있는 곳에 얼굴과 팔등이 접촉되어 직접적인 화상의 원인이 됨 △연행과정중 구타를 당함으로 축약되고 있다. 그러나 경찰측이 주장하는 「학생측이 던진 화염병에 직접 화상을 입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고 있다.

그러나 화인의 규명보다 △이군의 연행과정중 경찰버스내에서 무차별 구타 △응급조치의 고의적인 연기 △25일 오후 7시부터 26일 새벽3시까지 무려 8시간동안 5개의 병원을 옮긴점등을 종합해볼때 이군의 상태악화에 대한 경찰측 책임이 추궁되고 있다.

이군은 오른쪽고막이 불타 청각기능이 상실 되었으며 수차례의 성형수술후에도 완전한 회복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학교측과 총학생회측은 지난 23일(월) 부총학생회장 박상근(서양·영어4)군을 위원장으로 대책위원회를 구성, 이군의 치료, 보상문제, 향후사회생활문제에 대한 논의와 함께 이번주내로 전상규명대회를 열것을 논의하고 있다.

### 신장호 열사 전대협장

지난 19일(토) 경찰의 검문을 피해 열차에서 뛰어내리다 사망한 고(故) 신장호(대유공업전문대·건축2)열사의 장례식이 지난 23일(수) 조선대학교에서 본교생 1백50여명포함, 유족, 학생, 시민등 3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대협장으로 치뤄졌다.

## 본교「증원증과안」확정

### 91년도, 2백20명증원 5개증과요구

본교는 지난 5월16일(토) 91학년도 입학정원의 2백20명 증원과 5개과의 증과 등 「증원증과안」을 문교부에 제출하였다.

기획조정처관계자는 서울지역의 증과는 불가능하며 자연계를 우선하여 결정한다는 문교부의 방침에 따라 증원증과 결과가 10월초쯤에 발표될 것이라며 『문교부는 1백20명이내의 증원 지침을 발표했지만 제외결정이 어려워 2백 20명 증원안을 제출했다』며 『많은 증원이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증원증과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증과 △인문대 문화인류학과 △동양학대 버마어과 △사회과학대 해운경영학과, 사회학과 △자연과학대통계학과 각 괴30명씩 1백50명. 증원 △사회과학대 경영정보학과 △자연과학대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전자계산학과, 환경학과, 미생물학과 각10명씩 70명.

### 한국지역문제 연구소 통일문제강연회 개최

본교 「한국지역문제연구소」는 내일(30일) 오후3시 대학원 105호에서 한양대 공성진교수를 초청, 「21세기 한국의 지성—전향적 민주주의의 장래」라는 통일문제강연회를 실시한다.

## 「전국교사대회」열려

### 교육민주화등 결의

「전교조 탄압분쇄와 합법성 쟁취를 위한 창립1주년 전국교사대회」가 지난 27일(일) 오후 1시 경희대 노천극장에서 전국 5천3백여명의 현직교사와 해직교사가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관련기사6, 7면〉

### 향수도

▲전교조 창립 1주년
—참교육 꽃이 피었습니다
▲용인 대동제 개막
—근절 주동제(酒同祭)사수 대동제
▲임대표 15년 구형
—통일유죄, 반통일 무죄

## "저의 방북은 7천만 민중의 통일염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 임수경대표 최후진술 15년 구형

### 문규현신부 10년구형

어제 (28일),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임수경(서학·불어4)대표의 항소심 구형공판결과 1심의 징역10년, 자격정지10년 선고보다 각각5년씩 늘어난 징역15년이 구형되었다.

본교생 20여명포함 전대협소속70여명의 학생과 임양가족, 신부, 수녀등 2백여명이 참석한 이날 공판에서 임대표는 최후진술을 통해 『저의 평양축전 참가는 전대협 1백만 학도와 7천만 민중의 높은 통일염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평양축전에 동행했던 제미언론인 안동일기자의 중언을 위한 입국을 당국이 불허한것은 진상규명을 은폐하려는 것』이라고 당국의 공소조작사실에 대해 비난했다.

한편 임대표는 징역 10년, 자격정지10년을 구형받은 문규현신부에게 『어두운 곳에 빛을 점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의 성프란체스카의 기도로 사의를 표한후 『우리는 마침내 승리하였습니다. 승리의 그날은 슬픔과 고통으로 가득한 어머님의 얼굴에 환한 웃음을 안겨 드릴 것입니다』라며 통일에 대한 확신으로 최후진술을 마쳤다.

공판과정중 방청석의 시민·학생들은 임대표와 문신부의 진술 한마디가 끝날때마다 박수를 치며 호응하는 모습을 보인 반면, 검사측의 논고 도중에는 가끔씩 야유를 보내기도 하였다.

한편, 서울·용인캠퍼스학생 20여명은 임대표공판에 참가하기 위해 지난27일 밤 서울캠퍼스 본관 교수회의실에서 철야농성을 벌이고 임대표의 방북성과에 대해 토론하기도 했다.

이후 임대표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6월11일(월) 오전 10시 서초동 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 미래연구회 세미나 「대학민주화」에관해

본교 미래연구학회는 「한국의 민주화와 대학민주화의 전망에 관한 세미나」를 오는 6월 1일(금) 오후2시부터 대학원 소강당에서 갖는다.

첫번째 「한국의 민주화와 전망」과 관련된 토론에는 성황용교수(정외과)의 주제발표와 함께 조순승(평민당의원), 김현욱(민자당의원), 강인섭, (민자당당무위원) 서재만교수(터키어과)등이 참가하며, 두번째 토론은 「한국 대학의 민주화와 전망」과 관련 서병완교수 (교육학담당)의 주제발표와 함께 윤종건 본교 평교수협의회, 노동조합대표, 이승태(대학원생), 장우성(학부생)등의 토론이 진행된다.

## 제8회 외대학술상 논문모집

본보는 올해에도 학술상 논문을 모집니다. 올바른 학술풍토의 정립을 위해 여러분들의 소중한 땀이 담긴 학술논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응모자격:본교 재학생
◎모집분야: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등 3개부문(원고 80매 이내)
◎심사위원및 상금:추후 발표
◎제출처:외대학보사(서울:학생회관 203호, 용인:학생회관 212호)
마감일:7월31일(화)
※단, 제출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외 대 학 보

## 빈의자

### 양심의 「대결단」

▲우리가 살고있는 이 세상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산재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대의에 복무하고 양심에 의해 죽순처럼 살기는 너무 힘들다. 또한 개인의 의로운 일이 「순수함」 그대로 받아들여 지지않고, 제약당하고 한편으로는 영어의 몸으로 만든다. 바로 이사회가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얼마전 메스컴을 떠들썩하게 했던 「감사관 구속」이라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다. 나이 50세, 부인과 두명의 남매를 남긴채 19년동안 외길로 걸어온 감사관의 길을 수갑찬 죄인(?)의 모습으로 마감하게 된 이문옥 감사관.

『추악한 제벌의 힘에 의해 나라의 마지막 양심이어야 할 기관조차 아무런 저항없이 주저앉은 것을 보고 말할 수 없는 분노와 절망을 느낀다』라고 털어놓았던 이감사관은 제벌의 비업무용 토지소유 현황을 모 언론사에 제보했다는 이유 하나로 형법 제127조 「직무상 비밀누설죄」라는 혐의가 씌여져 구속되었다.

▲검찰은 이감사관이 「죄천」의 불만을 품고 저지른 행위라고 수사결과를 단정하였지만 제보전후의 그의 행동에서 보여지듯 구속까지 각오한 그에대한 단순한 불만의 표시로 왜곡수사하는 검찰은 설득력을 발휘할 수 없으며 그들에 숨어 있는 비리의 안개숲(?)을 우리는 예측할 수 없다.

▲현 경제난국의 주원인은 바로 제벌들의 땅투기와 같은 파렴치한 행위에서 보여지듯 가진자들의 소행이며 또한 이러한 것들을 시정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제벌과 유착하여 비리를 캐내는 공무원들의 「양심의 자유」마저 가로 막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이감사관의 양심의 「대결단」은 부도덕한 제벌에게 청천벽력 같은 충격을 주었고 또한 서민들에게 일말의 승리감을 안겨주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이감사관 혼자만의 희생만으로 그쳐서는 안된다.

가진자는 어디에서든지 그들에 대한 튼튼한 방어벽과 후비대를 구축하고 있다.

우리는 정경유착의 산 증거를 접하며 정화한 안목과 단결된 실천만이 부정이 양심을 소수가 다수를 짓밟는 이사회를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이다.

〈허행진〉

## "강철보다 강한 펜, 전국대학신문의 힘입니다"

언론해방

나날이 거세지는 정권의 탄압에도 한치 흐트러짐 없이 맞서고 있는 신문을 아십니까?

나날이 흉폭해지는 독점재벌의 막대한 자본으로도 꺾을 수없는 강철보다 강한 펜을 아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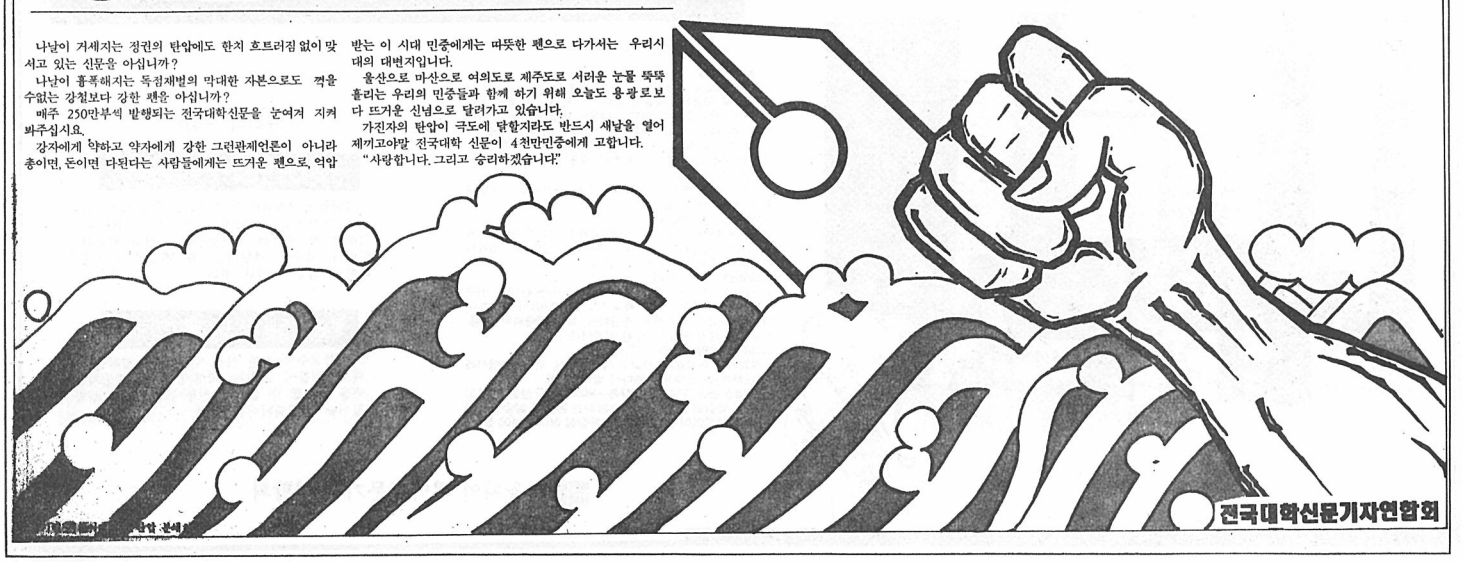
매주 250만부씩 발행되는 전국대학신문을 눈여겨 지켜봐주십시요.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그런관제언론이 아니라 총이면, 돈이면 다된다는 사람들에게는 뜨거운 펜으로, 억압받는 이 시대 민중에게는 따뜻한 펜으로 다가서는 우리시대의 대변지입니다.

울산으로 마산으로 여의도로 제주도로 서러운 눈물 뚝뚝 흘리는 우리의 민중들과 함께 하기 위해 오늘도 용광로보다 뜨거운 신념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가진자의 탄압이 극도에 달할지라도 반드시 새날을 열어제끼고야말 전국대학 신문이 4천만민중에게 고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승리하겠습니다."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회

## 사 설

# 학생운동 탄압을 규탄한다

### 연이은 탄압속에도 투쟁의 열기는 더해갈 것

한때 제도언론에 의해 「침체국면」이니 「외면」 「소외」등으로 매도되었던 학생운동이 절대 그렇지않음을 증명이라도 하듯 그 어느때보다 힘차게 전개되고 있다.

방학중과 3·4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4·19를 전후해서 또 5월9일 민자당전당대회, 그 이후 광주항쟁 계승주간, 반미주간등안 모든 민족·민주운동세력의 선두에서 민자당해체투쟁과 반미투쟁을 줄기차게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이를 저지하기 위한 정권의 학생운동 탄압책동도 거세어지고 있다. 본교생에 대한 사례만 봐도 그 탄압의 정도를 쉽게 알수 있다.

지난 4월22일 정상용(동양·일어1)군이 허위진술서에 의해 구속되었고 지난 5월13일에는 모성훈(인문·사학1)군이 화염병을 소지했었다는 이유로 신입생입영에도 불구하고 구속되었다. 또 지난 5월12일에는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사회부장 김시용(동양·아랍어4)군이 연행·구속된데 이어 김군을 면회하러 갔던 총무부장 신효식(상경·무역4)군도 지난해 교지에 실렸던 화보(일반 학생들에게도 공개된 입수경 대표의 방북 활동사진)을 빌미로 구속되었다. 이외에도 이번 학기들어 서울·용인 양캠퍼스 학생 10여명이 학교근처, 집앞 심지어 버스안에서 불법으로 연행돼 구속되었고, 출두요구서를 발부받은 학생이 수십명에 이르며, 이에 응하지 않은 대부분의 학생회간부학생이 수배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학생운동 탄압양상은 전대협 간부들에 대한 사전영장발부에서부터 전국의 거의 모든 대학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민자당의 일당독재 음모와 소수 지배층의 기득권유지라는 3당야합의 본질을 폭로하고 그들의 집권음모를 막으려는 폭발적인 학생운동의 힘에 위기감을 느낀 정권이 절대 그냥 두고를 수 없기에—계획적으로 학생운동의해 술책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치안을 정권안보로 사법을 정권수호로 행정을 정권이익으로 남용·악용하고 있음을 아는 학생들이기에 학생운동이 아무리 탄압된다한들, 의대생이 아무리 구속된다한들 학생운동과 애국의대생의 투쟁은 힘찰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선언이 모든 의대인의 「한 소리」였음을 선포하기위해 학원탄압분쇄에 조직적인 공동대응으로 맞서자.

# 꺼질 수 없는 「참교육」의 불꽃

지난 27일(일) 12시경부터 본교 서울캠퍼스의 경희대를 잇는 약2백미터의 이문동 뒷길은 「참교육 선생님」들의 발걸음으로 메워졌다. 한양대에서 열리기로 했던 「전교조 탄압 분쇄와 합법성 쟁취를 위한 창립 1주년 기념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전국각지에서 모여든 5천여명의 교사들이 당초 합법적 집회 허용에서 들연 원천봉쇄로 입장을 바꾼 정권의 봉쇄망을 피해 경희대로 모여든 것이다. 지난해 5월 28일 「민족·민주·인간화교육의 실현」을 선언하며 그 힘찬 출발의 닻을 올렸던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은 1년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암울하기만했던 우리의 교육현실에 질적·양적으로 많은 변화를 이루어내어 「참교육」에의 희망을 온 국민의 가슴속에 심어주었다. 나서지않고 조용히 있기만 하면 최소한 사회적으로 보장받은 「안정적 지위」를 누릴 교사들이 스스로 노동자임을 선언하고 조국의 민주화와 통일을 위해 조직적으로 일어섰던것은, 부도덕한 정권이 각계노동대중의 사회변혁요구를 「제육찾기」라는 단순한 이기적·경제적 요구로 매도하며 보수·혁신의 대결구도를 관철시키려는 의도를 정면으로 부정하였던 좋은 본보기였다.

지난 1년여동안 1천6백여 교사를 해직하고, 85명을 구속하였던 정권의 무자비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교조는 정식 조합원 1만4천여명, 후원교사 3만1천여명을 가지고 있는 굳건한 조직으로 자리잡았다.

온갖 억압과 예속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진정한 「인간」을 만들기 위해 일어섰던 교사들의 「참교육의 함성」은 이느새 온국민의 분연한 외침으로, 시급하고 절박한 요구로 바뀌어 갔으며, 55일간 3천리를 넘게 이어졌댄 「온나라걷기 대행진」의 열기는 반민중적인 민자당분쇄열기로 승화되고 있는 것이다.

참교육실현 두해째를 맞아 전교조는 우리 교육의 파행성과 해결되어야할 문제를 전면적으로 부각시켰던, 지난해의 성과를 그대로 계승하여 이후 그 구체적인 대안까지 제시, 실천해나가야 할것이다.

이제 우리 교육이 이 사회의 민주의 편에 설지, 반민주의 편에 설지에 대한 의문의 해답은 자명할 수밖에 없다. 「모든 것을 버릴때, 아는 용기를 가진 사람만이 승리할수 있다」는 역사의 명제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 우리는 형의 고통을 헛되이 흘려 버리지 않겠습니다

경택이형에게.

잔인한 4월도 지났건만 어여쁜 5월의 끝은 너무도 잔인하게 우리 주위를 맴돌고 있습니다.

형. 장미및 개절인 지금, 병실 구석에 누워있는 형의 모습은 왜 그렇게 처참한지요? 무슨 일에건 배시시 웃던 형의 모습은 찾아 볼수 없을 정도로 타박상과 화상을 입은채 형은 지금 중환자실에 누워 있습니다.

『전경과 경찰이 그냥 밉다』고 철없이 말하던 제게 『그들을 미워해선 안돼. 그들은 다만 하수인일 뿐이야』라고 형이 말했던 그 전경들에게 형은 불이 붙은채 구타당하고 겻밟혀서 말이에요.

형. 그러나 오늘 저는 그들이 너무 밉습니다. 보호자의 허락도 없이 오후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병원을 다섯차례나 옮겨다닌 그들, 살려준것만도 고마와 하라고 보호자에게 큰 소리치는 그들, 그리고 후식으로 막걸리를 마실 정도의 환자인 몇명의 전경과 함께 쓰는 일반병실로 옮겨 버린 병원 관계자들, 그들모두가 밉습니다.

형. 그런데 참 우습게도 막걸리를 즐기는 그 전경들은 형과 면회를 간 우리들에게 야유를 보내더군요. 어떤 경경은 대학생이 던진 화염병에 맞았다면서요.

형, 침체된 이문동 학우의 투쟁을 걱정하던 형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우리가 병실에 있는 형의 모습을 보면서 단순히 감상적으로 슬퍼하고만 있을순 없겠지요? 형의 비어있는 그 자리를 메꾸기 위해 우린 지금까지의 안일했던 우리를 깊이 반성하면서 더욱더 가열차게 투쟁해 나가야겠지요? 그래서 형이 말하던 그날이 오면 『좋은 부모 만나서 호강하면 됐지, 하라는 공부는 안하고 데모는 왜 하노, 너희들이 데모한다고 일이 해결되노』라고 말씀하시며 형의 아픔을 방새워 같이 아파하시는 형의 어머니 같은 이 땅의 가엾은 부모도 없겠고 한(恨)많은 한반도에 태어남을 힘들어하는 청년학도도 없겠고, 전경과 대학생이 서로 미워하지 않아도 되겠지요.

너무 아파서 울면서도 『선배님, 정미 왔어요. 많이 아프죠? 빨리 일어나야죠』라고 말하던 저에게 애써 웃으며 눈물글썽이는 눈으로 『왜 왔노, 토요일인데, 슬이나 마시지』라고 말하던 형이 참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형. 형이 이 글을 보게 될때쯤이면 이 글이 실린 학보는 누렇게 빛 바래 있겠지요? 그럼 우린 소주잔 기울이며 함께 이 빛 바랜 학보를 보면서 슬펐던 오늘을 곱씹어 보며 힘찬 투쟁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겠지요.

형. 자꾸만 더워지는 날씨에 너무 힘들어하거나 마음 약해지지 마세요. 형겉에는 작게는 형을 아끼는 외대 7천여 학우가, 크게는 형과 마음을 같이 하는 1백만 청년학도가 함께 하고 있으니까요.

형의 빠른 완쾌는 우리 모두의 크나큰 기쁨이 될것입니다. 고운 정(情)형에게

정미

〈서양·포어 1신정미〉

# 면수당 明水堂

정일용
〈무역학과 교수〉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최근의 현상만은 아니다. 88년 이후 급등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따른 전월세의 급격한 앙등은 서민가계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으며 실제 주택문제로 일기즉이 동반자살하는 처참한 경우까지 속출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수출부진, 경기침체, 부동산 가격 폭등 및 제반 물가의 급등 3당합당이후의 민자당에 대한 비판, 불신 그리고 민심의 이반과 보궐선거에서의 민자당의 정치적패배, 민생치안불안등 정치, 경제, 사회면 전반에 걸친 위기적 상황에 대한 인식에서 「총체적 난국」을 선언하고 여러측면에서의 대응조치를 발표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위기는 경제적 측면에서는 잘못된 경제정책의 전환에 크게 기인하였다. 즉 정부와 자본가측은 그동안 기본적으로 경제의 위기가 노동자들의 자기몫 확대 요구에 따른 임금인상 및 노사분규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한편으로는 도덕적 설득으로 요구를 자제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공권력 발동을 통해 요구를 묵살해왔던 것이다. 그러나 민자당합당과 함께 이른바 성장지향형의 이승윤 경제팀이 등장하면서 그동안 전 경제팀이 추진해왔던 금융실명제를 유보하고 기업의욕활성화를 위한 기업에 대한 금융 재정지원 정책을 강화하였던 것이다.

이에따라 물가는 급등하고 특히 금융실명제가 유보되면 주식은 올라가고 부동산가격은 하락할 것이라는 정부의 설명과는 반대로 주식가격은 하락하고 부동산가격은 상승하는 추이가 계속된 것이다.

경제개혁조치의 회석화와 유보, 그리고 경기·부양을 위한 기업지원이 절국 자본가만을 위한 것이고 민중의 생활을 압박하는 것일 뿐이라는 인식과 저항이 민중가운데 확산됨에 따라 정부는 「총체적 난국」을 선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임금상승이 억제되는 상황하에서 물가의 급격한 상승과 특히 주택비의 폭등은, 근로자의 실질소득 하락과 생존의 위협을 의미한다. 또한 이는 부동산을 과점적으로 소유하는 제벌의 불로소득취득 및 불균형을 증폭시키는 방향으로의 소득재분배를 의미한다. 또한 불로소득의 기회가 열려있고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자원의 생산적 부문으로의 이동과 생산의 효율성이 저해되기 마련이다. 위기를 정부스스로가 초래하고 증폭시켰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이러한 「총체적 난국」의 선언과 함께 5월8일 「부동산투기 억제와 물가안정을 위한 특별보완대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부동산 투기를 근본적으로 억제하고 주택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하고자 한 것으로는 평가되지 않는다. 기업의욕증시에서 노동의욕증시에로의 정책전환도, 성장지향형 정책에서 개혁지향형 정책에로의 지향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재벌 보유 비업무용부동산을 매각케 함으로서 일시적으로 토지가격 상승을 억제시키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재벌에 대한 비업무용 토지의 강제매각이 그동안 별로 효과가 없었다는 것은 80년대초 정부가 금융세제상의 지원을 전제로 비업무용 부동산처분을 강제한 경험에서 잘 들어난다. 당시 재벌기업이 구입한 부동산이 매각 처분한 부동산의 수십배에 달했던 것이다. 또한 최근의 재벌보유부동산 중 비업무용 토지비율이 은행감독원의 1.2%가 아니라 43.3%에 이른다는 감사원의 마완결보고를 신문사에 유출시킨 감사관을 공무상기밀누설죄로 전격구속기소한 검찰의 처사에서도 정부의 재벌 부동산투기조절 의지가 어떠한 것인지를 잘 알 수있다.

재벌의 부동산투기에 의한 부동산가격의 상승, 이에 따른 생산부문에서의 투자 기피와 경제침체, 기업에의 재정금융지원 희피에 따른 인플레이션 가속화등이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그토록 「기피하는」 중남미형경제에로의 길을 정부스스로 준비하는 느낌이다. 「난국」의 극복과 균형적 발전은 개혁의 유보가 아니라 그 추진에 의하여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 흡산의 소리

〈알 림〉

**「흡산의 소리」를 모읍니다.**

외대학보는 항상 여러분의 소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고매수, 2~6매 정도로 학생 회관 2층으로 언제든지 달려오십시오.

◇채택된 원고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 전교조 1주년 기념식, 최루탄속에 핀 참교육 꽃송이

지난 일요일 동문회체육대회 관계로 학교에 나왔던 나는 실로 우연치않은 일을 접하게 되었다.

담을 넘어오는 선생님들… 바로 그것이었다.

전교조 1주년 기념집회가 이날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것이 경찰의 원천봉쇄로 인해 장소를 옮겨 경희대에서 하게 된 것은 아마 그날 학교를 찾았던 학생들중 아무도 몰랐던 일일것이다.

오후 한두시경 평소와는 달리 우리학교 후문을 거쳐 경희대 후문으로 숨어(?)들어가는 일단의 사람들을 보았고, 한참 뒤에야 그 분들이 다름아닌 수년전까지 우리를 가르쳐주셨던 그 선생님들이었음을 알았다. 한데 얼마안가 경희대부근 하늘을 새까맣게 할 정도로 뒤덮은 연기와 흡사 전쟁영화의 기관총소리같은 요란한 최루탄발사음과 함께 경희대에서 쫓긴 선생님들은 코를 막고 눈물을 흘리며 미네르바동산의 담장을 넘어 급히 학생들이 놓아준 사다리를 따라 우리학교로 온 것이다.

지금까지 전교조선생님들의 집회장면은 TV에서나 보아왔지만, 막상 이렇게 우리의 선생님들이 몰래 숨어들어와 집회를 해야하고, 그나마 공권력의 폭력에 눈물을 흘리며 쫓겨야하는 모습을 접하니 이건 정말 뭔가 상당히 잘못되 있음을 느꼈다.

이젠 누구나 전교조선생님들을 일부 방송과 편파적선전을 통한 정부의 악의적 주장인 「의식화교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경험해보아서 알듯이 우리의 지금 교실은 그 얼마나 잘못된 것들이 산적해있는가. 등록금 내주는 기계, 학교의 입시율향상을 위해 모두가 개인의 소질따윈 사치로 돌려야 하는 교육제도, 그리고 교과서속에 교묘히 박힌 지배자들의 주장. 바로 이런 잘못된 교육을 바로잡겠다고 나선 분들이 이 선생님들이 아니었던가.

하지만 이 날 일요일의 내가 느낀 교훈은 이제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쫓겨다녀야만 하는가 하는 답답한 심정만은 아니었다. 다름아닌 그 와중에도 당황하지 않고 밝은 표정으로 대응하던 선생님들의 결연한 모습과, 마침내 다시 경희대집회를 지켜내신 자랑스러움, 그리고 선생님들을 따라온 그 많은 중·고생들의 열의, 마지막으로 갑작스런 일에 학내에 있었던 모든 외대인이 우리의 선생님을 지키기 위해 사다리를 놓고 사수대를 조직하던 모습, 이런 모두의 외지가 모여, 비록 지금은 원천봉쇄속의 집회지만 머지않아 전교조는 가장 큰 축하를 받으며 만들어질 정당한 조직이 되리라는 밝은 희망이 있었던 것이다.

〈법·법학3 김기원〉

## 외대인 여러분! 「공공시설」에 좀더 관심을 가집시다.

날씨가 점점 더워짐에 따라서 학교내 여러곳에서 발능게까지 지내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그런데 요즈음 세태라면 세태라할수있는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일부 학생들 사이에 팽배해 지고 있는것 같다.

밤늦게 까지 술을먹고 치우지 않은채 그대로 가버리기가 일쑤고, 심지어는 학교공공시설까지 파괴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27일 밤사이에도 이같은 일이 일어나 외대인의 자존심과 애교심을 또한번 짓밟아 버렸다.

일부 몰지각한 학생들이 전화박스와 그 내부시설 모두를 박살내버린 사건이었다. 그간 각 건물마다 전화기가 설치되어있었으나 학생들이 불편해하고 길외에도 전화기의 필요성이 인식이 되어 수차례에 걸쳐 전화국에 건정을 하여 겨우 덜 필요한 곳의 공중전화박스를 학교내로 옮겨왔던 것이었다.

처음 공중전화가 설치되었을 때 학생들이 정말 유용하게 사용하는 것을 보았을 때에는 보람을 느끼기도 했다.

그러나 그 보람감도 그러 오래가질 못했다. 일부몰지각한 학생들이 술을먹고 전화박스를 부수기가 일쑤였기 때문이다.

여러번 전화박스의 유리창을 갈아기웠으나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전화국법규를 위반하면서 박스 밑부분에 있는 유리창을 전화국과 의논해서 알루미늄 판으로 갈아기웠다.

그런데 27일밤에 발생한 사건은 최고의 지성인이라는 대학생으로서, 아니 도저히 정상적인 사람의 행위로서는 그런 행위를 저지를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심각한 만행(?)이었다.

전화수화기의 선을 모조리 뽑아놓았는가하면, 전화번호부책을 불살랐으며, 특히 수화기를 모조리 깨뜨려 부수고 불에 그을려 놓았던 것이다.

이런 파괴된 모습을 보았을 때 20여년간 외대에 근무한 직원으로써, 외대를 사랑하고 아끼는 외대인의 한사람으로써 대단히 불쾌하기까지 했다.

물론 대다수의 외대인들은 그런행동을 하지않았으리라 생각된다. 소수의 학생들이 외대의 명예를 더럽히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일을 계기로 외대인들이 좀더 공공시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아끼고 사랑했으면한다. 또한 이번 같은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 특히 밤늦게까지 교정에서 술을 마시는 학생들의 이성적인 뒷처리를 다시한번 부탁한다.

〈서울캠퍼스 총무처 관리과 직원 한종현〉

## 대동제 의미를 되새겨보자

28일부터 왕산에서 대동제가 시작된다. 매년 지적되는 문제이지만 언제부턴가 우리의 대동제는 진정 「하나됨」을 위한 모임이라기 보다는 1년에 한번 마음껏 「술마시는 날」로 자리매김 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물론 대동제자체에 대한 부정은 아니다. 그 속에서 얼마나 그 의미를 생각하고 발전적으로 보내는가 하는 문제이다.

왕산인들에게 한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다. 가벼운 마음으로 막걸리를 들기전에 15년 구형을 받은 임수경학우를 생각하고 서울캠퍼스의 이경택학우를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동학·아랍2 이준호〉

# 고대신문 제작 중지사태를 알립니다!!

〈경과보고〉

○1990년 1월 1일자
신년특집호로 편집전에 의해 16면 기획, 주간교수 2~3개면 삭제 이유는 「내용이 편향되어 있다」. 학생들 기획단계에서 전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전면삭제 불가 입장 전달. 주간교수 만일 삭제하지 않을경우 학생기자들을 해고시키겠다고 경고. 우여곡절끝에 12면 제작. 주간교수 신문이 완성된 후에도 지엽적인 내용 2가지를 문제삼아 배포금지함.
※이후 제작된 모든 신문에서 무리한 사전검열과 지면내용에 대한 간섭이 있었음.

○1990년 4월 2일자
4면 게재예정이던 기획 「사회주의권 변화의 이해를 위하여2」가 문제되어 발행중단. 주간교수 반대되는 입장의 기사를 게재할것을 끝까지 고집.

○1990년 4월 18일자
4·19 30주년 기념특집호 6면의 원고내용(4·19의 연구현황과 그 문제점, 사회학과 4·19자료집요약)이 문제되어 제작은 끝났으나 인쇄가 중단되어 결국 발행되지 못함. 이유는 두개의 글이 「비슷한 입장이다.」

○1990년 5월 5일자
개교기념 특집호, 주간교수 사설 「KBS, 현대중공업사태에 대하여」를 문제삼아 또다시 발행중단함.

◇고대신문사 기자들 이같은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고 조속한 해결을 발행당국에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나 아무런 답변없이 5월16일부터 편집실 철야농성에 돌입.

〈우리의 주장〉

**현 고대신문 주간교수는 즉각 퇴진하라**

금년들어 4번씩이나 고대신문이 발행중지된 것은 전적으로 주간교수의 독단적 판단에 근거하는 바 홍기선 주간교수는 자신의 행위가 얼마나 시대에 역행하는가를 반성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한다.

**학생기자들의 편집자율권을 보장하라**

주간교수에 의한 사전 원고검열, 발행중단, 배포금지등의 조치는 학생기자들의 편집자율권을 보장할 수 없기에 신문사의 민주적 제작질서는 확립되어야만 한다.

**서울지역 대학신문기자 연합회**

# 민족민주운동의 단일대오 결성을 위하여〈3〉

글싣는 차례


1. 국민연합의 위상과 역할
2. 〈보론〉합법정당 전술에 대하여
3. 국민연합의 조직적 과제
4. 현시기 제기되는 구체적 실천과제


## 전민련 중심으로 각 부문운동조직 함께 국민연합건설, 공동투쟁과정의 성과물 기본계급대중조직 강화로 귀결시켜야

### 1. 글을 시작하며

남한사회는 외세지배 하의 자본주의 사회이다. 그러므로 남한사회 변혁운동은 외세지배를 청산하고 매판대리정권을 타파하며 분단을 극복하는 세가지 과제, 즉 자주·민주·통일을 실현하는 실천운동이다.

이러한 자주·민주·통일의 3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계급이나 계층의 역량만으로는 불가능하고 노동자, 농민, 학생을 비롯한 변혁과제에 이해를 같이 하는 광범한 계급·계층들의 단결된 역량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바로 여기에서 남한 통일전선의 형성과 발전은 타국의 경험처럼 일시적, 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변혁의 처음부터 완성까지 일관되게 추구되어야 할 전략적 과제임이 드러난다.

그리고 위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체역량의 강화는 통일전선을 어떻게 형성·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먼저 이글에서는 남한 통일전선운동의 기본적 원칙과 방도, 그리고 지금까지 통일전선운동 경험의 성과와 한계, 또 최근에 새롭게 제기된 한시적 공동투쟁체로서 이후 전략적 통전인 범민주연합전선으로 발전할 국민연합의 조직적 과제와 전망을 살펴 보고자 한다.

### 2. 남한 통일전선운동의 기본원칙

통일전선이란 변혁과제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모든 계급·계층을 결속하고 투쟁에 광범히 조직·동원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근거하여 남한사회변혁운동에서 통일전선운동이 갖는 원칙은 다음과 같이 정리 될 수 있다.

첫째, 노동자·농민등 기층민중의 주도적 역할을 끊임없이 높이는 조건에서 하층 통전을 강화하며 이에 기초하여 상층 통전을 실현한다.

둘째, 기층민중을 주요역량으로 하고 동시에 도시소시민, 애국적 지식인, 양심적 종교인, 애국적 중소자본가등 모든 애국민주역량을 보조역량으로 배치시켜야 한다.

셋째, 변혁운동의 대상으로 되는 외세와 매판대리정권세력을 제외한 모든 역량을 단결시키도록 해야한다.

네째, 부분적인 결합에서 전면적인 결합으로, 낮은 차원의 단결에서 높은 차원의 단결로 높여 나가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 신중히 고려해야 할 점은 각 계급·계층별 주체역량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이들 상호간의 올바른 배치문제이다. 이것은 노·농 기층 대중운동이 상대적으로 미약할 경우, 실제 지니는 역량에 비해 과도한 지위나 역할을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모든 애국민주세력의 통일과 단결을 저해하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 3. 기간 통일전선운동 경험의 성과와 한계

먼저 85년 2차 통합대회를 거쳐 11개의 공개단체를 포괄하면서 명실상부한 전국적 연합조직으로 발전한 「민주·통일운동연합(이하 민통련)」은 86년 개헌투쟁에 적극 나서면서 상당한 성과를 쌓아갔다. 그러나 민통련은 성장해오는 각부문의 민중운동역량을 포괄시키면서 민족민주운동의 통일적 대오형성에는 기여하였으나 자체의 한계와 민중운동발전의 요구에 따라 89년 1월 전민련의 결성과 더불어 해소된다.

즉 87년 7·8월 노동자대투쟁이후 급격히 성장하는 민중운동역량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면서 그명칭과 달리 제야 민주화운동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87년 13대 대통령선거투쟁과정에서 그진솔을 들러싸고 운동세력이 분열을 겪게 되었을때 비판적 지지입장을 견지하지 못하고 매판군사독재의 회유책인 6·29선언에 쉽게 동요되어 투쟁을 중단하기까지 이르렀다. 그이후 이른바 단일화논쟁으로 야당정치세력이 분열되자 그위상은 기울어져가는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89년 1월, 과거 투조직을 발전적으로 해체, 그 성과를 수용하고 오류를 극복하는 민족민주운동에서의 공개정치투쟁의 구심체이며, 투쟁시업속에서 정치적 지도력을 확보하여 대체권력의 위상으로까지 발전할 통일전선의 맹아로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이하 전민련)」을 결성하게 된다.

그러나 전체 민족민주운동의 구심체로서의 역할은 공안정국의 극심한 탄압속에서, 그리고 전노협, 전대협, 전교조등 주요 기본계급대중조직을 포괄하지 못한 조직적 범위의 한계는 지난 한해의 사업을 기층대중에 기반하지 못한 정치사업위주의 편향을 낳게 하였다. 그리하여 전노협, 전대협등 기본대중조직을 포괄한 한시적 공동투쟁체로서 국민연합결성의 필요성이 제기되게 된다.

둘째, 지역조직의 활성화를 이룩하여야 한다. 이는 현시기 각지역 노·농·학을 중심으로 전국적 토대구축과 확대 그리고 향후 통전체의 지역조직으로써 발전전망을 가져야 한다.

세째, 청년학생은 그의식수준과 연대투쟁을 경험으로 현시기 국민연합의 조직구성에 있어서 실질적인 힘, 추동세력으로 작용하여야 한다.

### 4. 국민연합과 전민련 등 각대중조직과의 관계

국민연합은 이전의 글에서도 그 위상과 성격을 밝힌바 있다. 즉 민자당분쇄라는 공동목표에 의해 각계각층의 부문운동조직이 결합한 한시적 공동투쟁체로서 당면투쟁의 구심체이다. 이는 핵심적으로 현계범민주세력의 단결된 공동투쟁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으로 투쟁의 구심이 되는 것이고, 전민련은 이의 중심이 되면서도 각부문운동조직들과 같이 국민연합을 건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전민련은 자주·민주·통일의 강령적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민족민주운동의 연합체로서 국민연합과 같이 범민주연합전선조직에서 정치적, 조직적 중심으로 작용해야 할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아직 국민연합이 전민련을 대신할 수 없고 전민련이 국민연합을 대체할 수도 없다. 이는 향후 투쟁과정에서 전민련은 지금의 전민련이 아닌 통일된 범민주연합전선으로 발전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다음은 기본계급대중조직과 국민연합의 관계로서 지난한 투쟁의 과정속에서 성장한 노동자계급을 비롯한 기본계급대중은 서서히 역사의 전면에 주력군으로서 자기지위를 차지해가고 있으나 아직은 자주·민주·통일의 강령에 대해 높은 수준의 이해와 투쟁을 전개하고 있지는 못하다. 구체적으로 현시기 전노협은 임금인상 투쟁과 노동운동탄압분쇄투쟁을 중심으로 하고 반민자당투쟁으로의 본격적 전술은 되고있지 못하다. 전농 또한 당면의 생존권투쟁에서조차 제대로 대응할 수 없을 정도로 조직적준비가 취약한 편이다. 유사하게 전민련 역시 철거투쟁과 노점상제자리찾기투쟁에만 한정되어 불가,주택문제의 전국민적 확산조차도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지 못하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합은 각부문운동의 자주적 요구에 기초하여 공동연대의식을 고취시키고 연대투쟁의 성과물을 다시 기본계급대중조직의 조직적 강화를 중심으로 귀결시켜야 한다. 이런 발전경로속에서 기본계급대중조직은 국민연합속에서 향후 통전체의 가장 튼튼한 대중적토대로서, 변혁운동의 주력군으로서 자기지위를 차지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또하나, 합법정당 정치전술의 지위와 역할에 관한 문제인데 외세지배하의 파쇼통치가 청산되지 않은 남한사회에서 선거투쟁을 통한 변혁의 완수는 불가능하며, 따라서 선거투쟁도 현시기 민자당분쇄와 민중기본권 쟁취를 위한 국민연합주도의 대중투쟁이존속되 어야 할 것이다.

### 5. 범민주연합전선으로의 발전경로

위의 내용에 기초해볼때 국민연합이 이후 범민주연합 전선으로 발전할 경로는 다음과 같이 간략히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전민련을 정치적 지도의 중심으로 하고 각계급·계층의 모든 부문운동조직이 민자당분쇄라는 공동의 투쟁시안을 전면에 내걸고 결합하여야 한다.

둘째, 지역조직의 활성화를 이룩하여야 한다. 이는 현시기 각지역 노·농·학을 중심으로 전국적 토대구축과 확대 그리고 향후 통전체의 지역조직으로써 발전전망을 가져야 한다.

세째, 청년학생은 그의식수준과 연대투쟁을 경험으로 현시기 국민연합의 조직구성에 있어서 실질적인 힘, 추동세력으로 작용하여야 한다.

〈학습부〉

# 역사기행

## 세번째/구로구청

눈과 얼음으로 뒤덮힌 87년 12월 겨울은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민중의 힘으로 획득한 6·29선언을 선거혁명으로 결실을 보자」는 민주화열망의 열기가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얼마 전에 있었던 KAL기 폭파 사건으로 다소 동요되기도 했으나, 시골에서는 경운기 뒷칸에 몸을 맡기고 투표를 하기 위해 30리 길을 마다 않고 투표장으로 향하는 농부들이 있는가하면, 달콤한 신혼여행의 꿈 마저 연기하면서 다정하게 투표장으로 발길을 옮기는 커플들의 모습이 보이는 등 모두들 민주화 다음에 오게 될 새시대의 새희망에 부풀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꿈들은 얼음장 같은 현실에 부딪혀 이내 검은 연기와도 같이 사라져 버렸다. 대통령선거가 이미 만들어 놓은 연극중의 일부로 처음부터 준비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한 가운데 이틀 입증할 만한 사건들이 터져 나오고 있었다. 그중의 하나가 바로 많은 회생자들이 속출하였고, 「구타당하며 잡혀가는 아들을 항해 피 맺힌 절규를 하며 달려가는 어머니를 전경들이 방패로 가로막는 장면」으로 88년도 「폴리처상」시진부문에 오른바 있는 그 유명한 구로항쟁사건이다.

『아니,/ 투표함이 벌써 나가?』『이거 부정투표함 아니야?』

대통령선거가 있었던 1987년 12월16일의 일이었다. 선거법상 투표함은 투표마감이후에 호송하기로 되어 있으나, 정체불분명한 차량들에 의해 투표함들이 하나둘 씩 구청 밖으로 빠져 나가고 있었다. 이는 13대 대통령부정선거의 대표적에인 구로구청의 당시 상황을 잘 보여주고있다.

대통령 선거일 이었던 16일 오전 11시 20분경, 주위에 M-16을 든 경찰의 호위들을 받으며 1톤 봉고 트럭이 구로구청을 벗어나고 있었다. 평민당원이었던 한 청년이 길을 가로막으며 『혹시 부정선거 관련된 것이 아니냐』며 트럭화물칸 확인을 요청했다. 안에는 빵과 과자류가 잔뜩 쌓여 있었다. 빵이 담긴 박스를 옆으로 제치자 푸른 색 투표함이 드러났다. 투표함 앞면에는 「부재자(不在者) 투표함」이라 적혀 있었고 자물쇠에는 안인구(당시 구청직원)라는 같은 도장만 3개 찍혀 있었다.

청년은 시민들은 항해 『부정투표함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소리쳤고 투표하러온 시민들이 삽시간에 차량 주위로 모여 들었다. 그사이 경찰과 운전수는 잽싸게 도주해 버렸다. 시민들은 「투표함이 투표가 끝나기 전에 아무런 입회인 없이 밖으로 반출 되었다는 점과 호송차가 빵과 과자로 위장되었던 점」으로 미루어 부정투표함이 틀림없음을 알게했다.

시민들은 「선거무효, 독재타도!」라는 구호를 외치며 구청구내와 주변에서 시위를 벌었다. 다음날 소식을 듣고 찾아온 시민·학생들은 17일 하루동안 부정선거사례를 폭로하며 「우리의 소원은 통일」, 「선구자」등의 노래를 부르며 대중집회를 가졌다.

지녁 8시경, 가리봉동 시장일에서 연탄 장사를 하던 허기수씨가 투신자살을 기도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허씨는 『내가 죽어서라도 부정선거는 없어져야한다.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하면 어떻게 살겠는가.』라고 외치며 몸에 석유를 끼얹고 손에 쥐고 있던 민정당 당원용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는 것이다.

이로써 시민들의 열기는 한층 고조되었다. 이에 전경들이 최루탄을 난사하는 가운데 바리케이트를 중심으로 점점이 벌어졌다. 또한 경찰병력이 계속 증원 되는 가운데 시민들의 농성은 더욱 거세어 갔다.

18일 새벽 6시35분 이때 부터 전경들의 전면적인 공격이 개시되었다. 각목으로 시민들을 구타하고 지하실에 가두어 폭행하는 등 진압은 거세어 갔다. 그런 가운데 사상자들이 속출하고 경찰은 시민들을 마치 전쟁포로처럼 끌고 연행하였다. 이로써 항쟁사의 또하나의 비극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어머니를 경찰이 제지하고 있다 스구로구청대에서 농성중인 아들을 찾아온

## 구로구청, 독재정권의 부정선거 은폐위해 유례 없는 인권탄압 자행된 역사의 비운지

그러나 지난날의 그러한 흔적은 사라지고 주위에는 검은 매연과 함께 구로공단 검은 연기가 뒤섞여 가슴을 답답하게만 할뿐이다. 비록 아직및 민주세력의 분열, 컴퓨터 조작의 부정선거로 인해 독재정권의 재집권으로 끝났지만 불의에 저항했던 민중항쟁사의 하나로 남는 구로항쟁…

지금은 따뜻한 햇살아래 꽤 꼿이 정리된 화단을 구석으로 한 구청앞에는 과거의 빼아픈 상처를 문은채 민원을 위해 오고 가는 시민들의 모습과 닫겨 공무수행에만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직원들의 무표정한 모습들이 보일 뿐이다.

〈김영식 기자〉


사람을 소중히, 꿈을 소중히
꿈을 실현하는 젊은이들

# 가슴 가득 젊음안고, 배낭 가득 꿈을 담고…

배낭 여행가 변필중
●81년 동국대 졸업
●86년 10월부터 28세 세계 여행

「정신의 편력은 경험의 편력과 맞먹는다.
여행의 양이 곧 인생의 양이다.」
굳이 이런 격언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여행은 누구나 가장 해보고 싶어하는 것중의 하나로 꼽는다.
배낭 하나로 세계를 주유한 변대중씨(28세)—
그는 20일간의 국내무전여행경험이 계기가 되어 학업도 중단하고 해외여행을 떠났을 정도의 여행광이다.
"생활이 인생의 산문이라면 여행은 인생의 시입니다. 여행은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능을 만족시켜 주지요."
그는 여행을 좋아하는 몇몇 젊은이들과 함께 자신들의 해외여행경험과 정보를 제공하고서 아예 배낭여행 전문의 여행사를 차렸다.
"배낭여행은 비용도 절감되지만 그 나라의 문화 등 참된 진수를 배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행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이에따라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요령입니다."
그가 수많은 해외여행을 하면서 느낀점은 이제 우리의 젊은이들도 세계를 누비면서 국제적 안목을 키워야겠다는 것이다.
"이제 해외여행은 나이상 사치가 아닙니다. 특히 젊은시절 외국에서 보고 듣고 배운것은 그대로 국력이 됩니다. 다른 나라를 보면 볼수록 자기나라를 더욱 사랑하게 되니까요."

꿈을 향해 의지를 불태우는 젊은 이야기를 찾습니다.
내용을 간략히 적어 보내주십시오. 채택된 이야기는 대학지상고료 소개하고 소정의 고료를 드리겠습니다.
■ 보내실곳 :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우체국 사서함 47호
「人材第一」편집위원회/TEL. 730-9711

인재와 첨단기술의
三星

# 「통석의 념」에 가려진 방일의 본질

엄 창 준
〈대학원 국제관계학과 박사과정〉

『21세기의 아시아·태평양 시대를 함께 이끌어 갈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 우호협력기반을 다지기 위하여』라는 제나 추상적인 목적과 제일동포 및 원폭피해자 등 「과거사」와 연관된 문제들, 그리고 무역역조시정 및 기술이전 등 몇가지의 실리추구적 목적을 가진 노태우 대통령의 방일이 끝났다.

그러나 정부측의 이러한 방일명분에 대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일본에 간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본질적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스스로 규정한 총체적 난국의 국면속에서 또한 케나다, 멕시코, 미국 등의 순방계획을 취소하면서도 여태서 일본만은 유독 가야 했는가라는 의문이다. 두차례나 연기된 방문이기에 다시 연기시킬 수가 없다는 외교의례적 설명은 연기가 일본측의 사정에서 기인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동시에 민자당 출범이후 고양된 광범위한 반대운동으로 빚어진 위기상황을 민족적 감정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방일가드를 사용했다는 설명을 덧붙여 보아도 여전히 석연치 않은 구석이 남는다. 대개 3박4일은 잡게되는 일정을 하루 줄여잡은 것과 비판적 여론을 무릅쓴 방일이었다는 점에서 무엇인가 본질적이고도 시급한 현안이나 목표가 있어야 하는데, 그 성과가 별무상통이기 때문이다.

### 무엇때문에 갔는가

이제 진정한 방일목적에 대한 추론적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방일전에 국내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었는가를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다. 국내의 관심은 실질적 논의사항이나 과제에 대한 것이었다기보다는, 오히려 방일을 민족적 감정의 차원으로 전락시키는데 맞추어져 있었다. 처음에는 제일동포문제로, 다시 그것이 일단락되자, 이번에는 「갑자기」 부상된 일왕의 식민통치에 대한 사과문제로 초점이 두어진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쩌면 고도의 언론플레이였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위기에 빠진 정부가 그 타개책으로서 종종 반일감정을 이용하여 왔다는 과거로부터의 경험에서만이 아니라, 제일동포문제와 일왕사과문제의 시말을 추적해 볼 때 그러한 느낌이 역력하다는 것이다.

▲「통석의 념」이라는 모호한 말로 과거사인 통치에 대한 죄과를 무마할 수는 없다.

언론을 한동안 장식하면서 민족감정을 촉발시킨 이 두가지 쟁점은 그 전개과정이 매우 유사하였다. 즉, 처음의 문제제기와 설왕설래→교착상태→외교적 협박→다시 설왕설래→어차구니없는 후퇴라는 과정을 뜀같이 밟아온 것이다. 먼저 시기적으로 앞선 제일동포문제를 보자. 당초 민단에서는 정부측에 협상의제로써 9개항을 건의하였다. 그것들은 ①간첩된 법적지위의 부여 ②강제퇴거의 폐지 ③제일국허가제의 폐지 ④지문날인의 폐지 ⑤의 국인등록증의 상시휴대의무 폐지 ⑥취업시 국적조항의 폐지 ⑦민족교육의 보장 ⑧지방자치 참정권의 부여 ⑨장제거주자의 구제등이었다. 이를 다시 내용적으로 구분하여 보면, ②③④⑤는, 이른바 「4대 악제도」로써, 인권차원과 결부된 소극적 의미의 지위개선이고, 나머지는 생활권차원의 적극적 지위개선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제일동포문제가 방일의 정치적 성패를 가늠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민단의 주장을 전폭수용, 9개항을 일괄타결하여 협정의 개정이 아닌 포괄적인 신협정을 체결한다는 자세를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강경한 태도는 곧 일본측의 저항에 부딪히게 되어, 일련의 회의들은 트론주제조차 정하지도 못한 채 교착상태에 빠졌다. 교착에 대한 타개책 방법은 엉뚱하게도 제일동포의 지위개선을 대통령의 방일과 연계시킨 것이었다. 이 무렵부터 제일동포문제는 언론의 초점이 되었다. 역대정권의 기만정책과는 달리, 제일동포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일찌감치 후퇴, 4대 악제도의 개선만을 「우선협상사안」으로 설정하여, 지난 4월30일 양국외무장관 회담에서 일본측의 일정한 「양보」를 얻어내는데 그쳤다. 민족교육이나 참정권 문제는 이에 처음부터 논의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일동포들의 「우선관심사안」이 지문날인제 폐지를 포함하여 적극적 의미의 지위개선에 두어졌음을 생각해 볼 때, 이번 협상의 「성과」가 얼마나 본질에서 벗어나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사실 소극적 의미의 쟁점들은 굳이 협상이 없었어도 결국 해결될 성격의 것들이었다.

한편 언론에서는 이른바 「91년문제」라고하여, 「재일한국인」 3세이하의 법적지위협상이 마치 내년 1월16일까지끝내지 않으면 안되는 급박한 협상인 것처럼 보도하였다. 이는 65년의 국교정상화의 부속협정인 「재일한국인 법적지위협정」에 근거한 것으로, 한국국적의 재일동포들에게만 보다 유리한 협정영주권을 주고, 그 3세이하의 자손에 대해서는 협정발효후 25년내에 다시 협의한다는 것으로, 북한국적의 「재일조선인」은 배제한 것이었다. 그러나 협정영주 3세는 이미 88년부터 태어났으므로 실제로 91년의 문제가 아니며, 91년 1월이 이 문제에 관한 협상시한을 가리키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실사 협상이 깨어진다고 해도 정주성이 보다 강한 3세가 1·2세보다 불리한 일반영주로 된다는 것은 논리모순이며, 무엇보다도 제일동포문제가 그 땅에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협상시한에도 불구하고 협상이 계속되어야 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91년 1월16일은 상징적 의미를 가질 뿐이다. 따라서 굳이 방일의 연계조건으로까지 확대시켜 쟁점화해야 할 이유도 없었던 것이다.

더욱 이해하기 힘든 태도는 일왕의 사죄를 갈자기, 그것도 강경하게 요구하다가 슬그머니 후퇴한 것이다. 합당한 사과가 없을 때에는 일왕의 방한 초청을 유보하겠다는 막판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통석의 념」을 전지한 사과로 받아들이면서, 덧붙여 다시는 사과문제를 외교쟁점화하지 않겠다는 약속까지 한 것이다. 특사들이 분주히 오고가고, 사과의 주체와 객체, 주어와 서술어 논쟁, 망언과동이 한편의 TV드라마처럼 어지럽증으로 남았다. 거기에다가 심심치않게 터져나오는 때맞춘 폭로들, 예를 들면 지하대본영 건설 당시의 이야기들, 밤공사후 시멘트에 갇혀 버린 조선인들, 광산에서 숨진 징용자 34명의 명단공개, 귀국선이 출발은 했는데 도착은 하지 않았다는 미스테리같은 이야기까지 민족감정을 건드리는 호재들이 첩첩산중처럼 나타났다. 그러는 과정에서 결국은 「심심한 유감」 또는 「몹시 애석해함」이란 말을 「삐져리게 뉘우치는 마음」으로 이해하는 웃지못할 일로 마무리되었다. 그동안 불붙기 시작한 반일감정은 한 학일애국자 후손의 자해사건으로 절정을 이루었다.

이 두가지 쟁점의 예민한 전개와 성과없는 결말이라는 과정을 볼 때 공통되는 성격은 방일의 본질을 은폐하고, 한·일 양국 국민을 본질에서 소외시켜 저차원적 민족감정의 문제로 비화시켜 정권안보의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제일동포문제나 일왕의 사과문제는 처음부터 양국간에 짜놓은 시나리오일 가능성이 큰 것이다.

그렇다면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방일의 진짜 이유를 추론하는데 있어서 고리가 되는 것은 앞에서의 전개과정에서 볼 때, 외교적 위협단계에서 어차구니없이 후퇴하는 단계로 전화되는 지점이다. 외교적 위협단계에서의 주요 목표는 민족주의적 지지를 동원하는데 있었고, 후퇴 단계의 주요 목표는 공동이익의 발견에 놓여져야 하기 때문이다. 무엇이 그러한 후퇴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가게하는 압력이 되었는가. 또한 일본으로서는 무엇때문에 그러한 홍역을 치루고서라도 방일을 성사시키려는 것일까? 거기에 진짜 이유가 숨어있을 것이다. 또 하나의 고리는 「아시아·태평양 시대의 미래지향적 협력관계」의 함축성에 대한 생각들이 될 수 있다. 이 두개의 고리는 상호연결되어 있다. 왜냐하면 배치되는 민족감정을 초월하는 협력관계의 필요성은 양국의 범위를 뛰어넘는 것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아직은 기본적으로 추측의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한·일간의 정치·군사협력의 가능성이 점점 그 개연성을 더해가고 있다. 국내적 군비삭감요구와 소련의 신사고에서 유발된 세계군축무드에 대응해야 하는 미국의 동북아적 선택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것 보다 많은 군사비 지출을 요구하고 있다. 동시에 미국은 지상군의 철수를 해군력의 보강으로 메꾸기 위해 태평양상의 군사훈련을 강화하고, 한국과 일본을 깊이 참여시키고 있다. 일본은 이미 세계3위의 군사비 지출국가이며 전수방위의 개념을 제거한지 오래이다. 만약 이번 대통령의 방일이 이러한 방향의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로 이끌어진다면, 그것은 경제적 중속과 아울러 정치적·군사적으로도 일본의 영향력하에 놓이게 됨을 의미하게 된다.

## 민족감정 유발로 정권위기 타계음모

### 민족문제·참정권문제등 논의조차 안돼

외신분석

# 동독 자본주의 침투와 통화 통합 배경

동유럽개혁에 이은 독일통일 문제에 대한 관심은 날로 증폭되고 있다. 현재 유럽정치질서 변화의 핵으로 규정될 수 있는 이 문제는 단순히 국제문제의 하나로써 해명되야한다는 것을 넘어서 같은 분단국가로써의 처지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더 우리의 관심사항이다. 이러한 관심사항 중 통독의 사회체제전환문제는 가장 궁금한 것이 아닐 수 없다. 벌써 몇몇 사람들은 통독의 예를 분단국가통일의 일반과정으로 등식화시켜놓고 이것을 한국 통일정책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독일과 한반도의 사정을 구분하지 못하는데서 나온 결론이다. 즉, 분단의 역사만 보아도 독일은 패전국관리의 입장에서 취해진 국제적 분할이었으나 한반도는 오랜 식민통치에서 벗어나 자주독립국가를 추구해 가는 과정에서 강대국냉전체제에 의 성립으로 희생된 경우이다. 또한, 서독과 남한, 동독과 북한의 사회체제 성립과정은 상이하며 이에따라 그 모순의 극복과정 역시 다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분단체제극복모델로써 독일을 한국과 동일시하려는 시도는 실득력을 결여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한반도와 독일의 통일프로세스를 비교, 검토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그러한 논의는 뒤로 미루고 우선 경제통합을 중심으로한 독일통일프로세스의 성격과 내용을 분석하기로 한다.

지난 5월18일 양독정부가 체결한 통화협정의 정식명칭은 「양독간의 통화동맹 경제사회공동체 창설에 관한 조약」이다. 양독은 이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경제, 정치, 사회분야중 가장 중요한 경제기둥을 세운 것이다. 오는 7월2일자로 시행에 들어갈 이 조약은 통화동맹, 경제동맹, 「사회보장동맹의 세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동독 국유재산의 사유화등 미해결된 세가지 문제는 부속문서로 처리, 나중의 정치적결정에 맡기도록 하고 있다. 조약이 규정하고 있는 3개 동맹에 따라 동·서독 통화가 서독마르크화로 단일화됨은 물론 서독의 중앙은행인 분데스뱅크가 양독의 통화정책에 대해 전권을 가지게 된다. 또 동독은 사유재산제와 경쟁및 자유로운 가격결정에 토대를 둔 서독과 같은 사회적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한다. 이와함께 동독은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과 경영참가를 허용하며 서독과 같은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한다. 이밖에 동독의 사회주의적 사회·국가질서에 관한 법률이 이 조약의 규정에 배치될 경우 그 법률은 폐기토록 한다. 요컨데 이 조약은 「동독의 경제주권 포기및·국가소멸을 통한 서독으로의 합병」을 목표로 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도산에 처한 형제회사 동독을 우량기업 서독이 합병하는 프로세스이다. 이에따라 동독총선거 때 를 총리가 내걸었던 1:1양독 마르크의 교환비율은 동독의 매수가격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이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양독은 서독헌법 23조(동독의 독일연방에로의 귀속방식)에 의한 일련의 정치적 절차만을 남겨놓고 있다. 이것은 동독의 5개주부활, 주의회겸의를 통한 독일연방 (서독)가입의 과정이다. 그러나, 서독의 콜총리에 있어서도 경제통합은 단순한 절차만이 아니다. 서독은 동독을 매수함과 동시에 통일비용일체와 동독의 누적채무를 떠맡게된다. 동독정부는 91년말까지 예산적자가 1천2백억마르크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이것은 언젠가 서독의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다. 이 액수는 서독국가예산의 40%에 해당한다. 서독은 이에 대한 재원확보로 연방정부와 서독내 11개주가 1천1백50억마르크(7백억달러)의 통일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비용은 전체 통일비용의 일부분에 불과하다. 독일판 마샬플랜이라 부를 수 있는 통일비용의 총계는 자그마치 2조~2조7천억마르크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데 동독은 통화통합 첫해에만 이중 10%가 당장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콜총리는 『이같은 재원염출을 구실로 증세는 하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있으나 경제전문가들의 견해는 증세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서독국민들의 우려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콜이 이끄는 기민련(CDU)이 서독2개주 의회선거에서 사민당에 패함으로써 올 12월 예정된 서독총선에서 콜의 제집권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이러한 서독국민들의 불안상태 뿐만아니라 통화통합을 맞는 동독의 사정 역시 심각하다. 동독정부는 통화동맹이 발족되면 동독기업의 14%가 곧바로 도산하며 54%가 적자경영에 빠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동독은 실업자수도 1년이내에 65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동독각지에서 벌어지는 노동자들의 트랙터시위는 동독내의 이러한 사정을 잘 반영하고 있다. 임금보장, 사회보장조치의 향상을 요구하고있는 이들의 시위는 경제통합과정의 주요한 변수가 될 수 있으며 이는 동독경제의 자본주의화로 가는 길목에서 장애가 될 소지가 크다. 이번 조약을 다음달 중 양독국회에서 통과되야 7월2일부터 실시될 수 있다. 현재로선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이나 동독국민들의 의사반영을 중시하는 양독사민당과 동독노동자들의 파업시위등을 고려해 약간의 소경은 불가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8천만의 거대독일이 중부유럽경제권의 장자로 등장할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일 것이다.

## 통화동맹 발족시 실업자 증가 불가피

### 노동자들의 파업시위, 경제통합의 장애될 터

원 성 묵
〈한겨레사회연구소 국제분과 연구회원〉

미네르바

▲70년대 새마을운동이 한창이던 시절 「충효·경로사상 고취하자」는 나팔소리 또한 심심치 않았다. 그때문인지 각동네에 경로당이 한둘쯤은 생기게 되었는데 어느 경로당앞에 「연소자출입금지(단, 60세이하)」라는 표지가 붙었더란다. 그런데 어느 60세의 노인이 그걸 못보고 그냥 들어갔더래지 뭐야. 결국 「눈도 없나, 어린녀석이 벌써 들어왔느냐」는 등의 온갖 욕설을 다퍼고 쫓겨나게 되었단다. 쫓겨난 이 노인은 기가막혔지. 정년퇴직을 한지도 거의 10년이 다되어가고 장가간 손자까지 있는 사람에게 「어린녀석」이라니….

▲하는 수없이 집으로 돌아와서 T·V를 켜보니 마침 「전국의 모든 정치범을 석방한다」는 뉴스를 하고 있었어. 친척중에 시국사범으로 잡혀간 조카가 있어 잘됐구나 싶어 그 집에 얼른 전화를 했지. 그런데 이게 웬일이야. 그 아이는 시국사범이라 안된다잖아. 「단, 시국사범은 제외」라는 단서가 붙었다나, 다시 한번 기가 막혔지. 늙그막에 세상이 자꾸자기를 속인다는 생각이들었어. 이후 몇번을 더 속고 나니 도무지 세상을 믿을 수가 없어야지. 그 후로는 이 노인에게 묘한 버릇이 생겼단다. 모든 말뒤에 단서를 붙여 이해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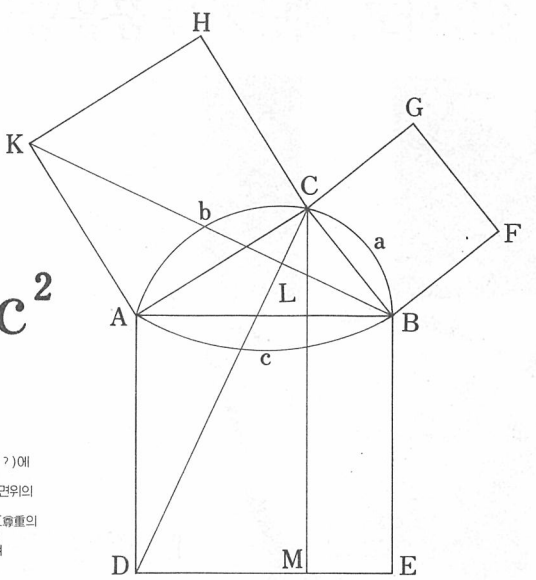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날, TV에서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런말을 하더군. 「이제 누구든지 북한방문이 자유롭게 되었고, 물건교환도 가능하다」고 말이야. 이말을 듣고 이번만은 단서없이 이해하기로 했어. 일국의 대통령이 한 말이고 또 너무당연한 말이었거든. 그런데 얼마후 한 대학생 처녀가 북한에 다녀왔는데 그후에 경찰에 붙들려 온갖 고생을 다 한다는 소식을 들었지. 노인은 마지막 기대마저 허물어지는 듯 했어. 역시 「단, 진정성으로 통일을 원하는 사람은 제외」라는 단서는 붙었어야 했다고 생각했지. 역시 이 나라에서 단서붙이기는 필연적이라고 느껴졌지든. 하지만 이제 그 지긋지긋한 단서붙이기를 그만두게 해야한단다는 생각이 들었지. 그래야만 우리사회의 진정한 발전이 있을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

〈엽〉

단서붙이기

우리의 現代 세계의 現代

HYUNDAI




$a^2+b^2=c^2$

■ 피타고라스의 定理
고대 그리스의 피타고라스(Pythagoras, BC 582? ~497?)에 의해 처음으로 증명된 수학의 定理로 (직각삼각형의 직각을 포함하는 두변위의 정사각형의 넓이의 합은 빗변위의 정사각형의 넓이와 같다)는 것이다.
피타고라스와 그의 제자들이 創意와 理解 그리고 相互尊重의 精神으로 이룩한 피타고라스의 定理는 수학의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으며 후일 플라톤, 유클리드를 거쳐 현대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學問의 根源은
個性과 創意와 理解, 그리고
相互尊重의 精神입니다.

歲月이 흘러도, 世代가 變해도 學問에 대한 眞理는 變하지 않습니다.

스스로의 個性과 創意性을 기르는 것이 學問探究의 基本이며 거기에 相互, 個性의 尊重과 理解의 姿勢를 더할때 學問은 더욱 成熟하게 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는 이 넓은 社會를 보다 밝고 즐겁게 만들기 위해 모두의 힘과 創意力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現代

# 자주적 입장에서 본 페레스트로이카 (상)

고르바초프의 등장으로 시작한 페레스트로이카를 둘러싼 남한내에서의 많은 이론적 논쟁은 아직도 내부적으로 정리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본보에서는 이론적 영역이 아닌 구체적 현실에 기초하여 개혁이 파급되는 것에 대해 실천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먼저 소련의 개혁이 제3세계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고 다음호에서는 한반도와 연관속에서 고찰해보는 글이 게재된다.

〈편집자〉

이 병 승
〈대학원 국제관계학과 박사과정〉

## I. 들어가는 말

우리가 세계의 정세나 역사적 사태를 연구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사실만 보고자 함이 아니다. 각국의 사례는 그나라 인민대중의 피와 고통과 승리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 교훈을 우리의 현실에 적용시켜 우리의 근로인민대중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하는 목적을 가진다. 이런 관점에서 현재 진행되는 사회주의권의 변화도 평가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자주적 입장 없이 소련인보다 소련의 입장을 더 변호한다거나, 제국주의자들의 논리를 수용하는 등의 오류를 범했다. 본 고찰에서는 자주적인 입장에서 「페레스트로이카와 제3세계」, 다음 호에는 「남한사회와의 연관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개혁의 논리는 지면 관계상 생략하고, 이것이 제3세계에 이런 영향을 미치는가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 II. 신사고는 현대세계를 어떻게 보는가

새로운 사고는 말 그대로 기존의 이론에서 대폭 탈피한 혁명적인 것이다. 이것은 「과학기술혁명(STR)」, 「상호의존과 통일성의 테제」, 「평화공존」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과학기술혁명을 살펴보자. 과학기술혁명은 현대자본주의의 독점구조를 변화시켜 급속한 기업합병을 추진시켰으며 생산의 국제화를 가속화시켰다. 또 과학기술혁명은 국가독점자본주의하에서 국가의 독점자본에 대한 종속을 변화시켜 경제생활에서 국가의 개입을 제한했고, 이 경제구조 속에서 진행된 노동자집단의 이질화와 분절화는 이들의 혁명의식을 변화시켰다. 이런 과학기술혁명의 작용은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을 저지시키고, 발전의 동력이 되었다.

둘째, 시시코프나 프리마코프 등은 이런 과학기술혁명의 결과, 세계의 상호의존과 통일성이 크게 증가했다고 본다. 사회적 생산력의 거대한 성장과 그에 따른 생산의 국제화의 발전은 어느 한나라도 고립해 존재할 수 없다는 상호의존관계를 형성시켰다. 그래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는 점차 체제의 차이점이 감소하여 수렴의 경향으로 가고 있다.

세째, 세계경제의 상호의존성과 통일은 정치, 군사적 측면의 상호의존도도 가속화시켜 양 체제간의 적대적 대립을 해소시키고 있다. 이미 군사적 체제의 질적혁신은 군비의 양적 경쟁을 무의미하게 했고 무력행사의 의미를 축소시켰다. 특히 이 단계에서 노동자 계급은 자신의 배타적 계급이익보다는 전세계 인류의 문제를 우선시해야 한다. 인류문명 전체의 위기를 해결하는 것은 노동자 계급의 독자적 이익에 앞선 사회발전의 이익이며 노동자 계급의 이익실현도 사회발전이익과 분리될 수 없다.

## III. 이 논리는 제3세계에도 적용가능한가

신사고의 논리는 매우 논리적이며 타당하다. 그러나 이것은 강대국의 논리이다. 러시아 혁명의 역사적 의미는 매우 크지만, 후진자본주의에서 발전한 러시아혁명과 식민지, 반식민지 상태에서 민족해방을 성취한 제3세계 사회주의국가들과는 분명히 차이점이 존재한다. 더구나 현재 반제민족해방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국가들에는 이런 논리가 무차별하게 적용될 수 없다. 지금부터 위에서 언급한 3가지 요인을 분석해보자.

첫째, 제국주의 국가의 과학기술혁명과 제3세계국가의 과학기술혁명은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소련이 높이 평가하는 신흥공업국가(NICs)들의 과학기술혁명은 제국주의국가들 처럼 자체의 동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국주의의 국가들의 세계분업질서 속에서 이식된 것이다. 그래서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은 그 한계를 드러냈고, 비교적 성공했다고 보는 한국과 대만의 경우도 발전할수록 기술종속의 심화를 초래하는 딜레마에 빠져있다. 하물며 아프리카나 라틴아메리카, 아시아 후진국가들에서 과학기술혁명이 소련의 주장처럼 긍정적이기에는 너무 거리가 멀다.

둘째, 상호의존과 통일성의 테제도 유럽공동체(EC)의 경우 처럼 서구자본주의국이나 소련에 한해서는 일정 정도 타당하다. 그러나 제3세계에서도 상호의존이라는 개념이 통용될지 의문이다. 오히려 상호의존의 개념은 부르조아학자들에 의해 종속의 개념을 반대하는데 사용되어 왔다. 세상에는 고정불변하는 것이 없는 것처럼 자본주의도 역사적 변천을 해왔다. 그렇지만 아무리 달라졌다고 해도 자본주의는 에나 지금이나 자본주의이며 소련이 신사고의 측면에서 보는 다국적기업의 자본도 제3세계 근로대중을 착취하고 약탈하는 본성은 변함이 없다. 제국주의국가가 자국민에게 사회보장을 실시하고 노동자계급의 혁명의식을 마비시켰던 것도 제3세계 근로대중의 희생위에서만 가능했다. 이런 역사적 차별성을 무시하고 고르바초프의 주장처럼 신식민지적 착취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계급적 대립이 아니라 조정에 의해 제3세계와 제국주의국가간에 「공정한 관계」를 맺을 해결방식이 존재하겠는가. 이는 어불성설에 다름 아니다.

세째, 평화공존의 개념도 후르시쵸프나 브레즈네프 시기의 미·소데탕트, 제3세계에서 대결이라는 이원적 차원이 아니라 무차별하게 사용되고 있다. 후르시쵸프 시기의 평화공존은 사회주의의 우월성에 근거하여 자본주의를 공격하는 전술적 개념이었다. 그러나 신사고에 의한 평화공존은 전략적 개념이다. 제국주의의 독점자본가운데서도 전인류적 가치에 동의할 수 있는 분파가 현실적으로 존재함을 인정해야만 국가간, 체제간의 관계를 계급투쟁 혹은 이념투쟁의 분야로 제한하려는 전술적 평화공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르바쵸프는 착각하고 있다. 제국주의국가의 독점자본가에게 자유란 식민지 근로대중을 착취할 수 있는 자유를, 막대한 자본으로 제3세계 근로대중의 양식과 존엄까지도 살수 있는 무제한의 자유라는 점을./

더 나아가서 제3세계 근로대중은 평화의 시기를 맞이하여 전인류적 가치를 생각해서, 아니 경합하기 말하자면 소련의 이익을 위해서 반제투쟁과 계급투쟁을 포기하라는 소리인가. 물론 노동자도 인류전보와 평화를 어떤 자본가보다도 절실히 생각한다. 그러나 제3세계 노동자가 생각하는 인류전보는 당면한 제국주의의 착취체제를 타도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 IV. 신사고는 어떻게 제3세계에 영향을 주는가

고르바쵸프가 추진하는 대외정책이 평화군축의 기운을 높이고 자주주권을 고양시키면서 제국주의 세력의 입지를 약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은 적극적인 의미로 긍정적으로 평가되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소련의 정체와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도모하려는 자국의 이해에 근거하기 때문에 제3세계 변혁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

소련의 신사고정책은 제국주의의 입장에서 본다면 열렬히 환영해야 할 사태를 유발시켰다. 미국의 영향 속에서 온갖 개입과 조종에도 불구하고 의연히 반제노선을 견지해왔던 니카라구아, 쿠바같은 민족민주혁명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책동에 노골화되고 있다. 소련은 신사고노선에 입각해 중남미의 문제를 관련 당사 국가들이 해결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중미 5개국 정상회담의 합의사항을 지지했고 89년부터 니카라구아 군사지원을 중단했다.

그러나 미국은 소련과 반대되는 행동을 했다. 쿠바, 니카라구아, 파나마 등의 반미정권을 눈에 가시처럼 여겼던 미국은 파나마 침공에 의한 노리에가 정권의 전복, 니카라구아 선거개입을 통한 산디니스타 해방정권의 붕괴, 쿠바에 대한 압력을 강화했다. 그리고 엘살바도르의 마르티노 민족해방전선도 최근 정부측과 타협함으로써 미국의 구도에 크게 유리하게 되었다.

아시아지역에서도 티벳, 아프가니스탄, 캄보디아, 인도-파키스탄 분쟁등의 미해결지역이 많다. 이 지역에서도 소련의 영향력이 크게 후퇴한 상태에서 미국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자신의 구도대로 처리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 소련 신사고, 제3세계에 제국주의 침탈 강화로 작용 각국의 자주적 투쟁 요구돼

외대논단

## V. 맺음말

사회주의 개혁에 관해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제3세계의 관점에서, 우리의 관점에서 보는 자주적 관점이 결여되어 있다면 이런 논의는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련내부의 사정을 차치하고 그 영향이 제3세계에 미치는 것은 부정적이다. 소련은 자신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3세계를 고려하지 않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여기서 분명하게 부각되는 것은 각국의 자주노선이다. 세계사회주의 혁명의 발전도 각국의 실정에 맞게 전개되어야 했듯이 제3세계 민혁운동도 자국 근로대중의 자주적 투쟁에 의해 진행되어야 한다. 한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소련에 대한 막연한 추상성을 가진 사상적 사대주의를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쿠바의 지도자인 카스트로는 이렇게 말했다. 『만일 일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와같은 사상이 혁명적 성격을 가진다면 어째서 제국주의 지도층의 한결같은 열띤 지지를 받고 있는가? 역사적으로 볼 때 진정한 혁명사상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대하고 침략적이며 약탈적인 제국의 우두머리로부터 그토록 열광적인 지지를 받은 적이 한번도 없다.』

〈다음호에서 계속〉

# 사람산맥

김 환 석

## 호지명 할아버지

지난 19일은 아시아의 위대한 민족주의자며 공산주의자였던 베트남의 국부 호지명(胡志明)의 탄생 1백주년이었다. 호(胡)는 사망한지 21년이 되는 오늘날까지 베트남에서는 공산주의자나 반공주의자를 떠나 모든 국민들의 추앙을 받으며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한, 다정한 「호(胡) 할아버지」로서 정신적 우상이 되어왔다.

사실 호(胡)는 1920년 프랑스 공산당에 입당, 베트남 사상 최초의 공산주의자가 됐다. 그후 그는 해외(중국, 태국등)에서 베트남혁명운동을 위한 공산주의활동을 하며 추방, 투옥, 도피의 고통을 겪다가 1941년 고향을 떠난지 30년만에 다시 베트남땅을 밟게 됐다.

호(胡)는 당시 2차대전으로 일본이 프랑스를 몰아내고 인도차이나반도를 점령하자 베트남 독립동맹인 「베트민」을 창설, 항일운동을 하면서 프랑스군과 미군에 협력하기도 했다. 그후 1945년 독립을 선언하고 베트남민주공화국을 세웠으나 프랑스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괴뢰정권을 내세우자 「베트민」을 이끌면서 프랑스와 게릴라전을 전개, 마침내 54년 프랑스군을 패배시켰다.

제네바 평화협정에서 베트남이 세계강대국들에 의해 둘로 갈라지게 되자 그는 북쪽인 월맹을 이끌면서 미국이 지원한 월남과 다시 끝없는 전쟁을 시작했다. 결국 월맹은 그가 사망(69년 9월 2일)한지 6년후인 75년 4월 30일 월남을 격파하고 전베트남을 통일하는데 성공했으며 사이공시를 호지명시(胡志明)로 개명했다.

이처럼 호(胡)는 세계강대국인 프랑스와 미국을 상대로 한 전쟁에서 연거푸 승리를 거두었으며 자신의 이념인 공산주의를 이식하는데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공산주의운동사적 점근만으로 그를 이해한다는 것은 충분치 못하다.

베트남국민들은 호(胡)가 지난 45년 수립된 베트남민주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으로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여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었는 데도 제임시 대통령궁을 꺼려 근처의 누옥에서 기거했으며 항상 농민복을 입고 턱에 염소수염을 기른채 서민들과 어울린 것을 잊지 않고 있다. 또한 그는 대통령 취임연설에서 공산주의자답지 않게 마르크스나 레닌대신 토머스·제퍼슨의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말을 인용, 국민들을 놀라게 하기도 했다. 특히 관심을 끄는 점은 그가 평소 「국가가 독립했어도 국민들이 행복이나 자유를 누릴 수 없다면 그 독립은 무의미하다」고 강근하는 등 실용주의 노선을 추구해 왔다는 것이다.

현 베트남 공산당 지도부는 국민을 진정으로 생각했던 호(胡)의 실용주의정신을 따라 개혁의 길로 나설 것을 강조하고 있다.

물론 일부 전문가들은 베트남의 이런 개혁정책을 지난해 동구권 공산주의 국가들의 잇단 붕괴의 여파로 분석하면서 베트남이 동구와는 달리 중국식의 개혁노선을 취할 것이며 결국 실패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호(胡)가 일평생 동안 끊임없이 베트남을 프랑스 미국등 외세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난 자주독립봉일국가로 키우기 위해 투쟁해 온 점과, 서민들과 어울리고 국민의 행복을 추구했던 민족의 지도자였던 점을 그가 죽은지 21년후인 지금도 여전히 베트남 국민들이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죽은 후에도 국민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 질 수 있는 지도자는 국민위에 군림하는 신(神)의 모습이 아니다.

즉 자신의 권위나 체제유지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먼저 다수의 민중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에 기반하여 민중을 역사의 주인으로 이끌 수 있는 지도자의 모습일 것이다.

〈교양학부 강사〉

# 이 책

## 한미관계의 실증적 재인식

『미국에 대한 환상의 터널은 가도 가도 끝이 없을것만 같았다』— 『한미관계의 재인식1 (두리피냄, 1990)』편집자서문에서—

이 책이 첫머리에서 말하듯이 일제에서 해방이후 40여년간 우리 역사속의 숱한 민중항쟁은 미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부족으로 인한 계속적인 한계에 부딪혀왔다. 하지만 그 속에 우리민중의 계속적인 문제 제기와 새로운 인식의 확대는 마침내 민족을 억압하는 기본모순으로 한국사회속에 거미줄처럼 파고들어있는 미국의 존재를 깨닫는 비약적성장을 이루었다. 물론 그 계기가 80년 광주민중항쟁에서 부터였음은 이젠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 미국에 대한 문제는 우리사회 대다수대중들의 인식의 전환을 가져왔고, 또한 이를 기초로 대규모적인 반미운동의 흐름을 형성해오고 있다.

바로 이 책은 그간의 이러한 논의와 반미운동의 발전을 토대삼아 또한번 한미관계의 중속성에 대한 객관적 고찰의 계기를 만들고, 과학적으로 한단계 높은 실천운동의 성장에 밑받침이 될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이 책의 1부에서는 대미종속에의 근원기인 미군정기로부터, 계속적으로 친미군부독재정권을 만들어온 미국의 공작정치기, 80년 광주문제에 결정적 열쇠를 쥔 미국의 역할, 그리고 이후 민족민주운동세력이 벌여온 획기적인 반미운동사의 개략적인 약술을 하고있다. 1부가 한미관계의 시대사적인 고찰이라면 2부에서는 한국사회에 지배적인 역할을 해온 미국의 정치적공작—CIA를 중심으로—과 주한미군을 중심으로 살펴본 한반도에서 미군의 군사적 전략등을 다룬다. 이어 이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기획인 3부에서는 현재 미 다국적 기업의 침투상황과 그에 따른 한국사회 노동운동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는등, 이전 한미경제관계라면 5~60년대는 원조, 70년대는 차관 80년대는 직접투자로만 도식화되어 설명되었던 종속논리를 구체적으로 해명하여 보다 풍부하게 논의의 폭을 넓히고 있다.

한편 4부에서는 미국의 억압속에 민족자주운동으로 발전하는 여성운동과 한국사회교육전반에 뿌리박힌 숭미사대교육의 실상등을 집중적으로 다루어 우리가 생활속에서 체험하는 미국의 식민정책의 문제까지 다루고 있다.

이 책은 분명 80년에 깊을 찾은 반미자주화운동에 더넓고 빠른 길을 뚫는 실증적 과학이론연구의 첫걸음임에 틀림없다.

〈김창섭기자〉

작은 꿈들이 모여 힘있는 나라를 만듭니다 3

"오빠./ 맹물로 가는 자동차가 있다면 참 좋을거야. 그렇지?"

그래./ 아주 좋은생각이구나.
물은 산소와 수소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수소는 엄청난 에너지를 갖고 있단다. 따라서 물에서 수소를 분리해 그 에너지를 힘으로 사용할수만 있다면 맹물로 가는 자동차도 만들 수 있을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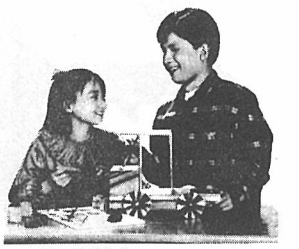
자동차가 맹물로 가게 되면 석유 한방울 나오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기름 걱정 안해도 될거고, 또 수돗물을 넣고 신나게 달리다 다시 시냇물 한바가지 부어넣고 부웅— 정말 편하고 좋겠지?

그런데 매일 알코올로 가는 자동차를 개발해서 시험하는 등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연구해 왔지만 아직 아무도 이 맹물로 가는 자동차를 완성시키지 못했단다.

그러니까 윤정이가 지금부터 꿈을 갖고 연구해서 만들어보렴. 지금까지 세상을 편리하게 만든 크고 작은 발명품들도 처음엔 모두 작은 꿈으로부터 시작했단다.

상상해봐./ 맹물로 가는 자동차의 여류발명가 조윤정— 정말 멋지고 신나지 않겠니?

S대 화학공학과 2년 조 준



꿈이 있는 사람,
꿈이 있는 나라의 미래는 밝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작은 꿈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HD 現代自動車

# 한살 나이에 탄압은 50년·성과는 1백년

27일 경희대학교 노천
승리의 환호성으로 뒤덮
『전국에서 오신 교육동
정권과 교육모리배들의
민주 인간화 교육의 깃발
국교직원노동조합이 결성
니다…』
이에 본보에서는 전교
을 바라보는 한 심인생의
교육에 대한 이데올로기
의 생생한 장면들과 함께

▲「전교조 선봉대 출범식」—신전협사에서 60여명의 교사들이 「참교육예찬」 과시

## 탄압선풍 1천5백 「거리의 교사」 낳아

## 조직사수투쟁 범국민적 지지·연대 확보

전교조 1년사는 당국의 혹독한 탄압과 이에 맞선 투쟁의 역사이다. 결성과정에서부터 가해진 탄압으로 윤영규 위원장을 비롯 85명의 교사가 구속됐고, 연행당한 교사의 연인원은 8천7백여명에 이르며 연행이나 조사과정에서 자행된 폭행으로 2백여명의 교사가 중·경상을 입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1백30명에 대해서 파면, 9백50명에 대해서 해임, 4백12명을 면직 조치하여 도합 1천5백여명의 교사들이 거리로 내몰렸다.

그러나 이중 약 80%에 달하는 교사들이 전국 각지의 전교조 사무실로 출근하여 상근 활동을 벌여나가고 있으니 전교조가 다른 여타의 민족민주운동세력보다 튼튼한 조직과 활동을 전개하는 원인이 여기에 있다할 것이다.

한편 전교조 탄압은 교사들에 대한 탄압에 그치지 않고 「참교육」을 지지하는 학생들의 탄압으로까지 이어졌다.

한해동안 전교조와 관련한 시위·농성은 전국 2백50여 각급학교에서 50여만명의 학생들이 참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이중 4명 구속·11명 불구속·1백31명 퇴학·37명 유기정학·39명 무기정학등 2백80여명의 학생들이 징계처분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 건설과 함께 불어닥친 당국의 탄압선풍에 전교조의 가장 일차적인 과제는 조직을 사수하는 사업이었다.

당국의 전교조 탄압 핵심 방법들은 전교조 정책국장 윤병선 해직교사의 말로서 정리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탄압방법은 대 국민 이데올로기적 선전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교사는 노동자일 수 없다는 말이었죠. 또한 전교조가 하려는 교육은 좌경의식화 교육이기 때문에 전교조가 인정되면 아이들을 망친다는 논리로 참교육의 본뜻을 호도시키는데 힘인이 쏠렸었습니다. 교사들의 노동3권을 보장했을때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된다는 논리도 빼놓을 수 없는 선전수단이었습니다.』

이에 물리적인 탄압, 즉 교사들에 대한 징계가 가시화된 여름부터는 해직자가 양산되면서 조직력에 결정적인 타격이 가해지기 시작했다.

윤병선 해직교사의 말처럼 『교사들에 대한 징계는 밤과 양심중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악랄한 와해책동』에 전교조는 범국민적인 대응투쟁을 강행해 나갔다.

7월 9일 여의도 고수부지에서 「전교조 탄압저지 및 합법성 쟁취를 위한 범국민대회」를 개최하여 전교조의 정당성과 당국의 탄압을 규탄하고 서울 각지에서 가두 홍보전에 나서 무려 1천9백명의 교사가 연행되기도 했다.

이후 닷새동안 전국 5백90개 학교 5천여명의 교사들은 밤을 새으며 학생들을 가르치는 「단식수업」이라는 생소한 말을 창출시켰고 15일부터 전교조 집행부는 명동성당에서 「전교조 사수를 위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이는 7월 26일 대학교수 70명을 포함한 1천여명의 교사들의 가족까지 동반한 8월5일까지 10일이 넘는 단식농성으로 확대되어 방학기간중 전교조의 투쟁력에 큰 활력소로 작용했다.

각급학교의 방학이 끝나고 새학기로 접어 들면서 연인원 2천여명이 출근투쟁을 전개하는 등 전교조는 방학기간중에 일정부분 와해된 기본조직 체계를 복구하는 「조직복원투쟁」에 나섰다.

이 시점의 가장 특이할만한 사실은 「비공개 현장 조합원」을 인정하는 조치였다. 이는 교육관료들의 끊임없는 회유와 협박으로 교사들이 외부적으로 자신이 조합원임을 공개하지 않더라도 전교조 탈퇴에 대한 갈등과 해직된 동료교사들에 대한 갈등을 동시에 느끼야 하는 교사들에게 힘을 주고 교육현장에서 힘있는 투쟁을 벌이기 위해 마련한 제도였다. 이는 서울과 광주를 제외한 지역에 각 학교별 모임인 「분회」가 활발하지 못한 곳에서 「조직복원사업」에 큰 역할을 담당해 냈다.

2학기 중에 다시 조직적으로 정비된 전교조는 11월 이후 사업의 방향을 「합법성 쟁취 투쟁」으로 한층 적극화 시켰다. 12월 11일 「전교조탄압분쇄 및 해직교사 원상회복 촉구대회」를 일고 문교부 항의방문을 계기로 올해 2월 시·도 지부장 선거에 1만여명의 교사들이 참여하면서 본격적인 투쟁의 궤도에 돌입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2월에 「원상회복·3당야합 분쇄 해고자 총단결 투쟁」과 3월 들어 「교원지위법 제정 저지투쟁」의 일환으로 민자당 사까지 진출하는 시위를 벌여 3당합당의 비정통성을 폭로해 내는 역할까지 담당하기도 했다.

4월초부터 시작되어 53일 동안 1백4개시·군을 순회했던 「참교육 실현을 위한 온나라 걷기대회」는 경찰측의 구실없는 과잉탄압으로 말미암아 범국민적으로 「민자당의 비민주성」을 폭로하고 「참교육에 대한 전교조의 열망」을 동시에 알릴 수 있는 상징성 있는 행사로 국민들의 폭넓은 전교조 지지를 한눈에 알 수 있는 「쾌거」로 평가받고 있다.

▲행사를 하루 앞둔 금식·시위운동 장소변경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인 분쇄마당을 틀고 5천5백의 교사가 결집대로 집결

전교조의 부문별 사업의 성과 또한 다양하다.

교육법개정운동을 벌여 지난 2월에는 51만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청원하였으며 사립학교법 개악 무효화 및 재개정 투쟁·교육법개악 저지투쟁을 전개한바 있다.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고 대학입시를 위한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민족·민주·인간화 교육을 실시한다」는 본래의 취지에 대한 준비작업으로 각 교과별 「교과서 분석 소위원회」를 결성, 3·1운동, 4·19혁명, 5·18광주민중항쟁 등에 관한 공동수업 자료를 개발하여 「참교육시범수업」이 시민·교사·학생들의 대폭적인 참여 속에 개최되기도 했다.

또한 「교과서내용 개선을 위한 공청회」등을 열어 현행 교과서 속에 왜곡되어 있는 올바른 노동관·농촌관 등을 제시하기도 하였고 「입시경쟁교육의 개선」과 「실업계 교육의 제문제와 개선방안」 등을 연구하여 현행 교육의 심각성을 전사회적으로 제기하고 자주적인 교사대중운동의 모범을 세우기도 하였다.

학교민주화 운동으로는 교내에 「인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장의 자의적인 인사조치로 교사들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줄여 나갔고, 각종 「예결산 공개 제도」를 마련하여 고질적 교육병폐였던 사립학교의 재정부정을 막는데도 앞장섰다. 전교조 1주년을 맞아 한국교육연구소가 전국의 2천여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학교운영의 민주화에 대한 최우선선결요건을 「교무회의 민주적 운영」으로 꼽았듯이 평교사들의 의견수렴 장치를 제도화한 「민주적인 교무회의 건설」에도 박차를 가하여 많은 비조합원들로부터 갈채를 받기도 했다.

그 외에도 교육관계 잡지나 문예지, 신문 발간을 통해서 6백30여회에 걸친 각 단체·대학 강연회 및 전교조 설명회를 개최하고 학부모·학생을 상대로 한 교육상담과 노래·풍물을 가르치는 「청소년 문화교실」을 운영하여 각종 홍보·출판사업과 교육문화사업에도 박차를 가했다.

그런 노력의 결과로 「교육문예 창작회」 「문화국 다리」 「우리교육」 「교육문화기획 '땅'」 「참교육사」 등이 발족했다.

작년 12월 16일 1백여명의 전·현직 교사들로 이루어진 「교육문예 창작회」는 「참교육을 위한 교육문예활동·출판활동과 학생문예활동의 지원과 대중적 문화교육활동」등을 펴나가면서 시집을 발간하고 전국순회 「참교육 실현을 위한 시와 노래의 밤」을 개최해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문화국 다리」는 전교조 집회·행사 등을 위한 「선전대」로 각종 노래공연과 「특별활동」에 관한 자료집 발간사업으로 분주하다.

11명의 해직교사가 주축이 되어 만드는 교육잡지 「우리교육」은 창간호 1만5천부가 매진되고 5월호에는 1만부를 추가하여 2만5천부를 발행하는등 두달동안 정기구독자만도 1만명이 넘는 잡지사상 초유의 기록을 세우며 대도시에서 낙도의 학교현장에 이르기까지 「우리교육」이 읽히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이며, 미술을 담당하는 6명의 해직교사들은 「교육문화기획 '땅'」을 결성하여 인쇄매체를 이용한 각종 디자인 사업과 그림전등을 개최하고 있다.

「외세의 문화와 퇴폐적인 소비문화를 배격하고 우리 고유의 멋과 참교육정신을 일상생활에 담아 보급한다」는 취지의 물품판매사업으로서 「참교육사」가 발족했다.

그동안 제품제작, 보급일정의 차질, 판매망의 미완 등으로 많은 어려움도 겪었지만 이제는 50가지 이상의 품목을 자체개발, 제작·보급하고 사업규모를 현재의 2배 이상으로 늘릴 채비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모든 전교조의 활동은 법적지위획득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정권과 당국으로 하여금 산적한 모순을 제한적이나마 해결하지 않을 수 없게하여 내는 부분운동세력으로 자리잡게 되었다.고 말한다.

이는 「노동법 개정운동과 주택 및 물가인상 캠페인」 「메이데이 세계 노동절 기념대회」 「광주항쟁 개승과 민자당 해체 국민궐기대회」등에 적극적인 참여를 하는 배경이 되었다. 그리하여 투쟁역량에 있어 조금씩 차이를 보이는 각 운동세력의 교량역할과 「국민연합」으로 결집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전체 민족민주운동세력의 폭넓은 발전에 한 몫을 담당해냈다.

한편, 전교조는 당국의 「집요한 탄압」으로 짧은 기간이나마 몇가지 한계점을 드러낼 수 밖에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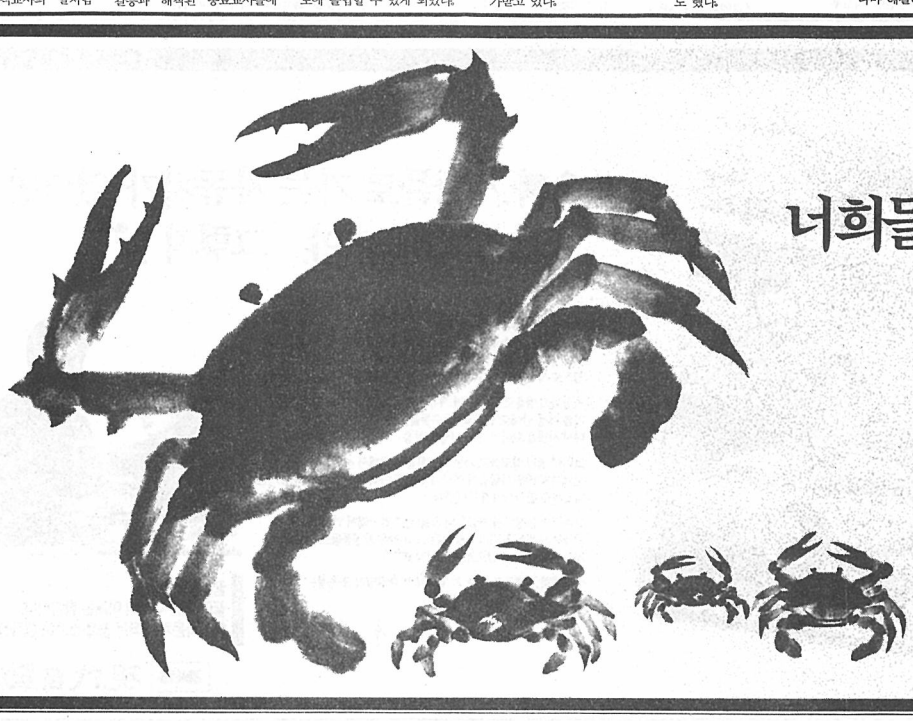
그 첫째로 전교조를 사회적 실체로 뿌리내리는 데는 성공했으나 합법성쟁취에는 이르지 못하여 교사대중의 광범위한 참여를 이루지 못했다는 점이다.

둘째, 정권의 탄압에 맞서 조직을 사수하는데 모든 역량이 집중되어 교사와 국민대중의 교육적요구에 부응하거나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이 미약했다.

▲1백여 고교생의 한목소리… 선생님과 전교조를 사랑합니다

## 사회민주없이 교육민주
## 민족 민주운동 선두주자

각 부문에 광범위하게 인식되어 전교조도 작년 하반기 이후 많은 연대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전교조 기획국장 박찬규 해직교사는 『교육의 민주화와 사회의 민주화는 따로 분리시켜 설명할 수 없는 것이기에 전교조도 사회 민주화를 이루

너희들은 바로 걸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하면 안돼……
모두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자신은 옆으로 걸으면서
아이들에게는 바로 걸으라는
어미게의 가르침——
우리 함께 생각해볼 일입니다.

아이들은 어른을
보고 배우며 자랍니다.
아이들에 대한 진정한 가르침은
어른들의 솔선수범입니다.

SS 쌍용

## — 참교육실현을 위한 대학생 모교방문투쟁을 제언한다

# "더이상 후배들을 외면하지 말자다"

김 우 제
〈동양·아랍어1〉

『요즘 외부 불순 세력과 관련된 교사들이 「전교조」라는 걸 만들어 자기들만 교육자인 양 설치며 공산당처럼 너희를 선동하고 편향분위기를 해치고 있다. 이런 난국일수록 자기 본분에만 충실하며 비판만 하지 말고 믿고 허물을 덮어주며 긍정적으로 살아야 한다. 이 대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는 학생간부들부터 모범을 보여 동요된 학생들이 교내시위같은 불상사를 일으키지 못하게 동태파악을 보고하여 협조해 주길 바란다』

마땅히 지양되어야 할 비판적 삶과 고질적 병폐에 부정적 판단을 내려 진지하게 문제의식을 발표하는 것은 엄격히 구별되어야 한다. 불린문제는 꼭 확인하라는 평소 가르침과는 대조적으로 권위주의적 교사들은 매사를 긍정적으로 보라면서 학생들의 문제의식을 둔화시키고 자주적 학생입지를 다져가는 투지를 발하였다. 방친시험지 팽개쳐 버리고 다음번에 잘 하면 된다는 영성한 희망으로 명랑해지는 것과 같은 터무니 없는 내용의 긍정적 삶을 떠들었다.

그리하여 전교조에 대한 학생들의 토론이나 학생용품을 단체로 엄가구입하는 구체적이고 절실한 문제가 아닌 「건전한 학풍조성」, 「교내환경미화」, 「스승의 날 행사」, 「자매부대방문」, 「흡연학생단속」이라는 추상적이거나 비본질적 성격의 의제만을 부탁하였다. 학교당국을 향한 질의 발표에 대해 핵심을 벗어나 국민학생에게 설명하는듯한 상식적인 얘기로 답변과 훈화를 하며 아까운 회의시간을 소모하였다. 결국 학생들은 짧은 시간에 요지가 분명하게끔 직설적인 언동을 선택 할 수 밖에 없었고 학생부 지도교사들은 그 점을 트집잡아 「버르장머리 없는 의식화학생」이라고 학부형들에게 과대선전 하였다. 참교육의 명분에 반박할 말이 빈약하여 어쨌든 실정법위반은 틀려먹은 거라고 한 나머지 전교조지부가 결성된 학교에서는 비조직적이나마 학교장의 교사고발과 문교당국의 해직조치에 항의하는 집단행동의 가능성이 고조되었다. 그러나 주체적 학생상을 선언하고 참교육을 갈망하는 고등학생들의 운동은 그 의의가 큼인성을 높였다가 식민치하에서 독립운동도 실정법위반이 아니냐는 학생의 질문 앞에서 급기야 약법도 법이다라는 말에 힘을 주는 교사들이었다.

이렇게 폭압적인 교사들이 득실거리는 제도교육의 현장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라는 조직적 규모로 교사의 양심을 실천해가는 싸움을 목격한 학생들은 신선한 충격을 받았에도 불구하고 많은 한계성을 부인 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우선 「학생회는 학생지도부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는 학생회칙조항이 독소조항으로 무한정 적용되어 프락치가 설쳤고 운동을 협의하기 위한 어떤 공개·비공개모임도 부자유스러웠다. 결국 소수의 음모주의 형식으로 시위가 주동되고 현장에서 여러 학생들이 동조하는 경우가 많았다.

본격적인 해직선풍이 일던 6월부터 여름방학 이전까지 많은 시위가 다발적으로 있었던 것은 조합원 선생님들에 대한 인간적 신뢰와 심정적 동조의식으로 학생들에게 공감대가 형성되어 행동을 감행함에 있어서 이견의 여지가 적었던 유리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름방학이라는 공백기로 인해 학생들의 계속적 협의와 움직임은 많이 단절되었고 가정에서 부모님으로 부터 묶이게 되었다. 개학후에는 일단계 해직조치가 완료 된 뒤라 교실에서 선생님들을 대면할 수 없었고 수업시간마다 긴장된 눈빛을 교환하던 분위기가 없는 상태에서 기성교사들의 비방선전은 학생들을 더욱 위축시켰다. 그렇게 쉽게 위축되었던 것은 입시위주의 학교공부에 착취되면서 사회과학적인식이 빈곤한 학생들의 문제의식이 적갈적상태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여 자주적학생사업과 참교육에 대한 구체적 전망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로 2학기 학내에서 어떤 가시적 사건의 연출로 분위기를 띄우는 일이 절박하였는데 그 일은 대학에 제학한 동문들의 수고를 필요로 하는 것이었다. 주동혐의가 노출된 학생들은 다시 총대를 메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평생학전참가문제가 걸려 있었기 때문에 대학선배들의 고교방문투쟁이 또한 쉽지 않았음이 당시의 주·객관적 상황이었다.

참교육첫세대들은 편안한 관망이 아니라 행동을 부딪쳐야 하는 숨가쁜 세월을 한 세대로서 대학에서 지나치게 해방감을 만끽하기 보다는 민자당출현으로 보수적 기류가 더욱 팽배된 모교에서 선유하는 후배들을 걱촉하고 뜻깊은 사업을 실천해가자. 우리는 캠퍼스에서 편안한 「뒷풀이」 시간에 분위기에 어울린다고 「참교육의 함성으로」를 의미없이 불러서는 안된다. 그리고 모교를 동문회에서 방문할때 은사님들과 옛 친분만을 회고할 것이 아니라 기성교사들이 자기들의 시대착오적 발상을 학생들에게 주입시키는 무책임성을 질타하자. 그리고 나름대로 인품을 가졌으면서도 학생들의 의식화를 퇴석시키는 소시민적 교사들이 역사적 의식과는 단절된 채 개인적으로 성실한 인생관을 학생들 앞에서 자처하는 과오를 나무란 수 있어야 한다.

전교조결성 1주년을 맞아 긴장된 순간들을 생생히 상기하며 뜻깊은 실천들을 준비하자.

▲무사셀 최루탄 난사와 함께 2회에 걸친 강제진압으로 3백여명의 교사들이 본교에서 약식집회를 갖기도

▲「참교육 필요성 절감」… 그들에게는 스승도 교육도 없었단 말인가. 스승의 등을 겨눈 폭력경찰의 「회초리」에서 당국의 전교조 탄압의 본질을 느낄수 있다

# 왜곡된 참교육, 그 진실은…

## —전교조에 대한 다섯가지 모함과 다섯가지 진실

음해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결성된지 1년이 됐다. 그간 정부는 전교조 탄압을 위해 군대동원을 제외한 모든 방법을 다쓰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선생님들의 「참교육」에 대한 열의는 탄압의 강도에 정비례하여 높아져만 가고 있다. 이에 본보에서는 전교조 출범 1주년을 맞이하여 그간 정부에서 유포한 몇가지 왜곡된 논리에 대해 그 진실을 밝히는 전교조의 주장이 담긴 관련자료를 요약하여 싣게되었다. 〈편집자〉

### 중·고생까지 시위를 하는 등, 교사들이 교육의 혼란을 충동질한다?

현재 정권은 학교의 정상화를 가로막는 것이 「전교조」의 결성으로 인한 혼란과 중·고생들의 시위를 사주하는 전교조 선생님들이라고 말합니다.

진정 이것이 맞을까요? 우리나라처럼 학교체계가 권위적으로 짜여진 경우는 드물니다. 게다가 어린아이들이라 해서 최루탄과 강촬봉이 봐 주는 법 없고 현실적으로 퇴학·정학등 심각한 제재가 가해지고 있습니다. 이런속의 아이들에게 과연 교사의 몇마디 말이 선동이 되어 거리로 나와 구호를 외치고 유인물을 돌리게 한단 말입니까? 이러한 현정권의 철없는 논리야 말로 아이들을 이해하기는 커녕 그들을 시키는대로 만하는 「꼭두각시」로 여기고 있음을 실증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자신들의 진정한 「스승」을 알아보며 그들에게만 「선생님」소리를 붙입니다.

교육정상화는 결코 교사들 협박·파면하고 아이들에게 겁을 준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상화」가 아닌 「죽음의 침묵」일 뿐이며, 「교육」이 아니라 교육이라는 이름의 「장사」일 뿐입니다.

### 뜻이 아무리 좋아도 「교사가 「실정법」을 위반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논의에 앞서 현재의 실정법이 만들어진 배경부터 살펴보아야겠습니다. 현재의 교육악법은 80년 5월 광주에서 피의 살육이 벌어지는 가운데 소위 전두환·노태우씨의 「국보위」에서 입안되어 무더기로 통과된 제반 반민주악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들 법은 교사는 오직 교장의 명을 받아 교육을 수행하고(교육법 75조) 대통령의 명으로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교과서 내용만을 교육하도록(교육법51조, 1백55조) 되어 있는데 이들 법에 의해 교사들은 교육관료, 교장의 명령에 따라 시국의 변동에 맞춰 정권의 홍보원이 될 수 밖에 없고 이에따라 지난 「5공화국」이 「정의사회」로 둔갑한 교과내용을 교육했습니다.

이에 대한 부당함을 느끼며 교사들은 스스로 단결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처음에는 「교사협의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쉽게 위축되었던 것은 입시위주의 학교공부에 착취되면서 사회과학적인식이 빈곤한 학생들의 문제의식이 적갈적상태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여 자주적학생사업과 참교육에 대한 구체적 전망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로 2회에 걸쳐 강제진압을 받았다. 전교조지부가 결성된 학교에서는 비조직적이나마 학교장의 교사고발과 문교당국의 해직조치에 항의하는 집단행동의 가능성이 고조되었다. 그러나 주체적 학생상을 선언하고 참교육을 갈망하는 고등학생들의 운동은 그 의의가 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한계성을 부인 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우선 「학생회는 학생지도부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는 학생회칙조항이 독소조항으로 무한정 적용되어 프락치가 설쳤고 운동을 협의하기 위한 어떤 공개·비공개모임도 부자유스러웠다. 결국 소수의 음모주의 형식으로 시위가 주동되고 현장에서 여러 학생들이 동조하

### 교사가 「노동자」라 자처하는것 부터가 불순하다?

교사들이 「노동자」임을 선언하자 정권은 「스스로를 전락시켰다」고 흥분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종사하시는 일을 상기해 보십시오. 다수가 사무직이든 생산직이든 「월급」으로 살아가는 「노동자」입니다.

이러한 노동자들의 경제적 민주화 요구와 사회적 불평등 해소 요구가 손가락질 당하는 것이 타당합니까? 하물며 박봉과 과다한 수업에 시달리며 「월급」이 전부인 교사들이 자신 자리를 박탈 당하면서 까지 「참교육」을 외치는 교원노조가 이기적이고 불순하며 천한 것인가요? 교사도 노동자라는 엄연한 사실을 왜곡하려는 정권의 악랄한 논리야 말로 국민대다수인 노동자를 능멸하고 노동자가 될 수많은 아이들을 멸시하는 횡포요, 노동을 천시하는 현 사회적 불평등을 강변하는 발배등일 뿐입니다.

### 외국에도 교원노조가 없고 있으면 교육이 황폐화 된다?

현 정권은 전교조의 정당성을 부정하기 위하여 외국의 작하였고, 이에 처음에는 「교사협의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쉽게 위축되었던 것은 입시위주의 학교공부에 착취되면서 사회과학적인식이 빈곤한 학생들의 문제의식이 적갈적상태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여 자주적학생사업과 참교육에 대한 구체적 전망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로 2회에 걸쳐 강제진압을 받았다. 전교조지부가 결성된 학교에서는 비조직적이나마 학교장의 교사고발과 문교당국의 해직조치에 항의하는 집단행동의 가능성이 고조되었다. 그러나 주체적 학생상을 선언하고 참교육을 갈망하는 고등학생들의 운동은 그 의의가 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한계성을 부인 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우선 「학생회는 학생지도부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는 학생회칙조항이 독소조항으로 무한정 적용되어 프락치가 설쳤고 운동을 협의하기 위한 어떤 공개·비공개모임도 부자유스러웠다. 결국 소수의 음모주의 형식으로 시위가 주동되고 현장에서 여러 학생들이 동조하의해 고쳐져야 합니다. 더구나 현행법은 올 봄 국회에서 개정

### 전교조가 말하는 「참교육」은 반체제교육이다?

「참교육」이 좌경 교육이라는 것이 요즘 최대 선전 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정권은 민족, 민주, 민중이라는 교육이념을 문제 삼는데 어느것 하나 섬겨 마땅치 않은 것이 있습니까?

전교조 교사들은 평화적 「통일」과 북녘 동포에 대한 사랑을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좌경이라면 통일을 바라는 이나라 모든 국민이 모두 「좌경」이라 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 교사들은 「민주주의」는 복종이 아니라 치열하고 용기있는 행동임을 교육 비리 척결과 학교의 민주화를 요구하며 앞장섰습니다. 이것이 「좌경」이라면 해마다 50%의 교육예산 일정한 곳에 유용하는 문교부와 교육청들 기백만원에 매매하는 교육관료들이 때만나면 어린 학생들을 관제행사에 동원하는 정권의 처사가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참교육의 논란은 좌와 우의문제가 아닌 바로 이나라의 민주와 통일, 서로 다른 공동체를 원하느냐 미리와 독점 소수의 종세 이기주의 만용이 유지되기를 바라느냐 하는 교육 이념의 대립인 것입니다.

—자료출처 : 전교조 정책국—

〈요약·정리 정성엽기자〉

---

조 합법성 쟁취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각계각층의 모든 민주세력과의 강력한 연대로서 민주정부 수립을 앞당기는데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 밝혔다.

참교육 실현을 위한 방법을 주체적으로 제기해 나가면서 국민대중의 광범위한 지지를 획득하기 위한 전교조의 합법성 쟁취운동과 참교육 실현의 투쟁은 결성 1주년을 계기로 새롭게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글:최원일 기자
사진:주재영 기자

---

이루기 위해서는 현장내에서 적극적인 활동력을 북원시키는 것이 급선무라 할 것입니다」라고 말하는데 이에 대한 전망은 그리 어둡지 않다.

전교조의 월평균 전국 수입은 3억5천~4억원 정도인데 이 돈의 출처는 거의 대부분이 현장교사들의 후원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돈을 세등급으로 분류하여 평균 20만원을 해직교사에 지급하고 있으니, 현장교사들의 눈물어린 협조가 없다면 전교조는 오래 지탱되지 못했을 것이다. 또한 지난 5월4일 서울을 중심으로 현장교사들이 (해직교사 원상복직 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추진위원장을 맡은 심충보(34·개성여고)교사가 『해직된 교육동지들이 그동안 얼마나 어려웠을까를 생각하면 이제나도 나서서 책임있게 싸워야 할 때』라고 말한것처럼 원상복직을 요구하는 서명작업에 참여한 현장교사들만 1만여명이 넘고, 「한겨레 신문 광고게재」도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1년이라는 짧은 역사와 가혹한 탄압이 무색할 정도로 현재 전국 15개 시·도지부와 1백44개 시·군·구지회, 5백66개분회등 조합원 총 수 1만4천여명, 후원교사 3만1천여명에 이를 정도로 전교조는 놀라운 조직 발전을 이룩했다. 전교조의 대중적 확산의 관건인 합법성 획득이 단기적으로는 불투명하여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음이 사실이지만 앞으로 전교조는 정권의 인정여부에 관계없이 반합법 지위에서 법외노조로서 공개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 한다.

또한 1주년 기념식에서는 「정치적·사회적 민주화가 전교

불가능
ㅏ 될터

---

극장은 온통 감격의 눈물과 이 되었다.
지 여러분! 내일로서 독재 투쟁에도 굴하지 않고 민족을 의연히 휘날려 왔던 전 1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

ㅌ 1년사와 「고등학생운동」 체험기, 그리고 정권의 「참공세」를 27일 전교조 집회 게재한다. (편집자)

# 실마리를 찾아라!

**복잡하게 엉킨 실타래, 그러나 반드시 풀어야 할 매듭—**
**바로 한 기업의 마케팅 문제입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마케팅 전략—
차별화로 시장에서 승리하는 광고—
경쟁사를 제압하는 판매촉진의 묘안—
한치의 오차도 없는 매체전략 및 매체확보—
실마리를 제대로 찾으면 쉽게 풀어지듯이,
마케팅 문제의 해결 또한 복잡한 상황을 꿰뚫어보는 지혜만 있다면 술술 잘 풀려질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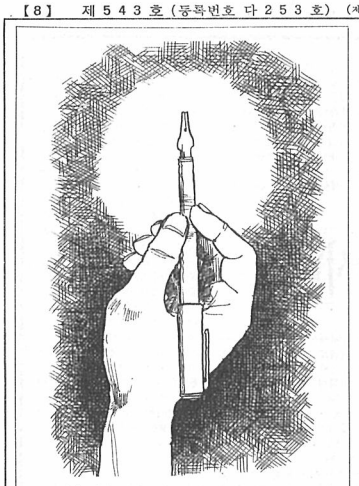
삼희기획과 함께
마케팅 문제를 해결해 나가십시오.
노련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전략과
젊고 신선한 크리에이티브,
그리고 믿음직한 매체집행력—
종합광고대행사 삼희기획은 마케팅 전략이
나아갈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해 드릴 것입니다.

綜合広告代行社 株式會社 三喜企劃
ASSOCIATED WITH LINTAS: WORLDWIDE/YOMIKO 서울·중구 저동동 34(한국화약빌딩) TEL(02)774-3232 FAX(02)756-6675

# 교수는 4점, 총장은 6점, 편집장은 9점?

## —「5·6조치」에서 「평점제 도입」까지 대학언론 탄압사례를 폭로한다

**전대기련 공동기획**



고대와 현대를 막론하고 역대의 모든 반민중적권력은 그 자리의 합리화를 위해 언제나 대중들의 말과 글을 빼앗는 「분서갱유」를 저질렀다.

현 우리사회에서 가장 민중적 지향성을 지니고 민족자주언론의 중심으로 평가되는 대학언론에 가해지는 직·간접적 탄압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서울지역 대학신문 기자연합회 공동기자단이 장시간에 걸쳐 취재한 일련의 대학언론 탄압사례를 전면에 걸쳐 게재하였다. 〈편집자〉

### 1. 대학언론탄압의 특징은 무엇인가

지난 4월 27·28일 양일간 유성관광호텔에서 개최된 「전국대학신문주간교수협의회(이하 전주협) 춘계세미나」에서는 대학신문에 실리는 이념성기사에 대해 평점을 매기고 이에 사법기관과 협조해 「총장·주간교수경고·집필자구속」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문교부 관계자가 토론중 밝힌 바 있다.

최근 대학언론을 극히 편향적인 좌경운동권의 선전지로 매도하여 장악하려는 정부의 이같은 발표는 올해만의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87년의 6·10민주화운동 이후 민족민주운동(이하 민민운)세력의 역량이 강화되는 가운데 사회변혁에 대한 청년 학생의 역할은 88년 6·10, 8·15남북학생회담 성사투쟁을 전후로 더욱 증대되기에 이른다. 이러한 정세의 고양기에 이르러 5공청산과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민민운세력과의 심각한 대립국면에서 위기의식을 느낀 정권은 89년 3월 문목사의 방북과 5월 등의대사건을 구실로 민민운세력을 「좌경 용공 폭력혁명세력」으로 몰아 대대적 탄압공세를 가한다.

이에 정부는 각대학의 학생회를 학생대중으로부터 분리시켜 학생운동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의도를 가시화하고 더불어 대학신문 또한 독자대중으로부터 고립시키려는 의도하에 89년 5월6일 문교부의 대학신문 이원화조치를 발표한다. (이른바 5·6조치) ▲대학신문의 발행인을 총장에서 학생편집장으로 하고 ▲발행에 따르는 사법적 책임을 학생기자가 지며 ▲발행에 드는 경비또한 신문사 자체적으로 조달할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같은 조치는 완전한 자율권을 학생기자에게 보장해준다는 미명아래 발행에 따르는 모든 책임을 학생기자에게 전가하고 등록금의 일부인 대학신문의 물적토대자체를 제거하겠다는 의도이다. 즉, 현 대학신문을 학교신문과 학생신문으로 분리하여 학교 홍보지화 하려는 음모로 대학언론의 자율권보장운동에 족쇄를 가하는 이 5·6조치는 「학생편집국장에게 그 사법적 조치의 책임을 묻는다」는 근거아래 전국10개 이상의 대학에서 20여명에 이르는 기자와 필자의 대량 구속과 수배·외문사등의 물리적인 탄압으로 형체를 드러낸다.

### 2. 대학언론탄압, 이렇게 드러나고 있다

**최근 문교부의 탄압방침** 전국대학신문 주간교수협의회 춘계세미나에서 발표된 주내용은 서강대, 원광대, 고대신문주간교수의 기조발제로 「대학신문의 실상」, 「대학신문의 개선방안」, 「대학신문 기사의 동향」, 「대학신문의 제 문제」에 대한 주제발표가 주요골자를 이루고 있다. 작년 하계·동계 세미나에서 다뤘던 주제 즉 대학생문 발행의 제 문제, 대학신문의 광고문제 등과는 달리 이번 춘계세미나에서는 「대학신문이 운동권 논리를 대변하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고치 나갈 것인가」에 주요 초점이 놓여졌다.

「대학신문의 실상」이라는 주제발표문에 따르면 『각 대학으로 부터 접수분석한 4백40개 신문에 실린 글중 편파적이고 어색한 2백39개 글을 추출하여 내용을 살펴 보았다』고 한다. 글의 판정 기준은 자유민주주의 및 공산주의를 기술하는 기술적 차원에서(Ⅰ)에서는 자유민주주의 단점을 부각시키고 공산주의의 장점만을 기술하는 비판적 기술(1), 자유민주주의의 흑백논리만을 전개하거나 공산주의를 가치적으로 편향되게 기술하는 부정적 기술(2), 자유민주주의 타도및 전반적인 구조주장의 내용을 기술하고 공산주의 사상에 입각한 행동의 필연성과 구체적 방법을 고취하는 파괴적 기술(3)로 나누고 있다.

또한 독자들에게 미치는 인지효과를 분석하는 인지적 기준(Ⅱ)은 단순인지(1), 의식변화(2), 행동변화(3)로 구분하였다. 〈아래표 참조〉

| 인지(Ⅱ) / 기술(Ⅰ) | 단순인지(1) | 의식변화(2) | 행동변화(3) |
|---|---|---|---|
| 비판적기술(1) | 1 | 2 | 3 |
| 부정적기술(2) | 2 | 4 | 6 |
| 파괴적기술(3) | 3 | 6 | 9 |

〈대학신문 평가 판정표〉

이 판정표에 의해 2~4점은 주간교수 경고, 4~6점은 총·학장 경고, 6~9점은 편집장 구속이라는 방침을 「대학신문 감시위원회(이 「대학신문 감시위원회」는 문교당국과 선발과 교수 10인으로 구성된다고 한다 )」에서 분석한다고 한다. 한편 동아일보 5월23일자에 의해 문교부, 공보처, 법무부, 치안본부 관계자들이 대학언론 분석팀을 구성하여 평점제를 작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판정표에 의거하여 문제된 기사의 주요골자는 「정부를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는 왜곡된 시국관, 공산주의 이론 및 체제선호, 계급투쟁 고취, 반미감정 고취, 교원노조 활동 지지, 민중문화 예술 확산」등 이다.

이의 개선 방안에서 특별히 문교부가 학교당국에 제안하고 있는 것은 「대학간행물 심의위원회」이다. 「대학간행물 심의위원회」는 신문의 내용을 개선하기 위해서 첫단계부터 학교 및 교수의 개입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논리하에서 제기되었으며 전문교수들로 구성된다. 「대학간행물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교수와 학생이 편집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제도를 강구해야하고 학생기자에게 일임되어 있는 수습기자 선발권을 운동권 학생들이 채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학생기자 선발에 대한 교수의 적극 참여, 그리고 광고의 게재및 광고비에 관련된 문제를 논의하는 기능, 외부기고가의 글을 강력히 지적·시정할 기능 등이다.

실제로 국제대의 경우 작년 11월에 국제대 교수 5명으로 구성된 「언론·출판 심의위원회」가 구성됐다. 그리고 「언론·출판 심의위원회」는 72호 국제대 신문의 제작과정에서 검열을 강화했다.

또한 명지대에서는 아직까지 대학신문에 구체적인 탄압을 가해오고 있지는 않으나 보직교수들을 중심으로 기획실내에 기획홍보팀이 꾸려졌고 이 기획홍보팀에 「언론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학교 간행물을 심의한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탄압은 없으나 기획실장이 주간교수이며 주간교수와 일상적인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언론심의위원회」는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

**편집자율권에 대한 탄압** 학생기자·필자의 구속으로 나타나는 정부의 직접적인 탄압과 함께 대학신문을 탄압하는 또다른 형태의 언론탄압이 바로 주간교수에의한 원고검열과 무리한 수정·삭제등의 편집자율권 침해이다.

87년이후 정부에의한 검열이나 배포금지가 모습을 감추면서 주간교수와의 마찰로 인한 발행지연, 제작중단 사례가 빈번해 지고 있는데 신문사 내부에서의 제작중단은 이전에는 거의 없었던 일이다. 기획단계에서 부터 원고, 대장에 이르기까지 개인적이 판단에 의해 빨간 사인펜을 들고 다니는 구시대적인 모습은 대학언론인의 변화의 노력을 가로막고 비민주적인 언론탄압의 족쇄를 체우는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다.

주간교수와의 마찰이 가장 심각한 곳이 바로 주간교수퇴진과 편집자율권보장을 요구하며 제작거부를 결의하고 지난 5월16일(수)부터 농성에 들어간 고대신문이다.

문제의 직접적인 발단은 5월5일자 사설 「KBS, 현중 폭력탄압을 규탄한다」에 「KBS노조와 현중 노조가 국민을 볼모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려 했다」는 내용을 삽입하라는 주간교수의 요구가 거부되자 일방적으로 내린 발행중단 조치였다.

홍기선(신문방송학과)주간교수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내세우고 있지만 자신이 방송장악음모의 산파역할을 한 「방송제도연구위원회」의 핵심인 제4분과장이란 사실은 KBS사태와 홍기선 주간교수가 결코 무관하지 않으며 자신의 입장을 학생기자들에게 강요했음을 밝혀주고 있다.

고대신문 기자들에 의하면 홍기선 주간교수는 올해 1월 부임직후부터 「전기자 해고」, 「신문사 폐쇄」등을 거론하면서 1차례 배포금지, 3차례 발행중단 조치를 내렸다고한다. 심지어는 학원민주화관련 좌담도중 들어와 특정교수를 「편향적」이라고 지목, 좌담을 무산시킨 적도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간교수와의 마찰에서 학교당국과 주간교수의 주장은 「말을 듣지 않겠다면 학생자율신문으로 가라. 새로 학교 홍보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대부분 문교부의 5·6조치를 그대로 실행한 결과를 인것이다. 또한 빈번한 마찰이 기자들을 위축시키기 위한 의도적인 제동일 경우도 적지않다.

▲사진은 최근 광고게약문제, 편집자율권, 주간교수의 사전심의문제 등으로 제작에 차질을 빚고있는 대학신문들.

그러나 주간교수와 학교당국의 간섭이 학내상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학내상황이 열악한 대학에서의 편집자율권 침해는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명지대의 경우, 스승의 날 발행되는 신문에 설립자이자 현 총장이 쓴 「교사·교수에게 주는 심계명」을 게재할것을 일방적으로 지시하는가 하면 주간교수는 기획안을 무시하고 임의대로 필자를 선정해 원고를 받아 놓고 이를 게재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큰 학내진통을 겪은 서울교육대학 에서는 학내사태로 제적된 학생들의 학원민주화 관련 좌담기사를 학교당국이 직접 찢어내고 신문을 배포했으며 최근에는 지난 5월23일(수) 발행예정이던 지령 2백호 신문이 전교조 1주년 특집기사가 문제돼 발행되지 못했다.

**예산자율권에 대한 침해** 국제대의 경우, 88년 11월 21일자 2백85호에 학내분규로 인해 신입생모집을 전기에서 후기로 변경한 상황에 대한 기사에서 「학생들이 원서접수를 지지하기 이전에 문교부측과 학교측이 학내분규로 인해 전기전형이 불가능함을 우려하고 후기전형에 대한 얘기가 오갔으리라는 경론이다. …」중 「경론이다」라는 문구가 객관성을 상실했다는 이유로 학교측에서 배포를 불허했다.

그러나, 기자들이 학교측의 지시를 거부하고 배포를 하자, 학교측에서는 2개월간 제작중지를 지시하였다. 이 사건이 국제대학보에 대한 탄압의 시발점이었다.

그러나, 신문에 사과문을 게재함으로써 그 문제는 일단락되는 듯했다.

한데, 89년 2학기 2백92호 제작과정중, 학교측에서는 일방적으로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신문제작을 중단 할 것을 통보하였다. 학교측에서는 89년 학보사 예산이 격주 4·8면 체제에 따른 1학기의 신문제작비에 모두 쓰여졌다며 월간 4면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또한 발행인을 학장에서 학생처장으로 변경할 것을 기자들의 의사 타진조차없이 학교측에서 결정을 내리기까지 했다. 이러한 탄압은 90년에도 계속된다.

이에, 학생들은 학교측의 기만적인 태도를 알리고 신문의 신속성을 위하여 개강호를 제작하고 총장허가없이 임의배포를 했다. 그러나 이 배포문제로 인해 현재까지 개강호 제작비 부지급, 편집장 제적요구, 예산 전면중단을 학교측에서 시행하고 있다.

학생들은 지난 87년 명지학원에서 성한 학원으로 제단이 이전 할때 학생들과 약속한 53개 조항 합의서 중 학내문제 제11항에 명시된 격주 4·8면 발행과 월간 4면을 제작하는 대학이 전국에 한 학교도 없으며 90년도 등록금이 20.38%도 인상됐고, 학보구독료를 따로 거두었던 것등을 볼 때 예산부족의 이유는 모순이 된다는 점을 들어 학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에 들어갔다. 그러나, 학교측에서는 편집장이 사퇴한다면, 예산을 지급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제시하며, 학생들과의 면담을 기피하고 있다.

추계예술대학보사는 외형상 학교 부속기구로 편성되었으나, 학교에서의 예산지급은 전무한 상태이고, 총학생회 기금중 일부를 도용하여 신문을 발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보에 발행인으로 학장이 버젓이 실리고 있음에도 학교측에서는 예산상의 문제는 총학으로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다.

예산으로의 탄압은 88년도 부터 본격화 되기 시작했는데, 기존 1년에 4번 발행하던 학보를 1년에 2번으로 축소시켰으며, 급년에는 5월 15일자로 발행된 신문의 예산지급외에는 지원조차하지 않아, 이후의 신문발행전망은 불투명한 상태이다.

학교측에서는 봄철에 필요한 병역광고와, 입시철의 신입생 요강발표만을 위해 학보는 존재한다는 식의 어처구니 없는 입장만 보이며, 대학신문의 제작을 거부하고 있다.

이는 을바른 대학문화의 창달이라는 본래의 대학신문의 역할을 무시하고, 예산을 무기로 학보를 의도대로 조종하려는 학교측과 정권의 기만적인 태도라 볼 수 있다.

### 3. 보장되야할 대학언론의 자율권

현 사회와 결코 유리될 수 없는 대학신문은 아픈 현실을 바로 인식해내고 왜곡된 현실에 비판을 가하여 역사의 발전에서 제기되는 청년·학생의 올바른 지위와 역할수행을 전인해내는 임무를 부여받게 된다.

이에 객관적인 기사의 전달과 학교구성원전체의 의사와 여론의 수렴형성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선 언론의 생명인 특정집단의 간섭과 배제에서 벗어난 자율권이 보장되어야 하는것이다.

여기에서 간과해야만 할것은 올해 당국의 대학신문탄압양상은 물리력을 동원한 당국의 직접탄압 뿐아니라 문교당국과 학생기자의 관계사이에 학교까지 침가시켰다는 것이다. 문교부는 주간교수의 권한을 강화시킨다는 구실로 상대적으로 학생기자들에게 압력을 가함으로 문교당국과 학생기자(즉 대학신문)간의 대립을 주간교수와 학생기자간의 대립구도로 위장하고 있다.

그속에서 독자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자율권의 진정한 의미와 이를 침해하는 문교당국의 의도를 주간교수·독자대중 모두가 바르게 인식해야만 한다. 또한 탄압을 분쇄하기위한 각 신문사들의 투쟁은 대학 전 구성원에대한 인식의 폭을 확대시키고 독자들과 함께 호흡하려는 작은 노력을 통해 신문사만의 고립적인 몸부림이 아니라 독자대중을 포함한 구성원 전체의 제권리 쟁취를 위한 항성으로 이어져야 한다.

〈전국대학신문기자 연합회 공동기자단〉

**외대만평**

우린… 끝났어

대우가족

우리들의 일과 삶을 가꾸는 소리…

'목동은 놀지말고 농우(農牛)를 보살펴라
뜨물에 꼴먹이고 이슬 풀 자로 뜯겨
그루갈이 모 심으기 제 힘을 빌리로다…'

농가월령가의 한 귀절처럼 5월이 되면,
이 땅의 곳곳에서는 우리들의 일과 삶을
가꾸어가는 소리들로 분주해집니다.

이른 아침부터 날이 저물 때까지,
바쁠 때면 서로가 서로를 도우면서,
함께 일용할 양식을 애써 가꾸는 건강한 모습들—

농촌에서, 이촌에서, 도시에서…
이렇게 우리 모두가 제몫의 삶을 진솔하게
가꾸어 나간다면, 대지(大地)는 또한
풍성한 수확을 약속하며 스스로를 일구어 줄 것입니다.
우리들의 어머니와도 같이 편안하고 포근하게
이 땅의 삶을 감싸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좋은 계절에,
우리들이 대지를 곧게 밟고 설 때,
뿌리고, 가꾸고, 거두고, 나누는 일을 소중히 하는
많은 이들과 함께—

대우가 있습니다.

대우가 있습니다(4)

문화 논평

# 문학으로 열매맺은 참교육 콩나무

## ——전교조 1주년, 참교육 관련문학을 알아본다

참교육의 함성이 온나라에 울려퍼진지 1년이 지났다. 민족을 사랑하게 하고 진정한 민주를 실천하게 하고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더불어 사는 즐거움을 가르치는 참교육의 콩나무가 이제 어느정도 결실을 맺게 된것이다. 지식 몇개 더 가르치는 것보다, 점수 몇점 더 따는 것보다 촌지 조금 더 두둑히 받는 것보다,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을 더 푸르게 하는 것이 진정한 교육이라는 것을 알아냈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1천5백여 참스승들의 생존권과 맞바꾸어 얻어낸 값비싼 댓가였다.

그동안 우리나라 교육은 지배정권의 체제유지와 이른과 실천의 괴리라는 해묵은 병폐속에서 시달려야만 했고 그때문에 교육의 주체이어야 할 교사, 학생, 학부모들은 제린리를 행사하지 못했다. 그러나 전교조의 열린 광장에서 참교육의 자랑찬 깃발과 함께 사회구조적 모순을 인지한 교육주체들은 제자리 찾기운동을 급속하게 발전시키고 있다.

전교조 탄압의 광풍속에 희생당했던 해직교사들의 활발한 사회참여, 전리의 불모지였던 학교현장을 개척하기 위해 힘차게 뛰고 있는 선생님들의 의연한 모습과 함께 참교육과 하나되려는 아이들의 푸른 꿈이 감동적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민족교육의 가슴아픈 현실을 결감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참교육의 전당을 만들기 위한 우리의 노력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전교조 1년, 해직 1년

전교조 가입이라는 단 한가지 이유만으로 생계수단인 교단에서 부참히 내몰리야 했던 1천5백여 해직교사들. 그렇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의연한 기상으로 누구보다도 전교조의 깃발을 드높이 개양하였다.

▲참교육의 꿈은 청소년 잡지, 교육지침서, 서간집, 꽁트집, 노래집 등의 출판물과 노래테이프, 각종 문화공연등을 통해 꾸준히 펼쳐지고 있다.

암담한 오늘날의 교육현장을 가장 진실되게 기록하며 삶과 교육과 사랑을 위해 구체적 해결방법을 지향하는 해직교사의 「평교사 일기」나 교육시집 「통일의 꽃씨 민주의 불씨」는 우리에게 잔잔한 감동으로 다가온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전교조 원년 5월28일 창립대회를 시수하기 위하여 각고의 노력끝에 한양대에 결집한 선생님들의 무용담과 민주당사 농성의 체험수기를 묶은 「단식일기」는 전교조의 탄생을 함께 준비했던 우리이기에 보다 큰 감격으로 새겨진다. 또한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참교육의 깃발을 결코 내릴 수 없다는 결연한 의지에서 선생님들의 숭고한 교육관을 엿볼 수 있다. 11명의 해직교사들이 주축이 되어 만드는 월간 교육 잡지 「우리교육」은 독자들의 큰 호응속에 1만부를 추가 발행했고, 6명의 해직교사들이 교육문화 기획 「땀」이라는 문화분과를 지난해 9월20일 조직하여 미술교육을 위한 교사모임을 주도하고 있다.

출판활동과 문예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발족한 「교육문예창작회」는 전·현직 교사들로 이루어졌고, 「교사는 노동자다」라는 교육 시집을 필두로 전국순회의 「시낭송의 밤」을 개최하며 교육문예무크지를 준비하는 등 두드러진 활동을 보이고 있다.

### 꺾일 수 없는 「참교단 지기」의 아픔

전교조 운동의 영향력이 사회 각 부문의 민주화운동으로 파급되고 있는 지금 40만 교직원들은 소외당하는 아이와 학부모들을 적극적 공간으로 이끌고 민주적 학교생활과 인간적 교육풍토를 정착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밖 즈음 출간된 「즐거운 학교 민주적 교실을 위한 학급운영」은 구체적 원칙들로 이루어진 현장지침서로써 현직 선생님들에게 대단한 호응을 받고 있다. 잘못된 선입견적 학생관을 지적하며 새로운 학생관으로서의 민주적 학급운영과 생활지도수칙을 소개하는 이 책은 참교육이 들불처럼 번져 인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의를 가지게 된다. 이상석 선생님은 전교조 가입후 곧 해직명단에 올라갔다.

민족의 역사와 현실을 올바로 알게하며 참다운 인격과 더불어 사는 삶을 가르치는 내용으로의 교과서 개혁을 모색하던중에 일정정도의 성과라 할 수 있는 교과모임의 출판물도 주목할 만하다.

도서출판 「푸른 나무」에서 출판되는 「통일을 여는 국어교육」 「함께하는 도덕교육」 「살아있는 삶을 위한 역사교육」 「신나는 미술시간」 「생각하는 지구과학」 등은 민족민주통일교육을 실현하려는 교과모임의 성과로써 실제 학교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전문적 이론서로써 그 가치가 있다.

### 1주기 맞은 참교육의 함성 교실에서 문학으로 꽃피워

### 선생님, 웃음뒤의 눈물을 알아요

「세가 되어 날고 싶다. 시험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 등은 삭막한 교육현실속에 살아가는 모든이들의 가슴에 경종을 울렸던 가냘픈 여학생들이 몸으로 쓴 유서중의 일부분이다. 치열한 입시지옥의 경쟁에서 낙오한 수많은 학생들이 아파트에서, 한강물에서, 들산에서 농약으로 또는 목을 매어 죽어간다. 해마다 백여명에 달하는 미래의 꿈나무들이 꺾여져 가고 있는 것이 믿기 싫지만 믿어야만 하는 우리의 교육현장이다.

열패자 마저도 놀러야 될 경쟁상대자로 보고 입뷰대학을 위해 무한한 점수경쟁에 짓눌려 시험보는 가게가 되어버린 아이들의 잃어버린 웃음을 바로 우리 사회가 되찾아 줘야 하는 것이다.

입시위주의 지식 판매기가 되어버린 선생님이 대우을 받고, 푸른 꿈을 키워주는 선생님은 의식화 교사로 내몰리는 교육의 전당에서 이제 아이들도 참교육의 진실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

인간적이고 사랑으로 다가왔던 선생님들을 지키기 위해 89년 참스승 지키기 운동에 50만여 학생들이 참가했고 「선생님 사랑해요. 힘내세요」를 조그만 가슴에서 힘차게 외쳤다. 이런 아이들의 진정한 마음은 「선생님 사랑해요」를 통해서 묶여져 책으로 출간되었고 이것은 형식상이 아닌 진짜 사랑의 편지들이다.

학력 퇴폐적인 청소년잡지가 범람하는 메마른 현실을 딛고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직접 청소년들이 만드는 최초 무크지 「푸른나무」는 88년 6월 첫 발간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3권이 출판되었다. 바로 청소년들의 고민이고 희망사항을 게재한다는 점에서 문예활동의 기념비적 업적이라 할 수 있다.

### 글을 맺으며

이상에서 대강의 전교조 관련 출판물들을 살펴보았다. 이외에도 장희균씨의 옥중 동화-서간집 「우리아이들의 나라」, 교육 꽁트집 「학교야 학교야 뭐하니」, 참교육 노래집 「노래하나 햇병한줄」, 전교조 문화국이 만든 노래 테이프 「해맑은 웃음을 위하여」 등은 나름대로의 분야를 개척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올해로 1주년을 맞는 전교조의 참교육은 얼마 안되는 세월속에서도 꾸준히 결실을 수확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의 소질에 따라 열려진 진로가 있고, 민족의 정기가 서린 교과내용을 자유롭게 학습하고, 민주적인 학교질서가 있고, 「민주학부모회」가 교육의 주체로 당당히 나서는 것이 참교육의 본향이라면 아직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멀고 험난하다.

그렇지만 확신을 잃지 않는 참스승들이 버티고 있고 아이들의 눈망울이 새초롬히 빛나고 있는 한, 그리고 참교육의 함성에 하나되는 학부모가 있는 한 콩나무의 나이테는 계속해서 굵은선으로 그려져 나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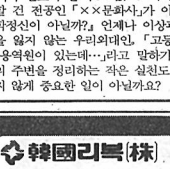
〈황선혜 기자〉

### 우리말의 쓰임새 (187) 지루하다

1989년 3월1일부터 시행된 표준어 규정을 따르면 「지루하다」가 표준어로 인정되어 있다.

표준어 규정 제11항에 따르면 『모음의 발음 변화를 인정하여 발음이 바뀌어 굳어진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하고 다음과 같은 예를 들었다. —구려(—구료), 나무라다(나무래다), 미숫가루(미싯가루), 바라다(바래다, 단 바램은 비표준어 임), 시러베 아들(실없이 아들), 주책(주착), 퍼기(트기), 허드레(허드레), 호루라기(호루루기), 상추(상치) 괄호안의 표기는 잘못된 예임.

## 작은 것이 소중합니다 ⑤



『내가 장단에 선지도 10년. 교수인 나에게는 젊은 학생들과 항상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보람이지. 민주화의 앞장이 되기도 하고, 언제나 나라와 민족의 내일에 대한 고민을 잃지 않는 대견한 모습들…. 하지만 때론 사소한 일로 제자 녀석들에게 실망을 할 때도 있어. 강의실에 들어가면 여전히 앞시간의 필기내용이 그대로 칠판에 남아 있고, 교탁속에까지 버려진 쓰레기며…. 다 큰 녀석들에게 칠판지우개 털어놔라, 쓰레기 줏어라 잔소리 할 수도 없고. 아마도 내가 먼저 가르쳐야 할 건 전공인 「××문화사」가 아니라 자율과 책임의 대학정신이 아닐까?』 언제나 이상과 정의를 향한 큰 마음을 잃지 않는 우리의대인, 「고등학교가 아니니까」 혹은 「용역원이 있는데…」라고 말하기에 앞서 강의전에 우리의 주변을 정리하는 작은 실천도 어느 큰 이상의 실현못지 않게 중요한 일이 아닐까요?

〈문화부〉

## 알게 모르게 파고드는 일본바람

### 세번째

「멀고도 가까운 나라—일본」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가리켜 이렇게 말하였다. 그러나 요즘의 두나라 관계를 보면 그러한 표현은 이미 한물(?)간 표현이라고 해야 옳을 것이다. 오히려 이제는 「가깝고도 가까운 나라—일본」이라고 해야 더 적절한 표현이 아닐까. 입고, 먹고, 보고, 듣는 것 등에 이르기까지 이미 우리생활에 불어닥친 일본바람이 우리의 사고조차도 일본식으로 변질시킬 우려마저도 낳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눈을 크게 뜨고 찾으려 하지 않아도 「일본」은 더욱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또한 「알게 모르게 파고드는 일본바람」은 일시적인 치마바람이 아닌 강풍으로 어느새 그 위세를 떨치며 범위를 넓히고 있다.

### 잡지, 왜색편집경향

「논노」 「보그」 「위드」 「스크린」 「모아」…. 몇년전부터 청소년층과 대학생들에게 가히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일본잡지들은 이제 어느 서점에서나 쉽게 구입할 수 있다. 중·고등학교앞, 대학가와 번화가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일본잡지는 대부분 밀수입의 경로를 통해 들어왔으나, 최근 일본과 우호적 관계로 전환함에 따라 명동중국대사관앞, 대학로, 강남지역에 위치한 공식적인 외서(外書)수입상을 통해 국내에 보급되고 있다. 그러나 퇴폐·음란도서가 중요부분을 차지하는 일본잡지는 아직 밀수입을 통해 들여와야만 한다. 『일본잡지말에요? 매달 5일에 들여놔요. 받아오는 곳이야 말할 수 없지요. 하지만 필요한 사람은 봐야되지 않겠어요?』라는 학교앞 한 서점주인의 말처럼 일본잡지를 수입하는데 있어서 걸리던 도덕성·윤리성의 문제는 어느덧 삭여지고 이제는 필요와 수요가 있다는 「합리성」에서 그 명분을 찾고 있다.

그러나 일본잡지의 수입문제가 왜색문화침투에 있어서 본질은 아니다. 중요한 문제는 발행인을 한국인으로 내세워 일본잡지를 번역한 그대로 보급한다는 점과 우리나라의 잡지가 일본잡지를 전면 모방하는 왜색편집경향등에 문제가 있다.

실례로 최근 새로운 개성을 창출한다는 구호아래 「마리나」라는 기획회사에 의해 발행되는 「미즈」 「랜즈라이프」는 일본자본으로 만들어지고 있음이 차츰 확인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영화잡지 「스크린」 「로드쇼」는 일본의 그것과 이름까지 동일함은 물론 편집에 있어 일본잡지와 전혀 다를 바 없으며, 이런 잡지에 자주 등장하는 환상(?)적이고 특이(?)한 사진들은 일본잡지의 사진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에 불과한 것이다.

「유럽이나 미국보다는 주로 일본잡지를 참고로 하여 편집형태를 연구합니다」라는 한국잡지협회의 한 회원의 말에서처럼 이런 흐름속에서 우리나라 잡지는 일본잡지의 편집형태를 그대로 모방하여 이제 우리는 일본잡지를 볼 때도 별다른 거부감을 느끼지 못하고 익숙한 느낌마저 들 정도인 것이다.

### 기모노식 한복

일본문화의 침투로 가장 쉽게 느낄 수 있는 분야가 바로 패션분야이다. 더욱이 왜색풍의 패션은 그 자체로만의 문제가 아닌 문화적 예속의 문제까지 안고 있다.

「긴 생머리, 얼굴빛을 모르도록 두텁게 분을 바른 하얀 얼굴, 붉은 입술, 짙은 눈썹에 까만 눈동자…」의 그야말로 「야한」 일본 여성상을 지금 우리나라 거리에서 만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원색적이고 화려한 일본풍 디자인의 옷들이 기술제휴라는 명목하에 우리나라 의류회사 상품으로 대중에게 선전되고 고급의류를 자처하는 유명 의상실·디자이너들 조차도 일본식 디자인을 그대로 국내에 유입시키고 있다. 꽃에서 패션감각을 얻는다는 「기비」라는 캐쥬얼 상표는 일본풍 의류의 대표적 경우이며 한복의 실용성을 살리기 위해 소위 「개량한복」으로 발표되는 고급외상들은 주로 일본의 「기모노」식 디자인으로 변형된 경우이다.

이러한 왜색문화는 이외에도 인테리어용품, 생활소도구, 가전제품까지 이르고 있는데 특히 각종 디자인교육에 있어 일본잡지를 통해 기초를 다지게 하는 학원들이 대부분이어서 「모방에서 창조」라기보다는 「모방의 재모방」을 가르치고 있는 실정이다.

### 일본식대로 먹자?

싸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일본은 지리적 환경속에서 생선·해조류를 많이 섭취해 왔고 또 일본인들의 기질상 대부분의 요리를 잘게 썰어 만든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먹거리 문화에까지 일본문화의 침투가 일어나고 있다. 최근 몇년 전부터 간편하다는 이유로 유행이 된 포장 「김」은 일본음식문화 침투의 대표적 예이다. 「김」을 잘게 잘라 먹는 일본인들의 식습관이 어느덧 우리 상 위에까지 오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근래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왜색주점의 문제는 심각하다 할 수 있다. 본고 앞에서만도 10여개 가량의 왜색주점이 있다는 것은 그 파급력이 대단함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한데 이들 왜색주점은 일본 향락문화의 체인점(?)으로까지 연결되어 일본자본의 침투를 쉽게하는 다리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간접적인 침투경로를 통해 우리의 생활문화를 잠식하는 일본문화의 형태는 다양하다. 때로는 언어를 통해서도, 기술제휴를 통해서도 우리생활을 변질시키는 왜색독소는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미국문화에 치이고 왜색문화에 치이는 우리의 현실을 볼때 나머지 삼분의 일만이 우리 것이라는 걸론이 나온다면 우리문화의 예속성과 자주성에 대해 다시금 숙고해야 할 때이다. 『단순히 일본문화가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다. 그것은 받아들이는 각 사람의 의식수준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나라간 문화교류를 어찌할 것인가?』라는 한 KBS기자의 말처럼 다수가 그렇게 쉽게만 생각한다면 더더욱 그러하다.

〈김연희 기자〉

韓國리복(株)

#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리복의 우리말슬로건 현상모집에 응모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입상내용을 다음과 같이 발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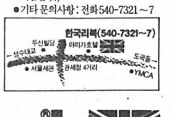
■ 당선작(상금 100만원)
김은숙(서강대 국문과4년)

■ 가 작(상금 각 50만원)
김영일(전주시 금암2동 156-1)
이상훈(강원도 원주군 흥업면 매지 2리)

■ 입 선(리복제품)
강석운(관악구 봉천4동)
강석훈(서울대 산업공학과)
강수연(아포구 신수동)
강유선(외국어대 영어과 1년)
권혁민(송파구 잠실동 5단지)
김관호(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김병수(강원도 원주시 가현동)
김비룡(연세대 법학과 2년)
김상노(연세대 무학학사)
김상미(상신여대 의류직물과1년)
김수연(이화여대 가정관리학과2년)
김수희(이화여대 정외과4년)
김지영(송파구 문정동)
나정윤(성북구 장위2동)
남현주(관악구 신림4동)
노진화(강남구 논현동)
노치석(연세대 산업과3년)
류승무(연세대 경영학과4년)
문유정(서대문구 연희3동)
박선민(성북구 정릉1동)
박종률(송파구 석촌동)
박진희(이화여대 국문과4년)
서현희(덕성여대 심리학과3년)
송주호(연세대4년)
송찬주(이화여대 경제학과3년)
신용호(경기도 송탄시 신장동)
안병민(건국대 생물학과1년)
안수진(서울대 국어교육과1년)
안일봉(연세대 상경대학)
윤여동(동작구 흑석3동)
윤유미(연세대 영문과4년)
윤종철(인천시 남동구 만수1동)
윤희진(이화여대 경제학과3년)
오미숙(동작구 노량진1동)
이경순(한양대 독어국문학과4년)
이기철(아포구 빈수동)
이동기(외국어대 독어과3년)
이동현(대구시 동구 용계동)
이범근(서강대 영문과)
이 숙(동대문구 청량2동)
이소연(서초구 방배본동)
이승원(송파구 방이동)
이유진(강원도 춘천시 효자2동)
이윤하(서대문구 북가좌2동)
장경건(한양대 보험경영학과2년)
장나리(이화여대 철학과3년)
정문기(서강대 경제학과4년)
진형철(건국대 영외과2년)
최영규(종로구 숙직동)
한동진(연세대 경제학과3년)

■ 심사위원
이인구(서울예전 광고창작과 교수, 프리랜스 카피라이터)
조병량(한양대 광고홍보과 교수, 광고학 박사)

■ 시상안내
● 입상하신 분들에선 오는 6월 14일~6월 20일 사이에 한국리복 본사(강남구 논현동) 4층 마케팅부로 오셔서 상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증 또는 학생증을 휘히 지참할 것)
● 기타 문의사항 : 전화 540-7321~7




Reebok
Because life is not a spectator sport.™

◇중흥외대 학원자주화, 그 올바른 방도를 제시한다

# 교수공개채용에 학생도 참여해야

〈11〉 교수공개채용에 대한 제언

보되기획

I. 머리말

대학이 진정한 학문·사상의 자유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학원은 모든 억압의 굴레로부터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학의 인적구조 부분에서 해서, 본교 신규교수채용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올바른 방안을 모색해 보고, 동시에 「교과과정개편위원회」건설의 필요성을 제기해보고자 한다.

II. 위기에 처한 교권

얼마전 개정된 사립학교법은 인사권에 있어서 교수와 사무직 교직원의 임명권을 총·학장으로부터 학교법인 이사장에게 넘겨주었고, 총·학장 임명권도 이사장에게 존속시킴으로써 최근까지 대학가에서 계속 요구되고 있는 총·학장 직선제를 사실상 원천적으로 가로막았다.

또한 올해들어 일부 사립대학에서 정부와 재단에 비판적인 교수들을 해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지난 88년 이후 사문화(死文化)되다시피한 「교수임용제」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더불어 교수의 임명기간을 정할 수 있게 하였고 「명예퇴직교수제」와 「임시교원임용제」등을 신설함에 따라, 교수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권고사직이나 해직이 남용될 소지가 매우 높을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교수정계 제심권을 각 사립대의 제심위원회에서 문교부 제심위원회로 이관, 이제는 교수라는 신분마저 위태롭게 되었다.

하지만 대학인 모두가 대학내의 인사권은, 대학의 실질적 주체인 교수·학생이 외부 압력을 받지않고 자율적으로 실행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확고히 견지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신규채용·제임용·승진등 일체의 인사문제는 대학내의 객관적 판단기준에 의거해 이루어져야 함은 정당한 요구이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으로 정부의 과행적인 정책에 대처하고, 전보적인 학문공동체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현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신규교수채용 문제등 인사제도를 신중하게 재고해 보아야 할 필요성이 한층 더 제기되고 있다.

III. 본교및 타대학 교수채용 방식

국내 사립대학들의 일반적인 교수채용원칙을 보면, 교원을 신규채용함에 있어 학연·지연 변경함으로 되어있다.

이상의 본교 신규교수채용에 있어 지적되는 문제점은 바로 「공개성」이라는 점이다. 학원의 주인으로서 교수와 학생이 신규교수채용에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고, 학교와 교수간의 일방적인 편협된 공개라는 점이다. 또한 학연과 지연에 의한 정실인사를 배제할 수 있는 제도적 감시기구가 미흡하고, 간혹 학교당국의 고위직급 인사와 연줄에 의해 이미 특정인을 내정해 놓고 응시자를 모집, 실제로 공개채용은 형식적인 절차레에 불과하다는 것이 몇몇 교수들의 지적이다.

타대학 실례로 동국대에서는 지난 88년 학생들이 학교발전을 위하여 제시하였던 여러가지 학자에 관한 건설적인 의견들을 수렴, 학교측과 작년 2월 22일 합의를 보았다. 교과과정위원회 영역에 관한 사항중 신규교수초빙 문제 절차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초빙분야 결정:교수를 초빙할 필요가 있을때 초빙교수의 영역은 해당학과 교과과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응모서류의 관리:관계서류는 (이력서, 연구업적등) 교무처에서 접수하고 중앙교과과정위원회가 모든 서류를 확인·봉인한 후 해당 대학 교과과정위원회에서 서류전체를 인계한다. ③응모서류 검토:해당학과 교과과정위원회는 대학교과과정위원장과 간사 주재하에 인계받은 제반 서류를 검토한다. 단 위원장은 소속대학장, 간사는 소속대학 교과과정위원회 학생대표로 한다. ④초빙교수 결정과정:학과 교과과정위원회는 서류를 검토한 후 후보약간명을 선정한 다음 연구 발표과정을 거쳐 교수전원, 대학원장, 학부생의 종합된 여론수렴결과를 토대로 순위를 정해 복수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학과 주체들의 직접참여방식에 의해 후보의 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⑤초빙교수의 최종결정:각 대학 교과과정위원회는 해당학과 교과과정위원회에서 순번을 정해 복수추천된 초빙교수후보및 제반 서류를 수합하며 중앙교과과정위원회에 회부하고, 중앙교과과정심의위원회는 이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제청한다. 총장은 추천된 후보중 1인을 선정하여 인사위원회에 회부한다. 이 경우 추천된 후보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때는 총장만이 해당학과 교과과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처럼 동국대에서는 교수·학생 모두가 직접적으로 참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민주적 형태의 「교수공개채용」제도를 창출해 냈다.

이외에도 부산대의 경우 행정학과 학생들이 지난달 23일 공개강의를 통한 교수제임용제 실시를 요구하며 집단휴학을 결의한 상태이고, 성균관대에서는 학기초 일부학과에서 진보적인 교수영입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농성으로 진통을 겪었다.

또한 89년 1월12일 전남대 독어독문학과에서는 113일간의 장기농성끝에 국내최초로 백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교수임용공개강의」가 실시되었다. 결국, 교수·학생공동운영위원회에서 응시자의 전공분야 학문경향성, 학문성과도등을 종합하여 부적격 판정을 내렸지만, 교수채용과정에 학생의 참여가 이루어진 것은 획기적인 성과를이었다.

(544호에 계속)

〈기획부〉

# 개악사립학교법으로 교권 심각한 위기상황

## 신규교수채용에 학생참여는 교권수호의 초석

학원의 특성상 교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민족자주교육의 측면, 학문·사상자유의 측면, 사회 발전을 위한 고급인력 계생산등 여러면에서 막중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얼마전 개정된 사립학교법은 교권을 심각한 위기상황으로까지 약화시켜 놓았다. 따라서 교수·학생이 참여하는 속에서 우수한 교수를 임용함으로써 대학구성원 스스로가 교권을 수호하고, 학교와 학과 실정에 맞도록 교과과정을 개선, 전문적이고 진보적인 학문을 탐구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교수임용에 대한 타대학들의 모범적인 사례들을 통해 본교 신규교수채용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올바른 방안을 모색해 보고, 동시에 「교과과정개편위원회」건설의 필요성을 제기해보고자 한다.

II. 위기에 처한 교권

얼마전 개정된 사립학교법은 인사권에 있어서 교수와 사무직 교직원의 임명권을 총·학장으로부터 학교법인 이사장에게 넘겨주었고, 총·학장 임명권도 이사장에게 존속시킴으로써 최근까지 대학가에서 계속 요구되고 있는 총·학장 직선제를 사실상 원천적으로 가로막았다.

또한 올해들어 일부 사립대학에서 정부와 재단에 비판적인 교수들을 해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지난 88년 이후 사문화(死文化)되다시피한 「교수임용제」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더불어 교수의 임명기간을 정할 수 있게 하였고 「명예퇴직교수제」와 「임시교원임용제」등을 신설함에 따라, 교수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권고사직이나 해직이 남용될 소지가 매우 높을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교수정계 제심권을 각 사립대의 제심위원회에서 문교부 제심위원회로 이관, 이제는 교수라는 신분마저 위태롭게 되었다.

하지만 대학인 모두가 대학내의 인사권은, 대학의 실질적 주체인 교수·학생이 외부 압력을 받지않고 자율적으로 실행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확고히 견지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신규채용·제임용·승진등 일체의 인사문제는 대학내의 객관적 판단기준에 의거해 이루어져야 함은 정당한 요구이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으로 정부의 과행적인 정책에 대처하고, 전보적인 학문공동체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현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신규교수채용 문제등 인사제도를 신중하게 재고해 보아야 할 필요성이 한층 더 제기되고 있다.

III. 본교및 타대학 교수채용 방식

국내 사립대학들의 일반적인 교수채용원칙을 보면, 교원을 신규채용함에 있어 학연·지연 변경함으로 되어있다.

이상의 본교 신규교수채용에 있어 지적되는 문제점은 바로 「공개성」이라는 점이다. 학원의 주인으로서 교수와 학생이 신규교수채용에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고, 학교와 교수간의 일방적인 편협된 공개라는 점이다. 또한 학연과 지연에 의한 정실인사를 배제할 수 있는 제도적 감시기구가 미흡하고, 간혹 학교당국의 고위직급 인사와 연줄에 의해 이미 특정인을 내정해 놓고 응시자를 모집, 실제로 공개채용은 형식적인 절차레에 불과하다는 것이 몇몇 교수들의 지적이다.

타대학 실례로 동국대에서는 지난 88년 학생들이 학교발전을 위하여 제시하였던 여러가지 학자에 관한 건설적인 의견들을 수렴, 학교측과 작년 2월 22일 합의를 보았다. 교과과정위원회 영역에 관한 사항중 신규교수초빙 문제 절차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초빙분야 결정:교수를 초빙할 필요가 있을때 초빙교수의 영역은 해당학과 교과과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응모서류의 관리:관계서류는 (이력서, 연구업적등) 교무처에서 접수하고 중앙교과과정위원회가 모든 서류를 확인·봉인한 후 해당 대학 교과과정위원회에서 서류전체를 인계한다. ③응모서류 검토:해당학과 교과과정위원회는 대학교과과정위원장과 간사 주재하에 인계받은 제반 서류를 검토한

# 여학생 대표기구 과단위 활성화 시급

심층분석 ■여학생 대표기구 점검

본교 학부생의 40%이상을 구성하고 있는 여학우들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며 이들 자치활동의 적극보장과 학원및 사회내부속에서의 남녀차별을 철폐하려는 취지로 건설된 여학생대표기구가 일반 여학우들의 참여의식 부족과 집행부의 지도력 미숙및 학내대중의 인식미흡으로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1984년 문교부의 「학원자율화조치」이후 이에대한 학원민주화부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학생회가 부활되면서, 학생운동이 전국적 범위의 대중운동으로 전환을 이루게되자 다양화된 학내외전을 학생회사업으로 심도있게 진행시켜 나가기 위한 여학생운동·동아리연합 등의 각 부문별강화가 요구되었고 이후 87년 6월항쟁과 7·8월 노동자투쟁속에서 기층여성운동이 강화되는 제반 움직임에 발맞추어, 서울시내 32개대학(4개여대 포함) 15만 여대생들의 대표기구인 「서울지역 여대생대표자 협의회」가 발족되었다. 「여대협」의 참가자격이 남녀공학의 경우 직접선거를 거친 여학생대표 혹은 여학우들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는 조직의 대표이고, 여대의 경우 총학생회장이나 그가 위임하는 사람으로 규정되어있는 것과 전반적인 여성부문운동의 중요성이 맞물려 각대학 총학생회산하 「여학생부」정도의 자리를 차지하던 「여학생자치기구의 활성화」가 시급히 모색되어 왔다.

그리하여 본교의 경우 88년 2학기에 서울캠퍼스는 과도기적 단계인 「여학생위원회」가 구성되어, 현재까지 여학우의 실질적 주체인 과단위를 강화시켜 총여학생회(이하 총여)건설을 위한 사업에 매진하고 있다.

용인캠퍼스는 「총여건설준비위원회」로 기존에 있던 의존적 구도에서 과감히 탈피하였다. 다음해인 89년 1학기 총전을 거친후 제1대 총·여가 건설되어 기획부, 교육부, 편집국 등 집행부의 위상과 체계들을 정립해나갔다. 먼저 「여학생위원회」의 그간 성과물들을 보자면 가장 큰것이 외대내 여학생들의 자신에게 내재되었던 문제에 대한 자각과 학내의 이제반 불평등적 요소들을 차츰 홍보해 나갔으며 이런 변화에 따라 비록 동·서양어대 두 단대 중심이기는 하나 과주체들이 세워져있다. 이들 토대로 월1회 여대표간담회 개최, 매학기 여학생대동제 프 실시와 연대사업분야로 하계농활의 여성농민운동에 관한 계획등이 이번 1학기 사업계획이고 다음학기 정도에 「여성학교」를 설치·강좌할 예정이다. 이처럼 아직까지는 과여학생회 건설에서 조차 많은 난관에 부딪혀 사업준비가 부족하다.

**여학생운동의 목적은 부문별 힘을 조직화하여 전체역량을 강화시키는데 있다**

용인캠퍼스 「총여」의 경우는, 사회과학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단대·학과별 주체가 세워져 있고 집행부 부서간의 분화가 이루어져 사업의 진행에 조금은 발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탁아사업」의 경우, 자율적·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학내책임주체들을 발굴해낼 수 있었으며 「성남지역탁아소위원회」와의 연대사업 전개도 실시하는 등 활발히 진행되고는 있으나, 여학생운동의 중요부분인 「취업차별철폐투쟁」에 대한 활발한 사업이 아직은 미진한 단계이고 이에 대한 홍보작업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상으로 각 캠퍼스의 「여위」와 「총여」의 사업진행에 관해 그리고 그 의의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러면 각캠여학생대표 사업추진과정에서 그동안 노정된 오류의 원인 및 이의 대치방안을 모색해 본다면, 첫째로 각 기구들의 올 1학기 사업목표에서도 알수 있듯이 하부조직의 미약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서울캠퍼스의 경우 서양어대 9개과, 동양어대 7개과만이 여학생부가 존재하며 여학생수가 많아 여학생부가 따로 필요치 않다는 사람대나, 적은수의 여학생들로 여학생부를 만들수 있겠느냐는 법·정계열의 경우 여학생운동(이하 여학운)에 대해 이해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용인캠퍼스의 경우 각단대·각과별 책임주체가 대체로 명확하나, 사회과학대의 경우 여학생 총인원이 약50명 정도이고 대부분이 여학생활동에 대한 관심부족으로 열악한 상태이다.

둘째, 여학운을 주도해나가는 집행위원들의 사업에 대한 경험미숙이다. 여학운을 학내 여성자치기구를 통해 실천해나가려는 움직임은 87년도부터 일기시작했으며 현시기는 집행위원들의 창의력과 헌신적 노력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담당주체들을 발굴하지 못한 것과 이로인한 사업의 단절성이 매시기사업에 대한 과학적 접근의 걸림돌이 되고있다.

마지막으로, 여학운을 바라보는 학우대중(남학우건 여학우건)의 편향되고 협소한 관점에서 비롯되는 문제점을 들수 있다.

민주화를 부르짖는 대학내에도 남·녀간의 불평등요소는 잔존해있다. 이러한 요소는 사회구조적 모순과 밀접히 관련된 문제이므로 여성운동에 대해 모든 학원 구성원들의 보다 세심한 관심과 적극적인 태도가 요구된다. 여학생모임에 대한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여학운을 부문운동 강화로 파악할때, 현시기 청년학생운동의 과제들을 보다 힘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신나영 기자〉

## 신(新) 통석의 념

·○…본인은 우리나라에 의해 초래된 불행한 시기에 귀국 국민들이 겪었던 고통을 생각하고 「통석의 념」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이 「통석의 념」을 통해 지금부터 귀국 국민들이 받게될 고통에 대해 「신(新) 통석의 념」을 금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본인의 「신(新) 통석의 념」과 귀국 대통령 노××의 방일로 먼 훗날 우리 국민이 또다시 반복하게 될 「통석의 념」에 대해 전심으로 「통석의 념」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일년은 분명 사계절인데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하느라 그런지 민자당분쇄투쟁에 전념하느라 그런지 이 문필흉산들에겐 여름과 겨울만 있는 모양.

땅값 올라 물가 올라 게다가 이제는 사람값까지 올라 모내기철을 맞는 천하의 근본(天下之大本)인 농민들 마음은 손바닥 갈라지듯 하다는데….

여름농활만 있는 줄 알고 신경스위치를 꺼버린 흙산님네들! 우리 농부님네를 놓사는 일년내내 잣는 것임을 각인하시길.

○…신성한 학원에, 신성한 생일잔치에 고기굽는 냄새가 풍기기는 커녕 난데없이 불청객 잠조가 최루탄 냄새를 풍기며 날라와 생일잔치를 방해하려다 혼쭐만 나고 쫓겨났다고.

사연인즉, 지난27일 경희대에서 있은 전교조 1주년 기념식에 잠조가 난입하여 무자비한 폭력으로 이를 방해하려다 비폭력을 외치며 온몸으로 이를 막아내던 선생님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학원밖으로 내몰린것이 바로 그것. 아무때나 나타나 폭력을 휘두르는 잠조에게 참교육을 실시해 버릇을 고쳐봄이 어떨지.

○…이문벌 스무여드레 새까만 새벽부터 그리는 누구를 위하여 흙산들의 입과 귀를 틀어막는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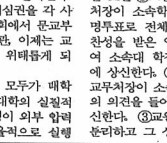
수화기에서 후추가루가 나와 식도를 비틀었나, 통과리가 나와서 귀를 틀어막았나, 아니면 뒷집지고 전화걸다 복통이터졌나, 암전한 전화통 때려부수긴 왜 부숴.

그대 꿈결에 공중전화박스를 민×당 사무실로 오인하고 범한 실수로 앞고 크로니클사 딱 한번 용서하는바, 세상 복잡할수록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가길 드끔하게 충고하오.

○…평화를 상징한다는 비둘기는 최루가스 자욱한 하늘위를 힘찍대며 날아다니고, 민주위해 분기했던 너의 열혈은 지랄한 연기에 휩싸여 붉은 상처무성이로, 우리의 분노도 들을 수 없는 모습으로 들아왔구나.

경태야… 보이는 구나 지들이 불길에 휩싸여 허물어지는 모습이 그리고 아우성이.

분노의 불길



제2회
전국대학(원)생 논문현상공모

작은 꿈도 소중히하는 저희 국민은행은
고객에게 보다 나은 금융편의를 제공하고,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대처하기 위하여 대학(원)생 여러분의 우수한 논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패기와 역량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논제 : 다음중 택일
● 2000년대의 금융환경변화에 대응한 국민은행의 발전방향
● 금융자유화, 국제화에 따른 은행마켓팅전략
● 경제발전을 위한 기계저축의 역할과 증대방안
●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당면과제와 육성방안
● 기계와 소규모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활성화 방안

상금 및 시상
● 상금
- 대상(1편) : 300만원과 상패
- 금상(2편) : 각 100만원과 상패
- 은상(3편) : 각 50만원과 상패
- 동상(5편) : 각 30만원과 상패
※ 응모자 전원에게 기념품 증정
● 시상 : 시상일시와 장소는 추후 개별 통보함

응모요령
● 응모자격 : 전국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 원고매수 : 200자 원고지 100매 내외 (10매 내외의 요약문 1부 첨부)
● 응모마감 : 1990. 9. 10
● 당선작 발표 : 1990. 10. 30 (개별통보 및 경제신문에 게재)
● 2인이상 공동응모 가능
● 제출처 : 우편번호 100-703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2가 9-1 국민은행 조사부 논문현상담당자앞

특전
대상및 금상 수상자가 당행 입행을 원할 경우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채용시 우대함

유의사항
1) 논문제출시 주소, 성명, 전화번호를 명기하고 재학증명서 1부를 첨부할 것
2) 제출된 논문은 일절 반환하지 않음
3) 당선작의 저작권은 당행 소유임
4) 기타 사항은 논문현상담당자에게 문의바람(전화 771-40, 교 2596)

언제나 내집 같은
국민은행

英字 日刊紙 The Korea Herald 直營
신문구독신청 ☎ 778-4388, 778-0834

외국어특강
개강 ➡ 6월 1일
독해
Korea Herald사설, Time, Digest 영문해석등 철저한 분석독해
회화
Practical English, Side by Side American Stream-Line 민병철생활영어, 미국인 회화
영작, 어휘력, 청취력
기본영작문연구, Vocabulary 22,000 Movie English TOEFL L/C 및 미국어 Hearing, AFKN
TOEFL
아카데미 TOEFL, TOEFL, L/C
종합영어 (입문→고급)
미국식교과서영어→기초영어완성→영어실력기초→성문기본영어→성문종합영어
동시통역대학원 입시반
외대동시통역대학원 입학을 위한 1일 4시간 집중코스
일 어
일본인회화/박성원(입문→고급) SCREEN 회화, NHK필름/동경일본어/비즈니스일어
제2외국어, 불, 중, 서반아, 독어
지하철 2호선 을지로 입구역 열 757-0419
코리아헤럴드 외국어학원

시청각 영어회화 과정
◆ 제67기과정 모집 안내 ◆
개 강 : 1990년 6 월 7 일
교육방법 : American Streamline English와 Most extensive A/V program을 이용한 시청각 교육 회화과정.
반 편 성 : 개인별 테스트후 수준이 비슷한 수강생들로 한반 12명이내로 반편성.
● 수준테스트는 매일2회 실시합니다 (11 : 30AM, 6 : 30PM)
교육과정 : 1일 2시간 주5일(월~금) 수업, 기초부터 최고급까지 6개 수준 각 8주과정.
강 사 진 : 미국 Harvard 대학출신등 고학력 수준의 전원 Native Speakers.
◆ 수업시간 ◆
7 : 00~8 : 45AM 10 : 00~12 : 00AM
5 : 00~7 : 00PM 6 : 00~8 : 00PM
7 : 00~9 : 00PM 8 : 00~10 : 00PM
● TOEFL 종합반, 러시아어
● 한국말 (Korean Language Courses)
지하철 4 호선 명동역 입구 756-7711
코리아헤럴드 어학연수원

외국어 교육, 최고의 자부심
파고다외국어학원

외국어 학습 성공자중에 외국어 정복에 대한 어드바이스를 구하면, "제대로 외국어 배우려면 파고다 외국어학원에 다녀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많이 만난다게 된다. (특히 지식인 층에서) 이것은 바쁜 시간을 쪼개어 학원을 찾는 수강생들에게 하루하루 성취감을 주자는 파고다학원의 모토가 강의시간 시간마다 진지하게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수강 첫날, 최고의 교수진이 펼치는 명쾌한 강의가 외국어 정복의 자신감을 준다.

종로2가 파고다공원 건너편 흰빌딩
274-4000, 274-6821~2

I CAN DO

# 노동자와의 대동의 장

## 용인 대동제 막올라 6월 1일까지

용인캠퍼스 대동제가 어제(28일) 오후1시 극단현장의 「돈 놀부전」 공연에 이은 개막식을 시작으로 오는 6월1일(금)까지 진행된다.

「민자당 완전분쇄와 남북한 전면개방·자유왕래 실현을 위한 애국외대 대동풀이」라는 제목으로 초청강연회, 노래공연, 마라톤 대회등 40여개의 각종 행사가 열리는 이번 대동제는 특히 노학연대의 밤, 노동자 주점, 농산물직판, 농민사진전 등을 통한 노동자, 농민과의 연대행사가 상시적으로 열리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대동제에 대해 총학생회장 이영록(동학·아프리카어4)군은 『고양된 반미·조국통일 투쟁, 반 민자당투쟁을 노학연대행사등을 통해 목적의식적으로 이번 대동제에 결합시킬것』이라며 『이후 대중적인 6월 항쟁으로 이어지는 대동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늘 (29일)이후 대동제 주요행사는 다음과 같다.

**평화의 날(29일)** △제2회 용성지구 농구대회—오전10시, 대운동장 △동아리인운동회—오후3시, 대운동장등 △왕산노래콘잔치—오후2시, 야외무대 △정태춘과 함께—오후4시, 야외무대 △노학연대의밤—시간·장소미정.

**민족대단결의 날(30일)** △전통놀이대회—오후2시, 명수당앞 △전기록대회—오후2시 자연과학관 앞

**통일의 날(31일)** △모의가두시위—오후3시, 용인캠퍼스 전역 △여성 큰들살이(대동제)—오후8시, 명수당 잔디밭 △교수·교직원·학생 한마당—오후4시, 야외무대.

**대동의 날(1일)** △전통춘례식—오후1시, 명수당앞 △풍일전문 마라톤 대회—오후4시, 대운동장 △노동자 노래단 초청공연및 폐막식—오후6시, 대운동장.

## 용인교통요금 약 35% 인하

### 25일부터 동서울·양재 4백90원

용인캠퍼스 교통요금이 지난 5월25일(금)부터 약35%인하, 동서울 4백90원, 장실4백60원, 성남 3백30원, 사당 5백50원, 양재 4백90원등으로 결정됐다.

인권복지위원회(이학 인복위)에 따르면 이같은 요금인하는 학교측과 지입제버스회사인 경기·대원 여객과의 협의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인하분 상당의 지원금이 학교측에서 지급될 예정이라고 한다.

또 학교·학생 대표로 구성된 교통대책 소위원회는 주말·휴일노선을 오는 6월초 신설키로 했으며 「방학 노선,신설문제를 계속 논의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인복위는 주말·휴일노선 신설을 위해 지난 23일(수)부터 설문조사를 실시, 주말과 휴일 등교하는 학생수와 등교시간대를 조사하고있다.

## 전대협, 미대사관 방문

### 광주학살사과·그레그 소환등 요구

본교생2명 포함, 전대협소속 대학생8명은 지난 22일(화)오전9시30분경 미국대사관을 방문, 미국행정부와 주한미대사에게 보내는 「광주민중항쟁 10년과 현안정치에 대한 전대협의 대미요구서한」을 전달하려다 전원 연행되었다.

박영창(서학·이태리어2), 한영(인문·언어2) 이수원(한양대법대 학생회장)군등 서총련과 용상총련소속학생들로 구성된 방문단은 공개서한을 통해 △광주민중항쟁당시의 학살만행에 대한 미국의 직접개입시인, 공개사과 △공작정치 내정간섭 중지와 그레그 미대사 본국소환 △주한미군·핵무기철수 △수입개방압력중단등을 요구했으며 「광주학살 배후조종 민자당 산파역 미국은 물러가라」라는 현수막을 들기도 했다.

한편 26일(토) 오후1시30분경에도 전대협은 방문단을 구성, 전대협의 공개서한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였으나 참가 학생 23명 모두 연행되었다.

## 아거스 학술대상 논문, 번역, 수필공모

본교 영자신문사 디—아거스(The Angus)는 전국대학인의 진전한 학풍진작을 위해 전국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오는 8월31(금)까지 「제11회 아거스 학술대상」원고를 공모한다.

인문사회과학분야의 논문, 번역, 수필을 모집하는 이번 아거스학술대상의 참가를 원하는 학생은 학생회관2층 영자신문사 학생기자실로 작품을 제출하면 된다.

## 서울총학, 노태우 방일규탄

### "종속경제·군사동맹위한 매국 방일"

서울캠퍼스 총학생회는 지난 5월24일(목) 노천극장에서 2백여명의 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독원침탈 분쇄 및 노태우매국방일규탄 애국외대 실천대회」를 열었다.

5월19일(토) 있은 전대협출범식 보고와 최근의 경찰학대 난입을 규탄한 이날 집회에서 총학생회장 김기석(동양·아랍어4)군은 노대통령의 방일에 대해 △미·일에 종속된 경제체제의 강화 △영구분단을 위한 군사동맹체제 확립 △반통일 매국정권의 존속을 위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반민자당, 반전반핵 군축운동을 통해 매국방일의 본질을 분쇄하자』고 주장했다.

또한 부총학생회장 박상근(서양·영어4)군은 전대협출범식 보고에서 『이번출범식은 전대협의 강철대오를 확실히 입증한 좋은 계기였다』며 『본교는 타대학의 선봉으로 4백여명이 참석해 투쟁의 모범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 교육악법 반대결의 서사협 결의대회서

「서울지역 사범대학 학생회협의회」는 지난 5월25일(금) 오후2시 성균관대 노천극장에서 본교, 단국대, 성균관대 등 10개대학 3백여명의 사범대학 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교원양성 사범대 단일화와 전교조 합법성쟁취를 위한 서울지역 예비교사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에서 학생들은 교원종합대책안과 교원지위법등으로 민주교육을 탄압하는 문교부정책에 맞서 목적대(大)로서의 사범대를 사수하고 교육악법의 개정을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하였다.

## 「동양학대체전」개최 아랍·마인 공동우승

용인캠퍼스 동양학대 학생회에서는 지난 23, 24일(목) 양일동안 대운동장에서 1백여명의 학생이 참가한 가운데 「제3회 동양학대 체전」을 개최하였다.

이틀동안 축구, 배구, 농구, 씨름, 줄다리기, 여자소프트볼 등이 진행된 이번 체육대회에서 아랍어과와 마인어과가 공동우승을 차지하였다.

한편, 20일(화) 대운동장에서 사회과학대학체전이 열리기도 하였다.

## 서울FBS 가요제예선 50여개팀 경합

지난 5월26일(토) 대학원 소강당에서 있었던 제11회 FBS 외대가요제 예선에서 「장난」을 부른 「외대통기타연주회」등 11개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이날 예선에 총 50여개팀이 참가, 열띤 경합을 벌였던 이번 가요제는 오는 6월1일(금) 오후6시 대운동장에서 본선을 개최한다.

## 서울총무부장 신효식군 구속

### 작년교지에 임대표사진게재 관련

서울캠퍼스총학생회 사회부장 김사용(동양·아랍어4)군의 구속에 이어 총무부장 신효식(상경·무역4)군도 지난 24일(목)구속되었다.

지난해 교지편집위원회 편집장이었던 신군의 구속은 교지 제25호의 기사중 임수경양 방북사진의 출처와 관련되어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 제작 혐의인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지난5월14일(월)자로 구속된 김사용군이 28일(월)까지도 구치소로 이감되지 않은채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받는중이고 신군도 남영동대공분실과 용산경찰서에서 계속 조사중인것을 볼때 경찰의 사건조작및 은폐의 가능성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여학생대동캠프」열려

### "여성문제 인식 계기 돼"

서울캠퍼스 여학생위원회(이하 여위)주최 「제2회 여학생대동캠프」가 지난 5월26일(토), 27일 양일간 속리산 유스호스텔에서 40여명의 여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하나되는 우리」를 주제로 한 이번 대동캠프는 만화슬라이드 「여성의 역사」 상영과 「여성해방」에 관한 토론, 민속악놀이반의 지도에 따른 대동놀이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대동캠프에 대해 여위 편집부장 조경운(서양·포어4)양은 『여성문제를 올바로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며 문제점으로 『여학생들의 지조한 참여와 체계적이고 신속성있게 진행되지 못한 프로그램 등이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말했다.

## 서대복학생체육대회 복학생 참여를 마련

서암어대 학생회 복지부는 지난 5월26일(토) 노천극장에서 60여명의 학생이 참석한 가운데 복학생간의 친목도모를 위한 「서양어대 복학생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각과별 축구대회와 축구등이 진행된 이날 체육대회에 대해 복지부장 조규남(서반어어2)군은 『이번행사가 복학생의 행사참여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일조를 했다』며 『복학생들간의 토론을 통해 과별 체육교류를 활성화하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고 말했다.

## 서울 총학 문화부 시월제 준비위원모집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문화부는 오는 10월중 치뤄질 「시월제」(가칭)를 기획하고 실무를 맡을 준비위원을 오는 6월5일(화)까지 1차모집한다.

본교 특성을 살린 외대인의 대동회 장이 될 「시월제」는 원어예술제, 학술제, 모의유엔총회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재입찰등으로 두달여지연

### 도서관 지하공사 6월 1일 착공

지난 4월초부터 계속 미뤄져온 서울캠퍼스 도서관지하 휴게실화 공사가 늦어도 오는 6월1일(금)부터는 착수돼 방학중에야 완공될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5일(화) 공개입찰을 통해 인테리어업체인 「디자인 카사(KASA)」가 공사를 맡는것으로 결정됐으나 21일(월)입찰액이 공시수치에 맞지 않음을 이유로 이회사가 공사포기원을 제출, 지난 24일(목) 재입찰을 통해 「에이원(A—One)디자인」회사가 공사를 맡게됐다고 한다.

처음 입찰액이 7천8백60만원(각종 집기비용제외)인것에 비해 재입찰액은 1천4백25만원이나 오른 9천2백85만원으로 다시 결정되었는데 이와관련 복지위원회 한 관계자는 『학교측의 과실로 입찰회사가 공사를 포기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며 예빈 입찰엔 입찰보증금을 받았다고 밝히고 『입찰가격이 오른 만큼 최고의 기계를 공사에 새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영화상영안내〈5월29일(화)~6월4일(월)〉

| 영화명 / 날짜 | 서울캠퍼스 | 용인캠퍼스 |
|---|---|---|
| 29일(화) | 무기여 잘있거라 (A Farewell to Arms) | *대동제관계로 쉽니다. |
| 30일(수) | | |
| 31일(목) | | |
| 1일(금) | Mrs. Miniver | |
| 4일(월) | | *미정 |
| 상영시간 및 장소 | 매일 오후2시 시청각실 비데오룸(2202호) | 매일 오후3시 어문학관 비데오룸(1406호) |

*이프로그램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교직원동정

◎교직원 낚시회 「5월 정기출조」

본교 교직원 낚시회(회장 석일균교수)는 지난 5월26일(토) 충북 충주호에서 「5월 정기출조」를 가졌다.

## 학과움직임

◎서울, 불어과 「5월학교」개설

서양어대 불어과는 오늘(29일)부터 31일(목)까지 3일동안 「지금은 우리가 만나서」라는 주제로 5월학교를 개설한다.

이번 5월학교는 비데오(VTR)상영, 「참교육만세강연회」 대동의 날등의 행사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철학과 「대동의 날」 마련

인문대 철학과 학생회는 오는 5월31일(목)오후1시 소운동장에서 철학과 학생들의 친목과 단결을 도모하기위해 체육대회와 「철학과 가요제」등을 개최한다.

◎서울 아랍어과 김시용군 영치금마련위해 「하루찻집」열어

서울캠퍼스 아랍어과는 「김시용군 영치금마련을 위한 하루찻집」을 오는 5월30일(수) 미네르바동산에서 갖는다.

◎서울 일본어과 「연수설명회」개최

동양어대 일본어과 주최, 일본어문화원 후원 「일본유학및 연수 설명회」가 오는 5월30일(수)대학원 210호에서 개최된다.

## 동아리소식

◎서울 한사랑선교회 「하나님의 눈물」상영

서울캠퍼스 한사랑선교회는 오는 5월30일(수)오후5시 대학원 104호에서 바실레아 슈랑크의 「하나님의 눈물」을 상영한다.

◎「새물결」정기공연

노래모임 「새물결」은 제10회 정기공연 「우리미래를 짊어진 그대」를 오는 5월31일(금)오후4시 노천극장에서 개최한다.

◎용인 연극반 연결, 워크샵공연

용인캠퍼스 연극반「연결」은 오늘(29일) 오후4시 교양학관 401호에서 제4회 워크샵 「굿닥터」를 공연한다.

◎용인 탈반 「마당극」 공연

용인캠퍼스 동아리 탈반은 오늘(29일) 오후6시 명수당앞에서 마당극을 공연한다.

## 바로 연기

### 일본정보센터를 찾아서

일본어과의 특성을 살리는 원서중심의 공부를 통해 일본의 정치·경제·문화등 일본사회 전반에 대하여 올바로 인식하고 이러한 성과물을 널리 홍보하여 외대생들과 공유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캠퍼스 노천극장 지하에 자리잡고 있는 「일본정보센터」를 찾아보았다.

이 일본정보센터는 올해 과회장으로 선출된 최재성(3학년)군이 작년 과회장선거시, 일본어과의 발전을 위해 내세운 공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지난 3월중 설립되었다. 현재 일본어과를 중심으로한 교수들과 종로에 위치한 일본어문화원으로부터 책이나 자료등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회원수는 충해을 말고있는 이민석(3학년)군을 비롯한 7명으로 구성되어있다.

당면 사업계획으로는 이번 하계방학 기간중 일본여행이나 연수및 장레에 유학을 계획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적은 비용으로도 효과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끔 5월30일(수) 오후5시 대학원건물 210호에서 「일본유학및 연수 설명회」를 일본어문화원 후원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그러나 홍보작업의 부족으로 회원수가 많지않아 역할분담을 담보해내기 위한 부서별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로인해 향후 사업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이 잡혀있지 않다.

『아직까지 서적·자료가 부족하여 과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않지만 이번 하계방학동안 2학기 사업방향에 대한 구체적 계획및 일본을 통해 들어온 최신자료를 입수, 과문고·자료배치등을 통해 과의 발전에 이바지 할 것입니다.』라며 앞으로의 포부를 밝히는 이민석군은 이외에 『현재 과에서 1년 지원에 산으로 책정된 금액은 3심만원이지만 실질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이에 크게 못미치고 있어 대부분의 운영자금을 회원들로부터 각출하여 힘들게 운영되고 있습니다.』라며 애로사항도 이야기한다.

일본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과의 특성에 맞추어 성장·발전시키는 점에서는 학술적인 성격이 짙으나, 기타 학술분과 동아리와는 분명히 성격의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타동아리와의 연계가 사실상 힘든 상황이다. 더욱이 설립된지 얼마되지 않아 외대내 학우들과 교수들 사이에 인식이 부족하여 지지와 관심도 역시 낮은 상황이다.

『새로운 정보기관으로 준비와 계획이 미흡하지만 앞으로 펼치는 구준한 사업속에서 일본어과뿐 아니라 모든 학우들이 이용할수 있는 유익하고 문턱없는 기관이 될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라며 이군은 말을 맺는다. 〈함명식 기자〉

# 비둘기 현판

## 이문

■ 일사랑 강연회

(더불어 생각하며)
·때:5월31일(목) 오후5시
6월1일(금) 오후5시
·장소:6104
·주제:1.올바른 사회진출을 생각하며
2. 6공의 언론탄압의 본질
·강사:권영길(언론노동조합연맹위원장), 5월31일(목)
강상호(석탑노동문제연구소 연구조사부장), 6월1일(금)

*많은 학우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애국적 사회진출모임 일사랑—

■ 외인부대 정기공연

본교 그룹사운드 「외인부대」가 정기공연을 갖게 되었습니다. 더욱더 성숙한 모습으로 학우여러분을 찾아 뵙겠습니다. 많은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공연일시:6월2일(토) 1부:오후3시, 2부:오후6시
·예매처:교내서점
·장소:본교대강당
—외인부대—

■ 제11회 F.B.S 외대가요제

*본선:6월1일(금) 오후6시
·장소:대운동장 특설무대/초대가수:김광석, 조덕배
—본선진출팀—
1. 장난—외봉(외대)
2. 한구에게—이동수(한성대)
3. 불꽃으로 살아—활천(연세대)
4. 보부리 하나—김지현(홍대)
5. 우리의 결의로 날아—신방마을(경희대)
6. 페페이의 노래—두매(숭실대)
7. 해방의 그 길로—소리사랑(성대)
8. 장난감기차—이영주, 서동성(경기대)
9. 우울한 날의 일기—김동규(성대)
10. 화페이 화병의 노래—법은 사랑처럼(외대)
11. 꿈—아름이음새(카대)
—F.B.S 외대교육방송국—

■ 새생명 예수 축제 '90

·5월29일(화):찬양축제 (학생회관 앞, 오후2시)
·5월30일(수):예수대행진 (All Campus, 오후2시)
·5월31일(목):호산나 선교발랜단 유도선교단 시범 방다락목사 초청 전도집회 (대강당 오후2시)
·6월1일(금):예수축제(학생회관 앞, 오후2시)
—외대 대학생 선교회—

■ 미교에게

이젠 안녕
너와 함께했던 시간은 즐거웠단다.
P.S. 나 이제 요플레 안 먹는다. —한나—

## 왕산

■ 「반(反)파쇼 영화제」개최

*5월29일(화):율(YOL)
*5월30일(수):산티아고에 비가 내린다. (RAIN ON THE SANTIAGO)
*5월31일(목):Z(제트)
·상영장소:어문대 영사실(1412)
·입장료:5백원(수익금은 왕산대동제 다큐멘터리 제작비용으로 사용)

지최 「빛모습」의 전신인 「율림」은 왕산골에서 변변치 못한 활동으로 그저 영화연구회란 동아리회의 이름으로 면면히 내려왔으나 올해부터는 목적의식적 동아리로 서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빛모습—

■ TOEIC 경시대회

총학생회 사회진출위원회에서 오늘(화) TOEIC 경시대회를 실시합니다. 성적우수자에게는 부상및 공신력이 인정되는 TOEIC 외부시험 무료용시 자격을 드립니다.
·때:5월29일(화) 오후2시
·장소:교양학관 303호
·참가비:무료
·후원:시사영어사 ELS
—통일왕산 총학생회 사회진출위원회—

■ 언어학과 「오일주점」

·때:5월28일(월)~6월1일(금)
·장소:학생회관 앞
각종 주류와 스페셜 안주로 저렴한 가격에 모시겠습니다.
*광부8명대기, 팁 없음, 티켓 소지자는 To—you 초코렛 증정
—언어학과—

■ 부총장배 볼링대회

·때:6월2일(토)12시 ·참가비:5천원
·장소:성동볼링 센터·접수처:학생회관419호

■ 등지여 내가 있다

우리들의 사랑하는 후배 성훈에게 따뜻한 격려의 편지를 보냅시다.
—서울시 송파구 가락2동 162번지 「성동구치소」 30번 모성훈
*더불어 영치금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사학과—

■ 대학생활소비자협동조합

조합원및 왕산학우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더불어 함께 시는 대학생활소비자협동조합의 창립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일시:5월31일(목) 오후1시
·장소:교양학관 201호
·지참물:조합원증(조합원에 해당)
*특히 조합원은 반드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생·협—

■ 왕산 ALA 공개 행사

*AFKN 영어 청취특강
전문강사 초빙. AFKN청취요령을 특강
·일시:5월29일(화) 오후2시 교양학관 201호
*영어 듣기 시험대회
·대상:왕산학우 전체
·일시:5월31일(목) 오후2시 교양학관 301호
—ALA—

■ 동문회

재 외대(이문·왕산)배재고

크고자하여 남을 섬길줄 아는 배재인 여러분 5월31일(목) 오후1시 왕산학생회관 406호에 모여 우리 배재학당 힘차게 노래해 봅시다. 「남녀 2인1조」를 원칙으로 합니다.

광주인성고

·때:5월31일(목)오후5시
·장소:이문동 광릉
·안건:6월 부쟁선포문 작성 등
·회비:2만원

강릉고

·때:5월31일(목) 오후5시
·장소:왕산 학생회관 식당
·회비:4천원

잠실고

·때:5월31일(목)오후3시
·장소:왕산 학생회관 식당

서초고

·때:6월4일(월) 오후5시30분
·장소:왕산 학생회관 식당
·회비:5천원

서울사대부고

동문을 찾습니다.
·때:5월31일(목)오후1시
·장소:왕산 어문대 로비
·회비:처음 나오시는 분은 무료

광고신청: 서울—본사 기자실(학생회관 203호)
용인—본사 기자실(학생회관 212호)

〈이 광고란은 무료입니다. 외대인의 많은 이용바랍니다〉

## 젊은 얘기 이야기 3

# 이 시대에 우리는

글/본교동아리 사월문학반－정진관 〈사회·무역2〉

오전 내내 비가 쏟아질듯 우중충하던 하늘이 어느새 북풍이 남풍을 몰아내고는 파래지기 시작한다. 금세 구름 한 점 없이 벌이 내리쬔다.

옵 오월은 유난스레 변덕스럽다. 하루에도 몇번씩이나 맑았다가 빗발이 내리치고, 콧잔등이 벌겋게 타도록 햇살이 비치다가도 이내 찬바람이 어깨를 오싹거리게 한다. 가뜩이나 세태가 어수선해서 심기가 불편한데 날씨까지 이 모양이니 괜히 초조함만 더해 갈 뿐이다.

『학생들이 또 데모를 하는구먼.』 옆 집포에서 행침을 하는 민아저씨가—그는 항상 자신이 4·19세대임을 자랑스레 이야기하었다—안스러운 표정으로, 하지만 별로 탐탁치 않은 말투로 내뱉으며 상

점 문을 내린다.

『이봐/ 자네도 일찍 문닫고 들어가게나. 학생들이 골이까지 내려 올걸세』

『예, 먼저 들어가세요』

저 건너 일단의 학생들의 모습이 선명히 보이기 시작한다. 무어라 외치는지 흩음거리기만 하던 구호 소리도 이제는 하나둘이 또렷이 들려온다.

『해체 민자당/ 퇴진 노태우-/』

『해체 민자당/ 퇴진 노태우……』

거리는 갑자기 시민들의

"저 어린 학생들이 이만큼 했으면 이젠 우리가 나서야잖아. 언제까지나 자식같은 애들의 피를 흘리게 할 셈인가"

분주한 발자국 소리로 새벽 도매시장처럼 소란스러워진다. 여기 저기서 철문 내리는 소리가 쩡쩡 울린다.

『펑. 펑—퍼억, 펑—퍼억…』

멍멍이서 지랄탄이 이제 막 구름을 걷어 낸, 말끔한 파란하늘을 들로, 아니 넷으로, 여럴로 갈라놓는다. 아수라장이다. 로마장정같이 부구들 뒤집어 쓰고 방패, 곤봉으로 무장한 전경들의 함굳은 군화소리가 거리를 가득 메운다.

『저 새끼 잡아/』

『아이 씽년아, 어딜 도망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이 안가는 비명소리. 전경들의 번득이는 쇠파이프에 파란하늘이 수차례 베이는 것만이 보일 뿐이다. 휴사 전(前)세기에 미국 노예상인들에 의해 평화롭던 검은 대륙이 인간 사냥터로 전락해 버렸던 것 같은 모양이다.

한 학생이 다급히 가게 앞에 선다. 나는 얼른 문을 열어 주었다.

『아저씨, 좀 도와주세요』

뻘겋게 달아오른 그의 볼이 이내 시퍼렇게 질리면서 가쁜 숨을 몰아쉰다. 간간히 떨려오는 입술을 꽉 깨문채 전쟁터같은 거리를 옹시하는 학생은 무언가를 목격했는지 얼굴이 일그러진다. 주먹을 불끈 움켜쥔다. 그러나 당장 뻘건 눈물이 와락 쏟아질것만 같다.

거리에는 흩어졌던 학생들이 다시 구호를 외치며 하나둘씩 모여들고 있다.

『해체 민자당/ 퇴진 노태우-…』

무심코 가게 안에 있는 학생을 바라보았다. 아직은 앳띤 순수한 얼굴이다.

『감사합니다. 아저씨』

그는 문을 열어 제끼고는 시위대를 향해 단숨에 달려간다. 마치 결승점을 눈앞에 둔 마라톤선수처럼….

학생들의 구호소리는 아까보다도 더 카랑 카랑 터져나온다.

아무래도 일찍 끝날 것 같지는 않다. 상점 문을 닫고 자유와 질서의 수호자, 전경들의 군화발에 눌린, 희루가스가 자욱한 거리를 빠져나왔다.

골목 골목에는 많은 시민들이 모여서 저마다 한마디씩 내뱉곤 한다.

『아세가들이 새빠지게 일해서 대학 보내면, 하라는 공부는 안하고 대체 뭘만다고 데모질이야!』

『데모하는 놈들은 몽땅 빨갱이여/ 저런 것들은 싸그리 쓸어내야돼…』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 눈치다. 그저 안타까운 표정으로 학생들의 일거 일동만을 주시한다.

『에이, 빌어먹을…. 도대체 뭣들 하는거야/』

갑자기 한쪽 모퉁이에서 격앙된 목소리가 날카롭게 들려왔다. 시선이 집중된다.

『이/ 민 아저씨……』

『언제까지 보고만 있을거야. 저 어린학생들이 안만큼 했으면 이젠 우리가 나서야 해 이야기 하고있다.

어두운 역사라고 얘기를 했었다. 빨치산과 토벌군은 6·25 전쟁외에 또 하나의 동족간의 전쟁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그 빨치산의 이야기는 6·25와 함께 반공이데올로기 주입에 이용돼왔던 우리의 아픈 역사였다. 30여년이 지난 후에 소설로써 보여진 우리의 아픈 역사가 이제는 영상으로 다가오고 있다.

분단된 조국의 현실은 우리를 늘 가슴 아프게 한다. 지리산을 넘나들던 빨치산들은 분단된 조국을 원하지 않았다. 그들은 진정한 조국의 해방을 원했고, 자신들의 사상과 이념을 위해 무기와 식량이 끊어진 극한상황속에 짐음을 던진 아름다운 사람들이었다. 휴머니즘만으로 빨치산이 우리에게 설명되어서는 안된다. 그건 우리들의 분단된 조국의 처절한 역사였고, 우리들이 결코 잊어서는 안될 혁명을 향한 몸부림이었다.

영화를 소개한 작은 책자에 이런 귀절이 있다. 「역사의 수레바퀴에 깔린 처절한 휴머니티, 지금 지리산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빨치산들의 투쟁의 역사는 처절한 휴머니티가 아니다. 아직도 장엄한 지리산맥을 따라 흘는 피로 슬어고 있는 투쟁의 역사이며 혁명의 역사인 것이다.

모 혜 원
〈동양·인도어2〉

## 신간소개

### 창조하는 공동체놀이 1, 2

—연성수 엮음

「놀이」의 올바른 개념을 정립, 체계화시키고 건전한 민족문화풍토정립을 위한 민족대동놀이를 엮은 책이다.

집단노동에서 오는 긴장과 피로를 풀고 다시 자연과 현실에 도전할 수 있는 집단신명을 재조직하는 과정으로서의 「놀이」를 정의내리고 있으며 그동안 농성현장이나 대학가에서 행해진 놀이의 형식과 방법, 의의를 삽화와 함께 다루었다.

〈아침퍼냄 값 각권 5천 5백원〉

### 선생님 상·하

—윤지형 지음

교육운동현장에 참여하는 가운데 온갖 희망과 좌절, 감격과 분노, 고민과 갈등을 한켜 먼에 거어야 했던 한 평범한 교사의 참교육에 대한 열정을 형상화한 교육장편소설이다.

현장에서의 체험을 바탕으로 생생하게 기록한 이 소설은 전교협에서 전교조 결성에 이르기까지의 우리나라 현대교육운동사를 그리고 있다.

〈실천문학사퍼냄 값 각권 3천 2백원〉

### 남한사회 중간계층 분석

—소연방 과학아카데미 등방학 연구소 지음

—박대희 옮김

80년대 민주화운동에서 주변적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능동적인 실천자로서 등장했던 「중간층」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한 책이다.

급속한 자본주의 발전에 영향을 받아 남한사회에서 일어난 사회적 기본지표를 해명하고 계급형성과정의 특징과 사회구조상의 변동을 맑스주의적 기준에 의해 고찰하고 있다.

〈장백퍼냄 값 4천원〉

## 문예산책

# 지리산에 살아뛰는 젊은가슴

——영화 「남부군」시사회를 다녀와서

우리는 88년 여름, 무더위를 잊게 했던 한편의 책을 기억한다. 그동안 우리에게 빨갱이로 매도되고 폭도로 기억됐던, 또 우리에게 더이상 손이 닿지 않는 먼곳의 얘기로 알려졌던 빨치산을 담아낸 이태의 「남부군」이라는 자전적 수기형식의 소설책이 그것이다. 그때 당시 대학생과 지식인층에 널리 읽혀졌던 소설 「남부군」이 최근에는 한 젊은 감독에 의해 영상화되었고, 2년이 지난 올해 여름 다시 지리산의 사계를 담은 아름다운, 하지만 결코 그냥 흘려 버릴 수 없는 영상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1950년 7월말부터 얘기는 시작된다. 「조선중앙통신사」의 종군 기자로 전주지사에 파견나와 있었던 주인공 이태는 계속되는 패전으로 인해 통신사의 일원으로 후퇴하다가 순창군 업운산 골짜기의 「조선노동당 전북도당유격사령부」에 합류하게 된다. 거기에는 나이 어린 소년, 대학을 중퇴한 시인 지망생의 젊은이, 시골에서 농사짓던 청년… 그리고 배치받던 순간에 인텔리겐차라고 불렸던 주인공 이태, 그때부터 그는 약간의 빨치산 교육을 거쳐 점점 전쟁 빨치산의 모습으로 변신해 간다. 계속되는 전투속에 동지들을 잃게되고 깊어가는 어느 겨울, 인텔리였던 그는 자신이 하는 일을 생각하게 되고 시인 지망생의 젊은이와 동족간의 전쟁의 허무함을 토론하게 된다.

그때 토벌군의 공격으로 그가 이끌던 소대가 몰살당하게 되고, 뒤이은 공격을 피해 엄운산을 떠난다. 그리고 여름, 전염병이 유격대를 휩쓸고 그는 살아남은 사람들과 같이 남부군 상승부대에 전출하게 되고, 힘겨운 싸움이 계속되던 중에 정치부 소속으로 정식 당원이 된다. 그러나 휴전소식과 함께 사기가 떨어진 남부군은 추위와 굶주림으로 궁지에 몰리게 되고 때마침 시작된 겨울철 대규모 토벌작전으로 남부군은 몰살당하게 된다. 그리고 홀로 떨어진 이태는 눈속을 헤매다 토벌대에 사로잡힌다.

하얗게 덮인 눈위에 넘자한 선협, 그것들을 바라보며 오열하는 주인공의 마지막 모습이 무척 인상에 남는 영화다. 제작 당시부터 매스콤들의 화제가 됐던 영화 「남부군」은 제작비 14억, 제작기간 3년, 연인원 3만명이라는 엄청난 제작과정과, 지리산의 사계가 아름다운 영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다. 우리 나라 영화계사상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대작으로 손꼽히는 영화 「남부군」은 정부가 소유한 자료외에는 조사조차 불가능했던 빨치산의 투쟁을 소재로 한 영화라는 점에서도 그 의의를 짚어볼 수 있다.

소설 「남부군」은 낭만적이고 감상적으로 빨치산을 그렸다는 점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이념과 사상을 위해 젊음을 바친 빨치산들의 투쟁을, 또 극한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신과 끊임없이 싸워나가는 인간의 처절함을 그려내면서 문학사속에 한 맥을 그은 소설로 평가받고 있다. 이 소설을 영화 「남부군」에서는 휴머니즘을 부각시켜 해석을 했고 그간 우리에게 피도 눈물도 없는 전인한 인간으로 알려졌던 빨치산을 영화라는 대중들에게 친근감있게 다가갈 수있는 매체를 통해 보여주었다.

『장호야/ 엄마는 아빠없인 살아도 너없이는 못산다』

—지난 23일(수) 고(故) 신장호열사 장례식에서 오열하고 있는 신장호 열사의 홀어머니—

〈주재영 기자〉

## 파수대

### 일왕각하＝뜀방각하

—무명인(無名人)—

당신의 뻔뻔함은 하늘의 이치를 더했고 그 간교함은 땅의 오묘함을 다했노라. 오명으로 이름높으니 빨리 나에게 오길 바라노라

—저승사자—

일왕/ 숙제했어? 숙제했으면 뭣해. 반성해야지

—정외인—

역사는 과거가 아니라 오늘 살아 움직이는 것이다.

—밤들이—

오리발의 명수.

—법1회(熙)—

불안에 떨지말고 사죄하여 광명찾자. —경영 90—

일왕각하보다 뜀방각하가 훨씬 낫데?

—열렬한 TV팬—

정신차려 이 친구야/

—응—

과거에 대한 유감스러움이 어떻다고? 차라리 절대 유감스럽지 않다고 해라. 그래야 적개심이라도 더 커질테니.

—나—

다음주제 「이런 6월을 만들겠다」입니다.

### 백지 제자보

주제:일왕(日王)각하

황제자하는 나와는 한핏줄 한 형제지. 형제간에는 너그럽게 용서할 줄도 알아야 되는거야. —노가려—

## 학군사관 후보생모집

(R.O.T.C.)

1. 모집인원:○○○○名
2. 지원자격:
   ①90년도 4년제대학 2학년 재학생
   ②'69. 1. 1～'73. 3. 1출생자(18세～22세 미만)
   ③장교 임관 결격사유 없는 자
3. 지원서 교부및 접수:
   기간:'90. 5. 1～6. 10(학군단본부)
4. 구비서류:

| 지원서접수시 | 신체검사시 |
|---|---|
| ●지원서및 서약서 ……1부 | ●호적및 주민등록등본 ··각1부 |
| ●대학입학및 1학년 성적증명서 ……1부 | ●사진(4×5cm) ……2매 |
| ●사진(4×5cm) ……1매 | |

5. 선발:대학성적, 신체검사, 체력검정, 면접
6. 합격자발표:'90년 12월22일
7. 특전:
   ①무시험 선발
   ②소위임관, 중위전역 또는 복무연장, 장기복무
   ③의무 복무 기간:2년3개월(장교중 최단기)
   ④희망및 전공학과 고려 병과분류 보직활용
   ⑤전역시 직업보도실시
   ⑥대기업체 학군출신장교 우대선발및 취우

*문의처:각 대 학 학군단 본부

## 한국외국어대학교

### 1990학년도 후기 각 대학원 학생모집 (전화)

96 1－4103·4104

가. 1. 모집학과

석사학위과정 : 영어과·불어과·중국어과·독일어과·노어과·서반아어과·포르투갈어과·이태리어과·힌디과·아랍어과·태국어과·인어학과·사학과·아주지역연구학과·동구지역연구학과·서구지역연구학과·중남미지역연구학과·러시아지역연구학과·아프리카지역연구학과·북미지역연구학과·경영학과·경영정보학과·수학과·물리학과·화학과·신문방송학과·무역학과·경제학과·법학과

나. 2. 시험과목＝

(가)석사학위과정 : (1)영어, (단, 영어과는 제2외국어) (2)영어 (3)제2외국어 (4)구술시험

(나)박사학위과정 : (1)전공과목 (2)영어 (3)제2외국어

3. 원서교부및 접수＝1990년 7월 9일(토) 오후 2시

4. 시험일시＝1990년 7월 11일(월) 오전 10시

5. 시험장소＝석사학위과정 : 무역학과·국제경영학과·해운경영학과·정보관리학과·보험경영학과

(나)경제학석사 : 국제경제학과·국제지역연구학과

(가)석사과정 : (1)논문 (2)외국어(19개국어중 택1) (3)면접

(나)연구과정 : (1)서류전형 (2)면접

6. 원서접수＝1990년 7월 4일(월)～7월 2일(월)

*비 상경계 전공자도 입학할 수 있음. 재학생 25%이상에게 장학금지급.

*해운경영학과 석사학위 취득자는 해무사시험에 특전있음.

*실무경험이 다년간 있고 재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분을 우대함.

*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입학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 교육대학원 (야간) (전화) 963－6881 961－4116

1. 모집과정＝석사학위 과정 ○○명
2. 모집전공분야＝국어교육·영어교육·불어교육·독어교육·윤리교육·역사교육·학교상담·교육행정·상업교육·전자계산교육
3. 시험과목＝1. 필답시험(전공) 2. 면접
4. 지원서교부및 접수＝1990년 6월 4일(월)～6월 22일(금)
5. 시험일시＝1990년 6월 30일(토) 오후 2시

*현직 교사는 수업료의 25%를 학비감면함.

*재학중 성적 우수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함.

*본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입학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 기타 상세한 것은 해당 대학원 교학과에 문의바람.

• 위치＝(130－791)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270 한국전철역(외대앞역)

### 무역대학원 (야간) (전화) 962－7118 961－4108·4109

1. 모집인원＝석사학위과정 각학과 ○○명, 연구과정 ○○명.
2. 모집학과＝(가)경영학석사 : 무역학과·국제경영학과·해운경영학과·정보관리학과·보험경영학과

(나)경제학석사 : 국제경제학과·국제지역연구학과

3. 시험과목＝

(가)석사과정 : (1)논문 (2)외국어(19개국어중 택1) (3)면접

(나)연구과정 : (1)서류전형 (2)면접

4. 원서교부및 접수＝1990년 7월 9일(월)～7월 2일(월)

*비 상경계 전공자도 입학할 수 있음. 재학생 25%이상에게 장학금지급.

*해운경영학과 석사학위 취득자는 해무사시험에 특전있음.

*실무경험이 다년간 있고 재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분을 우대함.

*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입학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